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06. **7** Vol. 175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이영탁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_ 산이라고 불리는 뜨거운 영혼들의 고향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_ 우리 타악기와 대취타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_ 천국 극장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7월 8일(토) - 부산시립극단 '동래야류 중 할미과장'

중요무형문화재 제 18호 동래야류 중 제 4과장 영감, 할미과장 특별 무대. 양반신분의 몰락과 위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 4과장은 나머지 세 과장과는 달리 양반의 가정사를 다룬 탓에 희극적 내용이 풍부하고 대사가 일상적 산문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보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되어 무대화되기도 한다.

- 연출/손기룡(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
- 출연/황창기(영감), 이돈희(할미), 염지선(제대각시), 유성주(의원), 이혁우(봉사)
- 악사/이현주(상쇠), 김은희(장구), 정행심(북), 임해련(북), 박찬영(징)
- 무대감독/정순지



오페라 제작소 밤비니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 7월 15일(토) - 오페라 제작소 밤비니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클래식의 고상함과 연극적인 재미를 결합시켜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품격 있는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오페라 제작소 밤비니가 선보이는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마술피리'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작품으로 화려하고 다양한 음악과 더불어 그 특유의 감성과 익살이 그대로 녹아 있는 모차르트 오페라의 결정판이다.

- 연출/김성경
- 출연/전병호(타미노), 윤현숙(파미나), 김나정(밤의 여왕), 오세민(파파게노), 김정권(모노스타토스), 권미경(파파게나), 박재현(자라스트로), 양지웅(천사), 이동순, 권유진, 강연희(세 시녀) 외

● 7월 22일(토) - 舞一무용단 공연 '舞一Ⅱ' 우리 춤의 흥과 멋

- 프로그램
- 첫 번째 춤-향발무(출연/강영남, 박언정, 이정화, 장유진, 최지숙, 팽미영 · 초등학교사 춤사랑무용단)
 - 두 번째 춤-살풀이춤(출연/전미리)
 - 세 번째 춤-소고춤(출연/노금선)
 - 네 번째 춤-산조춤(출연/황지인)
 - 다섯 번째 춤-황진이의 일생(특별출연/배혜경)
 - 여섯 번째 춤-태평무(출연/장래훈, 서현미)
 - 일곱 번째 춤-설장고춤(출연/김운호)
 - 여덟 번째 춤-꽃잎(출연/김효진, 서미란, 곽혜정, 김인경, 안애희, 김대연, 최현진, 구지은, 김진영, 정지영, 박수연, 김문경, 박금영, 김유미, 강주경 · 부산교육대학교 재학생)
- 해설/심미숙

• 입장권 :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7월 1일, 29일은 부산음악콩쿠르 및 무대보수공사로 토요상설무대 공연은 쉽니다.

(사)기회의 학숙 기금마련을 위한

사랑가득한 음악회

2006. 7. 22(토)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전상철 (부산콘서트콰이어 상임지휘자) | 해설 송필석 | 바이올린 김영애
플룻 오영인 | 클래식기타 고충진 | 헤르메스 금관5중주 | 피아노 현미경



주최 :  부산콘서트콰이어,  (사)기회의 학숙
주관 :  Classic Art Manager 클래식아트매니저,  디자인에이원
후원 :  (사)부산음악협회

입장권: R석_50,000원 / S석_20,000원 / A석_10,000원 문의: 051.817.8002, (사)기회의학숙 051.643.1807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TICKET*365

예음악기(627-5508), 진음악사(803-6900), 소희음악학원(404-0157), 필하모니(628-2592)
문우당서점(245-3843), 동보서적(803-8000), 영광도서(816-9500), 문우당서점(245-3843)
예음악기(627-5508), YAMAHA(256-7010)

여름방학특집

제 7 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청소년교과서음악회



지휘_박성완
(명예지휘자, 부산대학교수, 포항시향 상임지휘자)



소프라노_전영무
(경성대 외래교수)



테너_전병호
(부산대 출강교수)



나레이션_이현주
(부산시립극단 단원)



바이올린_황지원
(경성대 외래교수)



트럼본_이웅희
(동의대 출강교수)

PROGRAM

1부 (교향악단 연주회형식)

·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

S. 프로코피에프

2부 (춤이야기)

· 폴카 "틱탁" 작품 365

J. 슈트라우스

· 트럼본의 춤 _ 이웅희

H. 필모어

· 갤럽

D. 쇼스타코비치

· 화려한 폴로네이즈 _ 황지원

H. 비니아브스키

· 칸강

J. 오펜바흐

· 한국의 춤 _ 전병호

박연폭포, 산촌

조두남

· 갈춤 (Sabra dance)

A. 하차투리안

· 줄리엣의 왈츠 _ 전영무

Ch. 구노

· 광대의 춤 (Comedian dance)

B. 스메타나



사랑티켓 참가작품



2006. 7. 25(화) 7:3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 최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www.bso21.com)

• 후 원 :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Busan Educational and Cultural Center for Students

•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 인터넷예매처 : 부산은행 티켓365 www.ticket365.co.kr 1588-2528

• 입장권 : 일반 - 균일 10,000원 청소년 - 균일 7,000원 사랑티켓7인사 일반 - 균일 5,000원 청소년 - 균일 2,000원

• 문의 : BSO 051)620-4917, 4918

• 본 공연은 2006년도 부산광역시 무대공연작품 선정작품임

- 06 부산문화회관 7월 공연 일정
- 08 부산시민회관, 금정문화회관 7월 공연 일정
- 10 마음을 여는 글 | 부산, 국제, 어린이, 영화제 그리고 영상 · 김상화
- 12 반갑습니다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이영탁
- 14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 산이라고 불리는 뜨거운 영혼들의 고향 · 권경업
- 18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마음의 수면아래-임영선 '가지 않은 길' · 김형술
- 20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 천국 극장 · 김희진
- 22 연극속으로 | 괴테의 내밀한 고백 · 변미선
- 24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우리 타악기와 대취타 · 홍희철
- 27 쉽게 듣는 클래식 | 프렌치호른 · 곽근수
- 28 그곳에 가면 | 무척산 관광 예술원
- 30 우리는 문화 가족 |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 32 캠페인 1인 1기를 배웁시다 | 단소불어보기<7> · 채수만
- 34 이 사람 | 한국과 독일 문화의 다리를 잇는 부산독일문화원장 김정순
광복절 일본에서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지휘자 오충근
- 36 공연 화제 | 제 14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 38 부산시립예술단 7월 공연관람 가이드
- 40 7월 프로그램 가이드
- 57 객석에서 | 국악의 선율속에서 생각해본 자연과 인간 · 이남근
- 58 새로 나온 음반
- 59 새로 나온 책
- 60 부산문화회관 소식
- 63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5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안내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번지)
TEL. 625-8130, FAX. 607-6204
- 발행인 조병규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6년 6월 25일
- 인쇄처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601-836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56-11번지)
TEL. 468-2468, 2757, FAX. 468-2515
- ※ 예술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 표지설명: 한 여름밤 시원한 웃음을 선사하는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춤단이 7월 20일 문화회관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사진은 2005년 여름마당춤판 '이쁜이 시집가는 날')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7 월 공연일정

전시실

Gallery Mee

이한우 화백 회화 50년 '아름다운 우리 강산展' - 중전시실

7월 4일(화)~7월 17일(월)

문의 Gallery MEE (02-542-3004,
011-9562-3660)

제 32회 부산미술대전 초대 작가전-대전시실

7월 14일(금)~7월 22일(토)

문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제 3회 아시아 수채화대전-대·중전시실

7월 28일(금)~8월 13일(일)

문의 권영훈(505-1231, 011-9508-9503)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안내 : 9쪽)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1	sat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무료/부산문화방송(760-1125)
2	sun	
3	mon	
4	tue	제 15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5	wed	제 15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6	thu	제 15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7	fri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무료/부산문화방송(760-1125)
8	sat	제 22회 CBS 성가합창제 19:30 무료/CBS부산방송(636-1604)
9	sun	2006 IYF 세계대회 기념음악회 15:30, 19:30 8만원 · 6만원 · 4만원/IYF(011-670-1824)
10	mon	클래식과 재즈의 신선한 만남 '전연숙 · 최광철 조인트 콘서트' 19:30 5만원 · 4만원/소리모아(627-0839)
11	tue	김명자의 춤 19:30 1만원 · 7천원/김영자무용단(646-4480, 011-9310-3242)
12	wed	
13	thu	무사와 함께하는 가족사랑음악회 19:30 4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김정우(628-8377, 010-5633-0864)
14	fri	부산음악콩쿠르 시상식 및 축하연주 19:00 초대/부산문화방송(760-1125)
15	sat	한울림합창단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한·일 공동음악회 18:00 3만원 · 2만원 · 1만원 · 5천원/한울림(645-1978, 011-837-2297)
16	sun	
17	mon	
18	tue	제 14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19:30 초대/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19	wed	제 14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19:30 초대/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20	thu	
21	fri	
22	sat	(사) '기회의 학숙' 기금마련을 위한 음악회 '사랑 가득한 음악회' 17:00 5만원 · 2만원 · 1만원/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23	sun	
24	mon	무대정비(7월 24일~8월 15일)
25	tue	
26	wed	
27	thu	
28	fri	
29	sat	
30	sun	
31	mon	

중극장

MEDIUM THEATER

- 1 **sat**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무료/부산문화방송(760-1125)
- 2 **sun** 부산시립예술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13:30
부산문화회관(607-6047)
- 3 **mon**
- 4 **tue** 광대희 귀국 첼로 독주회 19:30
초대/광대희(010-7177-1881)
- 5 **wed** 부산시립예술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15:00
부산문화회관(607-6047)
- 6 **thu**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영 뮤지션과 실내악의 만남'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9)
- 7 **fri**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무료/부산문화방송(760-1125)
- 8 **sat** 제 2회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10:00
무료/(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 9 **sun**
- 10 **mon**
- 11 **tue** 부산시립무용단 2006 청소년을 위한 여름무용축제- 흥기태 수석안무자가
해설하는 우리춤 한마당 균일 2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
- 12 **wed** 부산시립무용단 2006 청소년을 위한 여름무용축제- 흥기태 수석안무자가
해설하는 우리춤 한마당 균일 2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
- 13 **thu** 해운대 소년소녀합창단 제 11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해운대구청(749-4000)
- 14 **fri** 2006 버숨새예술단 기획공연 '흥과 멋' 19:30
2만원 · 1만원/버숨새예술단(751-3100, 010-880-7082)
- 15 **sat** 토요일상설무대-오페라 제작소 밤비니 가족 오페라 '마술피리'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6 **sun** 제 2회 부산 아마추어 클라리넷 앙상블 연주회 18:00
초대/박영미(011-878-5508)
- 17 **mon** 브릴란트 앙상블 제 8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김성현(627-2211, 011-595-6060)
- 18 **tue**
- 19 **wed**
- 20 **thu** (※야외공연장)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출판 '男 공쥐 vs 팔쥐'
20: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6118) ※우천시 중극장에서 공연
- 21 **fri** 부산콘서트콰이어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교과서에 나오는
오페라의 세계' 19:30 1만원 · 3천원/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 22 **sat** 토요일상설무대 - 舞-무용단 '우리춤의 흥과 멋'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3 **sun** 어린이 뮤지컬 '마법에 걸린 인어공주' 12:00, 14:00, 16:00
균일 1만2천원/한술(583-0754, 010-9613-0426)
- 24 **mon** 객석의자 교체 공사(7월 24일~8월 22일)
- 25 **tue**
- 26 **wed**
- 27 **thu**
- 28 **fri**
- 29 **sat**
- 30 **sun**
- 31 **mon**

소극장

SMALL THEATER

- 1 **sat**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무료/부산문화방송(760-1125)
- 2 **sun**
- 3 **mon**
- 4 **tue**
- 5 **wed**
- 6 **thu** See you at the top 19:30
무료/박애숙(784-0853, 010-3133-9086)
- 7 **fri**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무료/부산문화방송(760-1125)
- 8 **sat** 토요일상설 무대-부산시립극단 '동래야류 중 할미과장'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9 **sun**
- 10 **mon**
- 11 **tue**
- 12 **wed**
- 13 **thu**
- 14 **fri**
- 15 **sat**
- 16 **sun**
- 17 **mon**
- 18 **tue**
- 19 **wed**
- 20 **thu**
- 21 **fri**
- 22 **sat**
- 23 **sun**
- 24 **mon** 무대정비(7월 24일~8월 15일)
- 25 **tue**
- 26 **wed**
- 27 **thu**
- 28 **fri**
- 29 **sat**
- 30 **sun**
- 31 **mon**

● 부산시내 기타공연 7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문의 : 시민회관(630-5200)

- 1 sat 서커스 '동방의 신기' 16:00,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뮤지컬 '라이온 킹' 13:00, 15:00, 17:00 -소극장 극단 여명(011-789-3371)
- 2 sun 서커스 '동방의 신기' 15:00, 19:0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뮤지컬 '라이온 킹' 12:00, 14:00, 16:00 -소극장 극단 여명(011-789-3371)
- 3 mon 월요일영화 '미션임파서블3' 14:00,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제 11회 여성주간 양성평등 문화행사 19:30 -소극장
- 4 tue 제 11회 여성주간 양성평등 문화행사 19:30 -소극장
초대/옴니미디어 멋진(201-3301)
- 5 wed 월요일영화 '미션임파서블3'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제 11회 여성주간 양성평등 문화행사 15:00, 19:30 -소극장
- 6 thu 월요일영화 '미션임파서블3'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7 fri 제 27회 부산관악제 19:00 -대극장 박종회(016-566-6410)
동초소리제 영호남 교류한마당 19:00 -소극장 동초제판소리보존회(512-1616)
- 8 sat 월요일영화 '미션임파서블3' 10:30, 14:00, 17: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9 sun
- 10 mon
- 11 tue
- 12 wed
- 13 thu
- 14 fri
- 15 sat
- 16 sun
- 17 mon
- 18 tue 한낮의 休 콘서트 11:00 -대극장
균일 1만원/시민회관(630-5200)
- 19 wed
- 20 thu
- 21 fri
- 22 sat
- 23 sun 영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 14회 정기연주회 '나라사랑 한국
환상곡의 밤' 19:00 -대극장 초대/정동화(017-587-8994)
- 24 mon 월요일영화 '포세이돈'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5 tue 청소년 교과서 음악회 19:30 -대극장 임병원(620-4917~8)
코리아 헤럴드 음악콩쿠르 09:00 -소극장 코리아 헤럴드(638-0026)
- 26 wed 코리아 헤럴드 음악콩쿠르 09:00 -소극장
코리아 헤럴드(638-0026)
- 27 thu 코리아 헤럴드 음악콩쿠르 09:00 -소극장
코리아 헤럴드(638-0026)
- 28 fri 뮤지컬 '요덕스토리' 19:00 -대극장 대구라이브(1588-5352)
제 35회 중앙음악전국콩쿠르 09:00 -소극장 중앙음악신문사(645-6828)
- 29 sat 뮤지컬 '요덕스토리' 15:00, 19:00 -대극장 대구라이브(1588-5352)
제 35회 중앙음악전국콩쿠르 09:00 -소극장 중앙음악신문사(645-6828)
- 30 sun 뮤지컬 '요덕스토리' 15:00, 19:00 -대극장
6만원 · 5만원 · 4만원/대구라이브(1588-5352)
- 31 mon 월요일영화 '헛지'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금정문화회관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 1 sat 스트로크 타악기양상블 정기연주회 19:00 -대공연장 이상진(010-4994-3520)
금정어머니예술단 정기공연 17:00 -소공연장 남산놀이마당(516-4434)
- 2 sun
- 3 mon
- 4 tue 베이스 박기범 독창회 19:30 -대공연장 박기범(010-5702-1225)
클래스 씬머 콘서트 19:30 -소공연장 조진혁(017-592-8868)
- 5 wed 수요일음악회 '테너 김화정 독창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2)
- 6 thu
- 7 fri 2006 부산배우협의회 공연 '비닐하우스' 20:00 -소공연장
2만원 · 1만원/부산배우협의회(633-2114)
- 8 sat 부산새싹발레단 제 12회 정기공연 16:00 -대공연장 부산무용센터(865-2277)
2006 부산배우협의회 공연 '비닐하우스' 15:00, 18:00 -소공연장
- 9 sun 2006 부산배우협의회 공연 '비닐하우스' 17:00 -소공연장
2만원 · 1만원/부산배우협의회(633-2114)
- 10 mon 교사오케스트라 에듀필하모니 제 11회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초대/양미향(011-9537-9303)
- 11 tue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바이올린 클래스(김영희 교수)
양상블 연주회 19:30 -소공연장 초대/김영희(510-2911)
- 12 wed 수요일음악회 '오윤주 피아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2)
- 13 thu 양상블 클라시아가 함께하는 11시 브런치 콘서트 11:00
-소공연장 균일 1만5천원/N.G.N케이블TV방송(506-6305)
- 14 fri
- 15 sat
- 16 sun
- 17 mon
- 18 tue
- 19 wed 수요일음악회 '문주연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2)
- 20 thu
- 21 fri 발레리노 김용걸 초청공연 19:30 -대공연장 예술기획(0505-700-9798)
가족마당극 '콩쥐야! 팔쥐야!' 10:10, 11:20 -소공연장
- 22 sat 발레리노 김용걸 초청공연 19:30 -대공연장 예술기획(0505-700-9798)
가족마당극 '콩쥐야! 팔쥐야!' 12:00, 14:00, 16:00 -소공연장
- 23 sun 가족마당극 '콩쥐야! 팔쥐야!' 12:00, 14:00, 16:00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 24 mon
- 25 tue 양상블 포스 '세대공감 OLD&NEW' 19:30 -소공연장
균일 1만원/조미혜(016-552-7802)
- 26 wed 수요일음악회 '박종근과 함께 하는 오카리나 연주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2)
- 27 thu
- 28 fri
- 29 sat 가족뮤지컬 '마법에 걸린 인어공주' 12:00, 14:00, 16:00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한울(1544-1718)
- 30 sun 2006 한국기타페스티벌 18:00 -대공연장 바하기타음악원(702-1589)
가족뮤지컬 '마법에 걸린 인어공주' 12:00, 14:00, 16:00 -소공연장
- 31 mon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예매할 수 있는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7/10(월) 19:30	전연숙, 최광철 JOINT CONCERT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10%	소리모아 (627-0839)
	8/18(금) 11:00, 16:00	금난새와 함께 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	균일 10,000원	20%(1인 4매에 한함)	부산문화회관 (607-6070)
시민회관 대극장	7/28(금) 19:00, 7/29(토)-7/30(일) 15:00, 19:00	창작뮤지컬 요덕스토리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10%	대구라이브 (1588-5352)
시민회관 소극장	7/3(월)-7/4(화) 19:30 7/5(수) 15:00, 19:30	제 11회 여성주간 양성평등 문화행사	초대	정기회원 카드제시	음미디어 멋진 (201-3301)
KBS 부산홀	7/15(토) 16:00, 19:30	2006 개그콘서트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전화예매시 20%	PS엔터테인먼트 (805-7877)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23(금)-7/2(토), 평일 20:00, 토요일 16:30, 19:30, 일요일 15:00, 18:00(29일 공연없음)	라이어 2탄 그후 20년	균일 25,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7/14(금)-8/13(일) 평일 20:00, 토요일 16:00, 19:00, 일 · 공휴일 15:00, 18:00(7/18, 7/24-7/28, 7/31, 8/7 공연없음)	창작 뮤지컬 루나틱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7/14-7/15 프리뷰공연 40%할 인, 평일 중 · 고, 대학생 40% 할인)	10%	아마데우스 (1588-9088)
가마골소극장	6/9(금)-7/17(월) 평일 19:30, 토요일 16:03, 19:30, 일 · 공휴일 15:00, 18:00(7/17일 제외한 월요일 공연없음)	우리에게는 또다른 정부가 있다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글로벌아트홀	7/18(화) 11:30	오지탐험가 도용복과 함께하는 음악이 있는 세계문화기행 세번째	VIP 50,000원 · 일반 15,000원 학생 10,000원	20%	글로벌아트홀 (505-5965)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문우당서점(245-3843)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금정구/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부산대 앞 518-0686), 골든악기사(부산예고 앞 512-4295)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해운대구/해운대약국(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선프라자 1층 743-0003)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감동을 · 함께 · 만드는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야마하 공식 A/S점

부산, 국제, 어린이, 영화제 그리고 영상

김상화 ·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장, 부산예술대학 교수

부산이 영상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들 한다. 부산이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들 한다. 부산이 어느새 국제 행사로 붓물을 이루고 있는 듯 보일지도 모른다.

4년여쯤 요트경기장 안에 PPL(영화나 TV 드라마 등 영상매체에 기업의 상품을 자연스럽게 등장시켜 관객들의 무의식 속에 상품 이미지를 심는 광고 기법)사업을 하는 후배들이 사무실을 열고 있었다. 아직 국내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영역이 조금씩 커지고 있던 중이었고, 그들은 곧 좀 더 대중적인 축제를 구상하고 있었다. 이른바 박람회 형식의 어린이영화축제를 기획하고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던 차에 그 조직을 구성하는 일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었다. 그러다 그 일은 이내 잊혀졌다. 그 업체는 부산에서 PPL 사업을 함께 할 영화제작 업체가 없었고, 부산은 서울의 제작 현장과 너무나도 멀었던 탓에 서울로 옮겨가고 말았던 것이다. 나도 TV시리즈 애니메이션 제작이 시작되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30분짜리 20부작의 시리즈를 제작하는 힘든 프로젝트를 실행하던 상황이라 그때의 일은 곧 잊혔지고 말았다.

그러다, 민주공원에서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준비하게 되고 그 일을 도와주면서 부산에 갈래 영화제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몇몇 분을 모이게 하고 토론을 거듭하며 영상미디어 교육과 관련한 영화축제를 여러 가지로 구상하게 되면서 그 중의 하나로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를 다시 거론하게 되었다.

그동안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로 그렇게 따라다니던 '문화의 불모지'라는 딱지를 한방에 날려 버리고, 마치 거대한 영화 물결에 휘청거리는 듯 했다. 시네마테크 부산이 부산시 예산으로 요트경기장 안에 만들어 지면서 약간의 흥분도 했었다. 영상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로케이션 지원 시스템의 모범을 만들어 내었고, 여러 지역에 영상위원회가 만들어 지도록 했다. 이어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영상벤처타운을 운영하며, 후반산업기지 계획 등 많은 영상 관련 계획을 만들어 냈다. 금방이라도 영화산업도시가 되어 부산의 미래 산업이 곧 현실이 될 듯 좋아했다.

한편으로 1980년대 후반을 거쳐 1990년대를 지나며 조성봉, 전수일, 김희진, 유상곤, 박지원, 염정석, 박찬형, 계운경 감독 등 수많은 부산의 젊은 감독들이 다큐멘터리, 극영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세계 여러 영화제에 초청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궈내는 성과들 만큼이나 일상은 힘들었고, 보상은 없었다. 그렇게 젊은 감독과 제작 스태프들은 창작의 열정을 지금도 불태우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후 산업적 열망이 드높았던 부산시의 욕심과는 또 다르게...

그렇게 타오르던 열정이 힘든 현실 앞에 하나 둘 꺼져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지난해 새로운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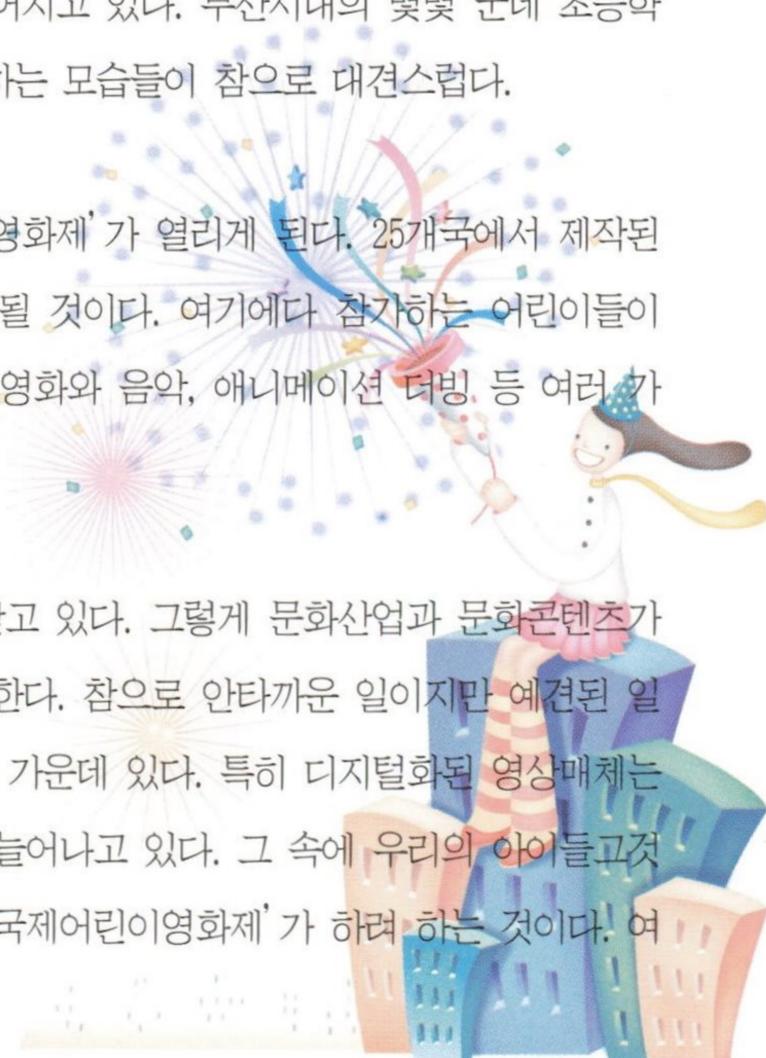
식의 영화제작 시스템에 직접 나서게 됐는데 'HD 장편 극영화'를 부산경남의 극장에 우선 배급하고 전국 개봉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었다. 독립영화, 혹은 저예산 영화의 새로운 제작시스템과 시장에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진입을 실험하는 과정이었지만, 결국은 제작비 투자 조달에 한계를 넘지 못하고 말았다.

부산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은 시쳇말로 '맨땅에 헤딩하기'다. 지방에서 열리는 행사의 대부분이 주목을 받기 힘들기도 하지만, 그나마 지방자치 이후 벌어지는 수많은 축제 속에 묻히기 일쑤다. 특히, 국제영화제가 지방마다 하나씩 만들어질 때 마다 '또 영화제냐'라는 말들이 나오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큰 영화제 탓에 작은 영화제, 즉 의미를 담아내는 영화제는 영향결핍에 허덕이고 있다. 부산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 외에 '메이드인 부산 독립영화제'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장애인 인권영화제' 등에서 다양하게 제작된 영화들과 부대 프로그램들을 통해 독립영화를 관객에게 소개하고 세상살이의 의미를 되짚게 하고 있다. 여기서 일하는 스태프들은 열악한 환경을 오늘도 이겨내며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영화제를 관객과 함께 만들어 내고 있다.

영어가 온 나라에 퍼지고 퍼져 영어마을을 만들거나 영어 교육이 넘쳐나고 있어도 영상시대를 사는 어린이들에게 영상교육을 하는 일은 없다. 학교 교육에서 방과 후에 진행되는 '예술강사 파견사업(강사풀)'을 통한 교육이 일부 있을 뿐 새로운 언어로서의 '영상언어'는 이제 그 중요성이 조금씩 퍼지고 있을 뿐이다. 어린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영상매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자신들이 일상에서 보고 듣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되게 교육되어야 한다. '국제어린이영화캠프'는 작년 7월과 올해 1월에 진행되었고, 많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멋진 작품들을 제작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오는 7월 말에 어린이들이 또 한바탕의 영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동아시아의 동포어린이들과 장애 및 시설의 어린이들이 어우러진 난장관을 기대하고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영화제작을 중심에 둔 다양한 교육체험이 '어린이영화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시내의 몇몇 군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인근의 어린이들이 매주 땀을 함께 흘리며 토론하고 촬영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대견스럽다.

오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해운대 일원에서 '제 1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가 열리게 된다. 25개국에서 제작된 150여 편의 좋은 영화들이 소개되며, 어린이가 제작한 영화도 함께 소개될 것이다. 여기에다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직접 영화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영상매체의 다양한 놀이기구를 만들고 영화와 음악, 애니메이션 더빙 등 여러 가지 체험도 함께 할 것이다.

한류를 타고 우리나라의 영상물들이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가 수출이 된지 몇 해 되지도 않았지만 벌써 그 기운이 떨어지고 있다고들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견된 일이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문자시대를 저만치 지나 영상시대의 한 가운데 있다. 특히 디지털화된 영상매체는 누구나 쉽게 영상을 만들고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고, 그 양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 속에 우리의 아이들고것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런 일을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가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비판을 바라며...



경제와 문화는 함께 성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이영탁



공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영탁 이사장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지난해 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부산과 인연을 맺게 된 이영탁 이사장은 서울과 부산을 오고가는 바쁜 업무 속에서 부산 사람들의 활력을 느낄 수 있어 좋다.

“당초 서울이 금융의 중심 시장이라서 증권선물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있으면 어려움이 많으리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거래소의 운영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직원들도 부산과 서울의 생

활을 즐기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이영탁 이사장은 잦은 출장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부산본사와 서울사옥 사내전화망 시스템과 최첨단 화상회의 시스템, 컨퍼런스 콜, KTX 할인제도 등을 도입하여 불편을 없애왔다. 특히 사내 망을 통해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게재해 임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정부의 증시 선진화방안에 따라 기존 증권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28개 증권회사 및 12개 선물회사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주식회사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의 개설·운영,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자본금 규모가 1,000억원으로 부산경제에 미치는 기대 효과는 엄청나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부산에서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증권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금융관련 공공기관이 부산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셈이다.

이영탁 이사장은 1969년 행정고시에 합격에 청와대 경제비서실 행정관,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국제금융국장, 제정경제원 예산실장, 국무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친 경제 전문가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곧 경제인 만큼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일상생활이 유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온 이영탁 이사장은 그동안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경제원리, 현상을 쉽게 풀어 누구든 읽으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경제 관련 저서들을 발표해왔다. 1990년 출간한 '시민을 위한 경제 이야기'는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저서이다.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증권선물거래소의 경영 이야기, 지난 30여년의 공직생활 경험, 틈틈이 써 온 저서와 논문 등을 정리해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제는 지난 기록을 서류로 보관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데이터, 정보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두루 얻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저의 홈페이지가 우리의 삶과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990년 영국 출장길에 우연히 관람한 뮤지컬 '미스 사이공'을 통해 문화의 힘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던 이영탁 이사장은 한국에 돌아와 우리나라에 뮤지컬 전용극장이 없어 당시 '미스 사이공'과 같은 대작을 무대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영탁 이사장은 부산 생활을 시작하면서 문화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활기 넘치는 부산의 문화 현장을 접할 일이 많아졌다. 그는 평소 경제와 문화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문화도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아 경제논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문화 향유층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침체되기 때문이다. 이영탁 이사장은 문화의 본래 가치를 실현하고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 대중적인 문화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화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업에서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해 기증한 대구시의 경우, 자본과 예술 그리고 기업과 시민이 하나가 되어 상호 발전해 나가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는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부산 출범 이후 부산국제영화제를 후원하게 되면서 임직원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함께 즐기는 기회를 가졌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면서 자칫 해양 물류 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삭막해질 수 있는 도시이미지를 영화, 영상 미디어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는 부산의 역동성을 만날 수 있었다.



산이라고 불리는 뜨거운 영혼들의 고향

권경업 · 시인, 산악인

“구름도 다 못 오른 저 산정에, 사랑하던 정 미워하던 정, 속세에 묻어두고 오르세”

잔잔히 산노래가 피어오르는 곳은 성벽 아래였다. 비스듬히 등을 기댄 소년 둘이 그 노래의 주인공이었다. 청중이라곤 앞자리에 오도카니 앉힌 낡고 색 바랜 배낭과 그들의 하늘빛 영혼을 하나로 묶었던 붉은 로프 한 동이 전부였다. 그리고 오후 서너 시의 여린 봄 햇살들만 쪼르르 몰려들었다. 잠시 그들의 시선이 조각구름 흘러오는 서쪽하늘에 머무는 듯 하더니 다시 “저 높은 알프스 생각하면서, 나는 산에서 살고 싶네, 노란 꽃 보라 꽃 꽃피어 있는, 산에서 살고 싶네”로 이어졌다. ‘귀’ ‘귀’ 꿈을 꾸라는 듯 산평의 낮 울음이 두실마을 쪽 계곡에서 추임새처럼 들려오곤 했다. 그들은 언제나 암벽등반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 부채바위가 성벽너머에서 해질녘 까지 그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바위는 어릴 적 도덕책에서 배운 나다니엘 호든의 ‘큰바위 얼굴’이었다.

오월은, 산성마을은 / 술 고두밥 찌는 연기에 취해 있는데 / 산평은 목이 쉬어 / 진달래 여린 꽃망울들 눈물처럼

지운다// 젊은 날의 꿈과 이상/ 높다라니 걸어 두었던 고정 피톤은/ 말없이 붉게 녹슬고, 사랑과 우정이/ 빛을 발하며 쉬던 트레버스 길엔/ 언젠가, 동지 틀었던 산비둘기 한 쌍도/ 산꾼의 가슴마다 공명(共鳴)을 일으키던 해머의 울림도/ 까만 석이(石耳)로 피었구나// 흠어진 세월 따라 허물어진 성벽 아래/ 별 쪼임하며 부르던 산노래 그리워하여도/ 나는 차마 부를 수가 없다/ 산벗 없는 하늘의 길목 부채바위에서는

〈부채바위〉라는 나의 졸시 전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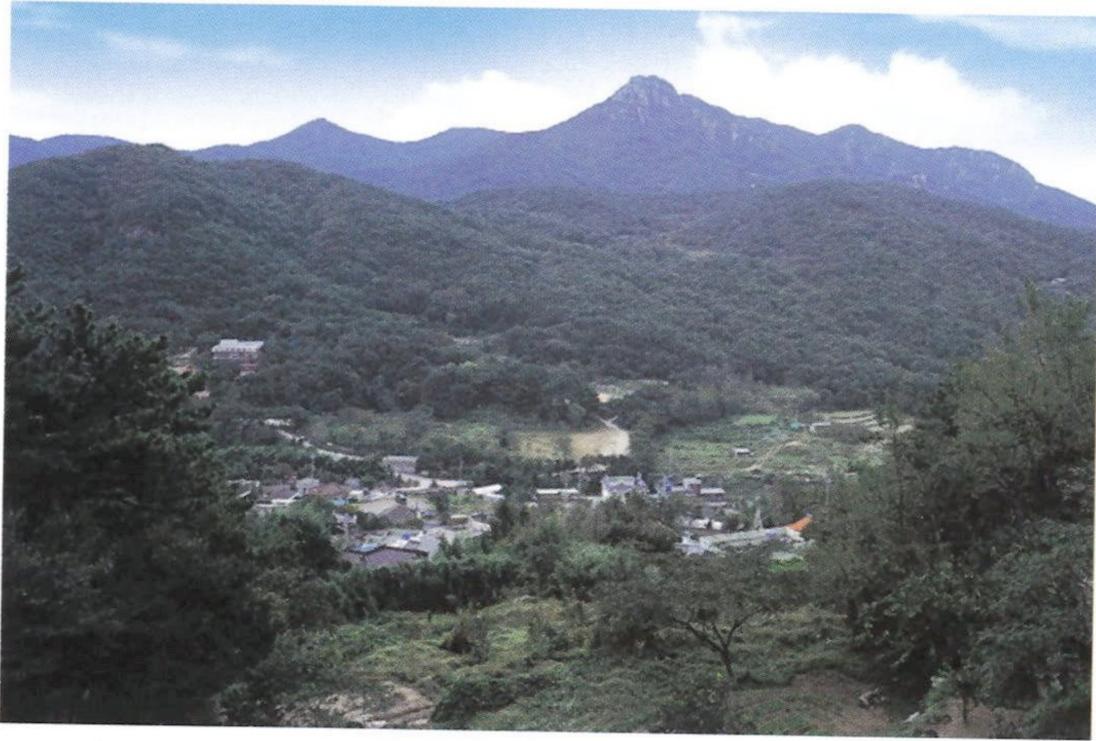
살길을 파고드는 것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하는 능숙한 칼놀림이었다. 스며나오는 신음(呻吟)도 흔적 없이 쓸고 가버리는 마칼바람이었다. 벌써 일주일째 어금니를 앓던 윈 불은 더 이상 싸낼 수 없을 만큼 부어 있었다. 앓아보지 않고서는 그 고통을 알 수 없겠지만 수직 빙벽(氷壁)에 매달린 허공의 400여m도 이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내려가기를 거부했다. 한 점, 한 점 사라지는 제 살점을 남김없이, 껌뻑이는 결눈으로 바라보는 회 접시 위의 가자미가 그럴 것만 같았다. 그것은 무서운 관조(觀照)였다. 하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악우(岳友)와 함께 서고 싶다는 집념. 밤이면 어김없이 세상의 모든 악몽보다 더한 어둠이 내리고, 마침내 그 윈 불의 세포막은 견디기를 포기하고 터져버렸다. 울컥울컥, 두 호흡이 월경(月鏡)만큼의 탁한 피고름이 별빛도 내려앉기를 저어하는 빙벽 모서리의 하얀 눈 위를 물들였다. 달변이던 그의 혀가 날름 입술을 거치지 않고 불을 통하여 쉽게 옆으로 빠져나왔다. 1977년 1월 어느 날의 설악산 토왕성 빙폭(氷瀑)에서였다. 스물일곱 살쯤이던 그 청년은 오래 전 성벽 아래서 산노래를 부르던 그 소년이었다. 다시 세월은 흘러 1986년 그가 이 땅을 두고 떠날 때까지 그 흉터를 윈 불에 훈장처럼 지니고 있었다.

해발 3980m, 등반고도 수직 1800m. 마(魔)의 알프스 3대(大) 북벽 중에서도 가장 험하다는 동계(冬季) 아이저 북벽의 하얀거미를 배종순은 후배 김원겸과 함께 오르고 있었다. 준비해 간 지상의 체력을 남김없이 소진한 뒤, 그들은 결국 땅 끝을 딛고 올라 하늘의 경계를 넘어섰다. 쏟아지는 눈송이는 하얀 만다라였다. 바람소리는 장중한 범패(梵唄) 소리였다. 칠형제봉(峰) 잣나무 관솔 깎아 만든 염주 손에 꼭 쥐면 그들은 지상으로 되돌아오기를 거부하였다. 더 크고 더 곤란하고 더 힘든 벽을 그곳에서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그들이 산이 되었다고 믿는다.

눈망울에, 가끔씩/ 부채바위 만월이 떠 있던 이// 수박샘처럼, 품에는/ 누구의 마른 영혼을 적실/ 언어의 감미로운 샘물이 솟았고/ 발걸음엔 늘 푸른 솔바람이 일었다/ 벗들이, 그대 산이라고 부르더라도 하면/ 젊은 미소를 떡갈나무 잎사귀처럼/ 설레설레 내어젖던 그가/ 설연(雪煙) 자욱한 어느 겨울/ 색 바랜 배낭으로, 봄을 맞겠다며/ 자신의 산으로 총총히 길 떠난 뒤// 상그릴라의 고갯마루/ 어느 작은 롯지에서 보았다는 풍문만 있을 뿐/ 여전히 산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없었다// 내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아주 오래 전이었다.

졸시 〈상그릴라〉의 전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은 이름 속에 산을 품고 있다. 그러기에 일찍이 산악문화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얼마 전,



산성마을

부산의 젊은 산꾼들이 당당히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의 정상에 서고 돌아온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그 밑뿌리에는 늘 금정산과 부채바위라는 이름이 있다. 나는 이 이름들이, 물리적 개념의 것이 아니라 신(神)의 정성이 깃든 거대한 표현물이라 생각한다. 그 표

현물들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감화받고 위로받고 고무되고 희망에 차서 세계로, 세계로, 지구의 극점(極點)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다.

벽등반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한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절대극한 앞에서 굽힐 줄 모르는 저항의식을 메시지로 하는 하나의 무언극이며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무용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미지의 장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시각에서 암벽등반을 축소시켜 무용과 무언극, 또는 퍼포먼스 형태로 무대에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다.

배종순이 먼 설산(雪山)의 산이 된 뒤 외롭게 남은 내 반쪽의 영혼이 산악인이란 이름 뒤에 시인이란 수식어를 덧붙이게 된 오래 전부터.

[주]

- *월경 - 산사람들은 강원도 소주인 경월을 월경이라 불렀다.
- *부채바위 - 금정산에 있는 부산 암벽등반의 요람, 북문과 동문 사이에 있다.
- *수박샘 - 금정산 남문과 상계봉 사이에 있는 샘
- *칠형제봉 - 설악산 공룡능선에서 천불동 계곡으로 뻗어 내린 암릉
- *해머 - 암벽등반용 망치
- *상그릴라 - 설산(雪山) 히말라야에 있다는 이상향
- *배종순, 김원겸 - 1977년 필자와 함께 토왕성 빙폭을 완등하고 1986년 동계 아이저 북벽을 등정한 후 하산 중 조난사 했다. 대한민국 체육훈장 기린장이 추서되고 추모비가 금정산에 있다.

산이 전하는 간절한 속내를 시로 담아내는

산악인 시인 권경업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약해질 수 없습니다. 산 친구들이 하나 둘 산에 묻히는 극한 등반을 하다 보면 절로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경업 시인은 우리나라 산악계가 알아주는 내로라하는 산악인이다. 1982년 부산대학 산악연맹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히말라야 피빌봉을 등반할때 권경업 시인은 등반 대장으로 히말라야를 올랐다. 당시만 해도 그 자신도 시인으로 이름을 알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지만 산이 좋아 산에 오르고 산으로 인해 울고 웃은 시간들을 자연스럽게 시로 담아내면서 산악인 시인이라

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1990년 월간 ‘사람과 산’에서 창간 1주년을 맞아 ‘통일의 염원을 지고 백두대간을 간다’는 기획을 준비하면서 그에게 ‘백두대간(白頭大幹)’ 종주를 제의해와 처음 글쓰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 권경업씨는 80여 일 동안 1600Km를 종주하면서 잡지에 종주기를 연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글을 쓰게 되었다. ‘산경표’에 처음으로 등장한 백두대간이라는 이름은 그의 종주 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때 발표한 백두대간 연작시 60여 편으로 산악시라는 새로운 장을 열기도 했다. 한번 산에 오르면 수십 편의 시를 쏟아내는 열정 탓에 그동안 발표한 시집이 10권이다.

당시 그는 백두산은 오르지 못했지만 백두대간 종주 15년만인 2005년 산악인이 아닌 시인으로 남북작가대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꿈에 그리던 백두산에 올랐다. 지난해 방북 후 북한에서 가져온 젓가락이나 알사탕 표지, 문학지 표지, 차림표 메뉴판 등을 시 작품과 오브제로 구성, 부산과 서울에서 방북시전을 열기도 했다.

‘산’을 오르면서 만나는 새로운 길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는 영락없는 산사람인 권경업 시인, 1989년부터 어린이 대공원에서 노인들을 위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최근 네팔에 비영리 법인 ‘네-사랑’을 설립하고 작은 진료소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마음의 수면 아래

— 임영선 〈가지 않은 길〉

김형술 ·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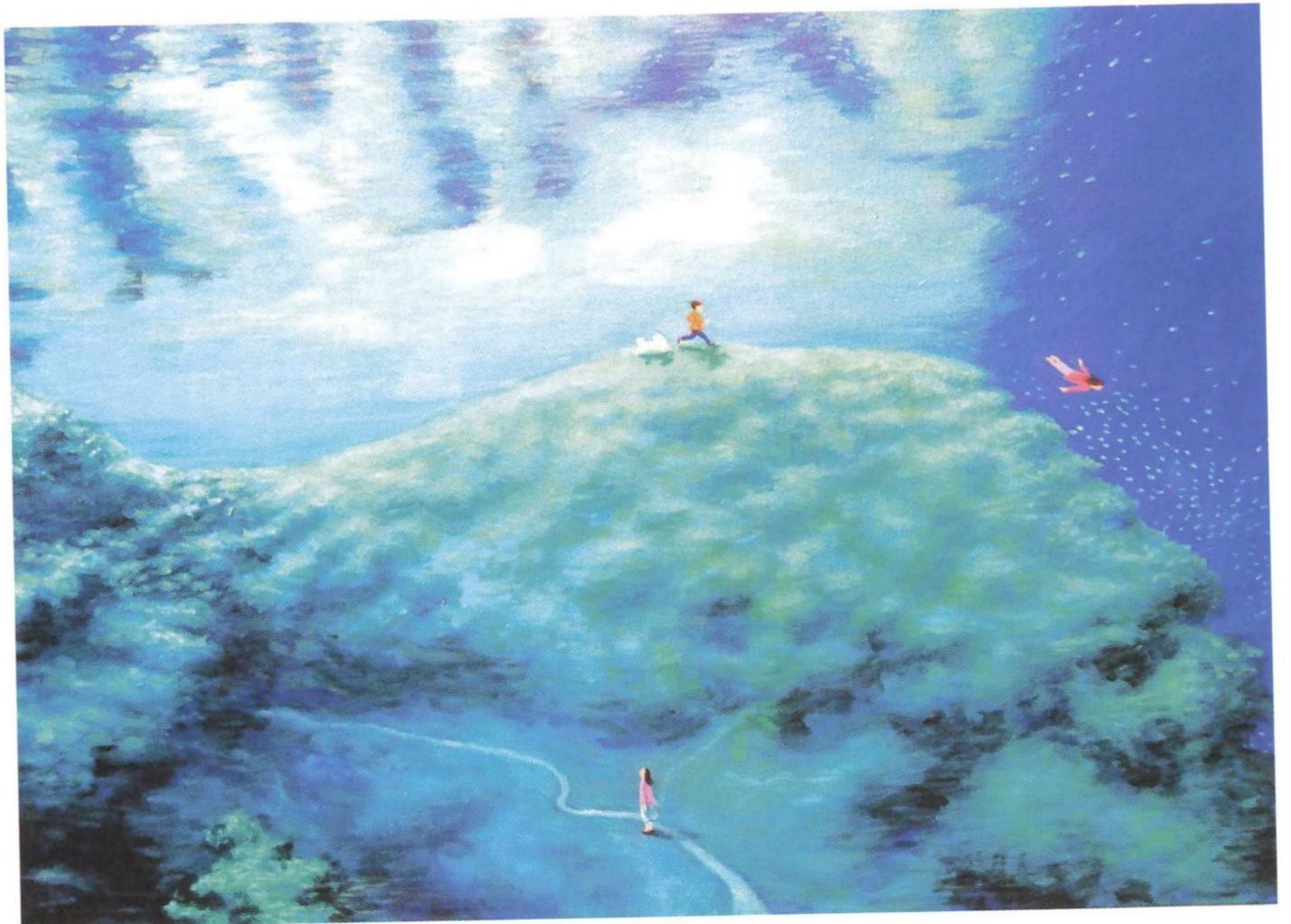
여름강변에 나가 강물에 몸을 담그고 자맥질을 할 때, 거기 물 속에 또 하나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어린 시절의 신비로운 경험이다. 그리 깊지 않은 강물 속을 한 마리 물고기처럼 유영하며 눈을 크게 뜨고 물 속을 들여다보노라면 그곳엔 지상의 세계와 닮아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 물 속 깊숙이 들어온 햇빛의 기둥들이 직선으로 선 채 일렁거리고 반짝이는 지느러미를 단 물고기들이 그 사이를 부드러운 몸짓으로 다가오고 지나간다.

물고기의 몸짓은 강바닥에 뿌리를 내린 채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느리게 흔들리는 물풀의 움직임과 닮아있다. 강의 바닥엔 지상의 산과 구름을 연상시키는 모래언덕이며 자갈밭이 있고 물 속에서도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사금 파리 조각들이 있으며 그곳에서 물고기들은 집을 짓고 들락거리거나 작은 모래알을 입으로 굴리며 놀고 있다.

물 위로 몸을 솟구쳐 가쁜 숨을 몰아쉬 후 다시 강바닥으로 내려가 몸을 누이면 투명하게 맑고 푸른 물 속에도 미세한 소리들이 들려온다는 걸 알 수 있다. 어딘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희미하게 웅웅거리는 소리, 뽀로롱 뽀로롱 물방울들이 수면을 향해 올라가며 내는 소리, 강이 휘어지는 곳에서 몸을 뒤채며 흐름을 바꾸는 물살들의 깊고 둔탁한 울림. 지상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물 속의 적요를 부추기는 섬세한 소리들에 이끌려 입술이 새파래 지도록, 날이 다 저물도록 강물 속에서 혼자 여름 한낮을 다 보내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맑고 서늘한 정적 가득한 수면 아래의 세상.

바다 속 풍경을 지상의 풍경들과 뒤섞거나 교차해가며 묘사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고 있는 화가 임영선의 그림들 속엔 화가 자신의 내밀한 의식들이 투영되어 있음을 쉽사리 알 수 있다. 바다 속 풍경에 지상의 가로등이 배치되어 있거나 중력과 무중력의 공간을 자유롭게 걷고 날고 뛰어가는 사람들의 배후엔 늘 푸르고 깊은 침묵과 정적이 그림 속을 지배하고 있다. 더러 동화 속처럼 몽환적이고 더러 꿈 속에서 만났음직한 낯설고 쓸쓸한 풍경들, 그런 적요한 공간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지상의 소란한 일상과 대비되어 되돌아보게 하는 설득력을 가진다. 어쩌면 완전한 휴식의 동경이기도 하고 철저히 혼자인 인간의 존재에 대한 사색이기도 하며 언어나 형상 등 그 무엇으로도 결코 설명되지 않는 그리움이나 쓸쓸함이라는 감정들에 관한 무의식적 발효이기도 할 것이다.

지상에선 볼 수 없는 색채, 일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완벽한 침묵을 가진 평화의 공간을 화가는 바다의 수면 아래에서 찾아낸 듯 하다. 그 바다 속엔 무리지어 꽃처럼 피어오르는 흰 물방울들과 물고기떼, 구름처럼 떠다니는 해류의 포말들과 함께 작은 언덕과 숲, 오솔길이 있으며 그 곳에서 사람들은 새처럼 날기도 하고 강아지와 함께 뛰기도



임영선 작 '가지 않은 길'

하며 산책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프로스트의 시에서 처럼 두 개의 길 앞에 멈춰서서 자신이 선택한 삶이 가지게 될 운명에 관해 골똥히 생각해보는 사람이 있다. 그 모든 풍경들을 지배하는 커다란 푸른색의 세계. 이 푸른색의 공간은 끊임없이 이성과 의식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내밀한 내면의 세계이기도 할 것이다. 사회라는 환경을 살아내기 위한 학습과 생존을 위한 반복된 훈련들로 무장된 사람들의 가슴 깊숙한 곳의 한 켠에는 이처럼 선하고 평화로운 시간과 공간이 숨어있을 것이다.

물이 가지는 상징이 그러하듯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 따뜻한 양수로 가득찬 세계처럼 휘몰아치는 바람과 파도 따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차단된 완전하게 안전한 세계, 그건 자칫 퇴행이나 도피의 욕망으로 읽힐 수도 있겠지만 또한 누구나 본능적으로 몸 속에, 의식 속에 품고 있는 그리움의 원형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바다의 큰 품을 찾고 몸이 힘들 때면 차거나 따뜻한 물 속에 몸을 맡긴다. 사막을 걷는 낙타가 본능적으로 심리 밖의 물 냄새를 맡고 물이 있는 쪽으로 걷는 것처럼.

인간의 몸이 물과 하나가 된다는 행위는 생명을 가지게 되었던 최초의 시간, 최초의 자연으로의 귀환이고 물을 응시하는 일, 물 속을 상상하는 일은 기실 인간이 제 내면의 근원을 탐색하고 사유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럴 때 인간이 가진 기억과 욕망과 슬픔과 그리움의 그 모든 감정들은 마음의 돋보기가 된다. 화가 임영선이 들여다본 자신의 시간들 속에 자리한 풍경들은 우리 모두의 과거와 미래의 시간들이 가졌음직한 풍경들과 은연중에 그리워하는 환상의 세계가 겹쳐있는 정겹고 친숙한 것들이다. 그리고 지금은 여름, 일년 중 가장 맑고 따뜻하게 물이 인간에게 다가와 마음을 여는 시간, 인간이 태어난 최초의 공간으로 이동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천국 극장

김희진 · 영화감독

경성대학교 맞은 편 골목에 영화를 컨셉으로 한 클럽이 생겼다. 가게 이름은 '키노 아이'다. 문을 연 첫 날에 몇몇 영화인들이 이곳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가게를 장식한 여러 영화 포스터를 보다 <시네마 천국>의 제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한 사람이 영화 제목의 번역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천국 극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다. 실제 영화 속 극장이름이기도 한 이 제목은 그 극장을 지칭하는 상호이기도 하다는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천국과도 같았던 극장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시네마 천국>이든 <천국 극장>이든 둘 다 멋진 제목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부산엔 이렇게 멋들어진 극장이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모두가 외래어 일색이고 그 뜻조차 영화의 풍치를 느끼게 해주는 이름이 없다. 오래도록 기억되고 영화의 제목으로 장식될 수 있는 그런 영화관이 없었던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영화관 이름 중에 노동극장이 있었는데 '노동'이라는 의미가 일을 한다는 '노동'을 뜻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그 곳을 많은 노동자들이 찾았던 것으로 안다. 삼류에다 2분 동시 상영관으로 저렴한 입장료로 관람할 수 있었던 그 곳은 자연스럽게 하층계급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극장이 되게 했던 것 같다. 게다가 일탈을 꿈꾸고 영화에서 희망을 찾았던 많은 청소년들의 도피처이기도 했다. 나 역시 성인 등급의 영화들을 보기 위해 노동 극장을 자주 찾곤 했었다.

내가 가진 꿈 중에 극장을 운영하고픈 계획이 있다. 나름으로 이름도 정했는데 극장 이름은 '보기 힘든 영화관'이다. '보기 드문' 또는 '보이지 않는' 등으로도 바뀔 수 있는데 예술영화나 희귀 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극장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다. 만약 3관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면 각각 이 이름들을 붙이고 싶다. 영화가 기본적으로 보는 것인데 거기가 보기 어렵다는 의미를 붙인 건 미리 극장의 성격을 알려 주고 싶어서다. 이를 수 있을진 모르지만 꿈은 계속 꾸고 있다. 10여 년 전 '씨네마떼끄 1/24'을 운영 할 때 함께 한 사람들은 모두 우리들만의 극장을 소유했다는 즐거움이 있었다. 20평 공간에 모여서 매일 영화를 보며 술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끝없이 영화 얘기를 나누었던 시절이었다. 그 때의 젊음들은 지금 대부분 영화계에서 나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당시 '씨네마떼끄 1/24'은 우리들만의 '천국 극장'이었다.

점점 영화를 관람하는 형태가 변해가고 있다. 고전적인 극장 관람 방식이 아직 일반적이긴 하지만 극장

구조의 변화에 따라 친밀도는 감소되어 가고 마치 개미굴의 개미들처럼 정해진 통로를 몰개성적으로 움직일 뿐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 홈 시어터의 대중화는 영화 관람을 개별화하고 있다. 영화에 대한 뒷얘기들은 흔한 농담처럼 부유하고 대중에 기호에 따라 영화 역시 같은 장르, 동일한 구성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들만의 '천국 극장'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졌다.

보림극장이 간판을 내린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무작정 카메라를 들고 그 곳을 갔던 기억이 있다. 내려지는 간판을 카메라에 담으며 보림극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영화와 친밀한 관객들을 떠올렸다. 저렴한 가격에 두 편의 영화를 보려고 보림극장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한 편의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는 흐뭇해하곤 했다. 한 때 캔 맥주를 팔던 시기엔 영화를 보며 쥐포와 함께 마시던 맥주 맛의 상쾌함도 있었다. 극장이 추억의 공간으로 기억에 남는다는 것도 이렇게 행복한 느낌을 준다.

사람들은 누구나 추억의 극장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처음 데이트를 한 장소로, 오래된 친구를 만났던 곳으로, 지워지지 않은 자신만의 영화를 만난 기억으로, 실연의 아픔을 달래던 장소로, 단란한 가족의 기쁨을 나누었던 곳으로, 어려운 시기 위안을 안겨준 추억으로 극장을 기억하곤 한다. 그래서 극장은 보편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다. 한 정신분석학자는 극장이라는 공간을 어머니의 자궁으로 비유한 적이 있다. 어두운 공간에 타인과 격리된 채 한 곳에서 비추어지는 밝은 빛만을 응시하는 곳,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감정으로 흔들리게 되는 곳이 극장이라는 공간이라 한다. 은밀한 훑쳐보기의 공간이면서 잠시나마 나를 혼자이게 하는 독립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극장의 감흥은 이제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다.

누구나 자신만의 영화를 선택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대중화되고 획일화되며 개별 경험이 무시되는 현실이 지금의 극장 풍경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자신만의 극장, 혼자만의 감상을 가지길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극장 운영을 위해 안정된 수입을 추구해야하는 극장의 입장이 지금처럼 산업화되어 버리면 이제 극장에는 더 이상 낭만이 존재하기 힘들다. 극장을 만들고 싶다. 존재하지만 존재할 것 같지 않은 극장, 극장이라는 개념이 이것인가 하고 의아해 할 수 있는 극장이 필요하다. 수많은 다양한 사고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충돌할 수 있는 극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가 어린이 영화관을 기획하고 국도극장 예술관이 회원을 모집하는 일들이 이런 극장을 만드는 일의 한 부분일 수 있다. 특히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가 영화제 기간 중 활용할 상영관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 상영관들이 한번씩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어 추억이 될 만한 극장으로 탈바꿈 해주길 기대한다. 상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영화들의 보급과 제작 여건이 어려웠던 영화들에 대한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이 있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누구라도 하루빨리 <천국 극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그럼 그 곳을 향해 천국의 계단을 힘차게 오를 관객들의 흥겨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괴테의 내밀한 고백

- 〈파우스트〉

변미선 · 연극배우, 부산대 강사

[파우스트] 나로다. 내가 파우스트다. 너와 대등한 존재로다.

[신령] (소리) 나와 대등한 존재라고? (크게 웃는다) 생의 물결 속에 활동의 폭풍 속에, 변화무쌍한 현실의 세계와 불타오르는 생명을 끌고루 관장하는 나와 대등한 존재라고? 가소롭다. 네가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 네 학문이 무엇을 성취해 놓았느냐? 가소롭다. 가소롭다. (크게 웃으며 멀어진다)

[파우스트] 그렇다. 내가 무엇을 해 놓았던가? 나는 결코 신들을 닮지 않았다. 신은커녕 나는 쓰레기나 파헤치는 벌레에 불과하다. 심오한 학문,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 키를 한 치라도 더 크게 할 수 있었던가? 학문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나도 쓰레기에 불과하다. 농부들이 땀 흘려 만든 식량만을 축내는 벌레. 속이 텅 빈 해골바가지여. 너는 어찌하여 나를 향해 흰 이만을 드러내고 웃고 있느냐? 안다, 네 앙상한 손이 나를 향해 부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파우스트 선반으로 비축비축 걸어가 독약이 들어 있는 플라스크 병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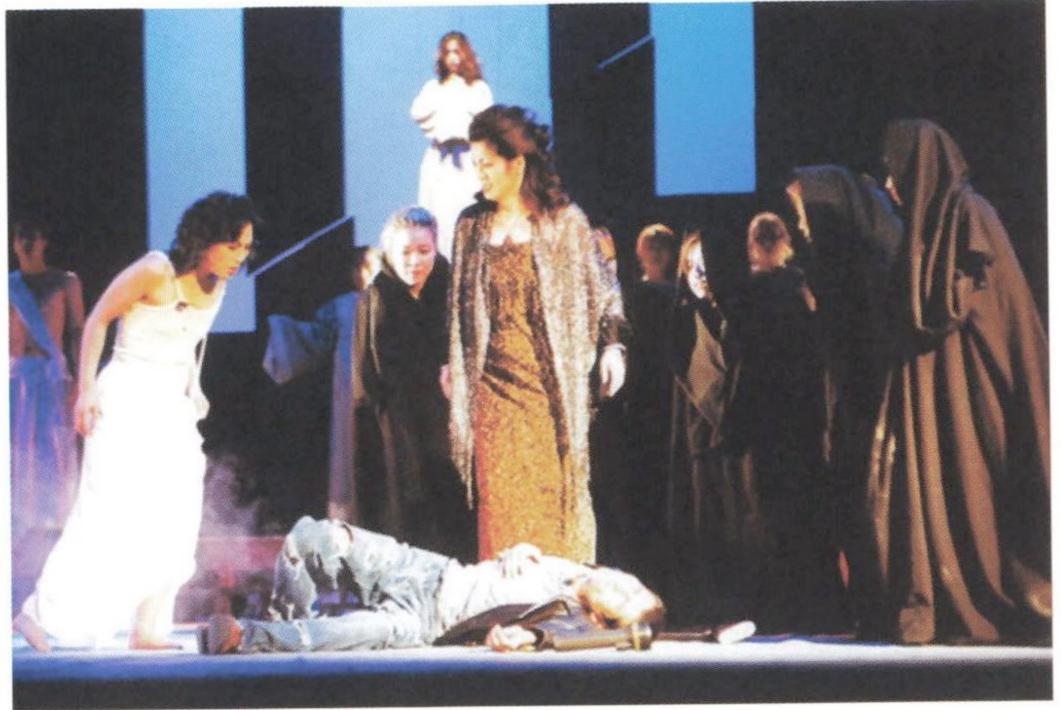
신에게 도전할 만큼 파우스트는 지식인의 오만함을 지녔다. 그러나 파우스트는 오만한 스스로의 학문적 실패를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보다 못한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괴테는 시민계급중심의 근대정신을 내세우고 있다.

〈파우스트〉를 쓴 괴테는 독일어를 완성시킨 장본인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사상의 소유자로서 독일 고전주의 예술사조에 의한 작품을 쓴 시인이자 소설가, 극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력도 대단하다. 변호사로서 시작했지만 시인, 소설가가 되었고, 행정가, 화가, 극작가, 연출가, 극단 경영자로 활동했고, 중세의 연금술과 자연연구에도 관심을 가졌었다.

〈파우스트〉는 괴테가 청년시절 집필을 시작해서 사망 직전에 완성한 작품으로 파우스트 전설을 바탕으로 쓴 시극이다. 1부와 2부로 나뉘지만 주로 1부만 공연되는 경우가 많다. 극 내용은 이렇다. 늙은 파우스트 박사가 학문에 실패하고 자살하려는 순간 악마 메피스토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면서 영혼을 매매해간다. 그레첸이란 처녀를 사랑하게 되어 악마로부터 젊음을 구하게 된다. 그레첸은 악마의 농간에 의해 엄마와 오빠, 자식을 희생시키며 파우스트를 사랑하게 되고 사형집행을 앞둔 순간에 그레첸은 천사에 의해 구원받는다.

파우스트 전설은 더욱 재미있는데, 전설에서 파우스트는 16세기 초의 역사적 인물로서 마술사이자 점성가, 자연과 학자이다. 신학을 공부하다가 의학과 마법으로 전향하고, 스스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24년간 동행한 후 결국 악마의 손에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그날 죽는다.

신 중심 사고가 팽배했던 중세의 정서에 의하면 자연과학이나 우주과학은 마술의 영역으로 치부되고도 남는다. 이에 따르면 악마의 개념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직하다. 파우스트는 인간의 이성과 자아에 의한 자유의지를 다루었다. 신 중심 세계가 기존의 권력 체계였다면 이에 반항하는 인간의 행동의지는 악마적인 성향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인간의 선택과 행동에는 언제나 오류와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것은 악마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사실 이것조차 인간의 속성이다.



200년 전에 씌어진 <파우스트>는 현대 연출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각색되어 공연되면서 괴테의 사랑과 인간정신을 되뇌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0년 12월 이윤택의 연출로 무대에 올려진 부산시립극단 제 9회 정기공연 '파우스트')

여기에 추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그레첸이란 존재다. 그레첸은 전설에는 나오지 않지만 괴테는 그의 첫사랑 그레첸의 이름을 사용한 소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그레첸은 순수 희생자이자 사랑의 화신으로서 <파우스트> 1부에서는 그 스스로 천사에게 구원당하지만, 2부에서는 파우스트도 구원해낸다. 그레첸도 인간의 한 부류이다. 오류를 저지르고 실패하는 인간이 있다면 이것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인간도 있다. 둘 다 인간의 모습이다. 결국 인간 스스로의 부족함은 인간의 사랑과 관용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다.

괴테는 독일 최초의 근대적 연출가로서 바이마르 궁정극장에서 예술감독으로 활동을 했다. 극장을 직업적인 상설극장으로 개조하기도 하고, '배우를 위한 규칙'을 고안해내기도 했다. 운문극을 연출해서 공연할 때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지휘봉으로 박자를 맞추기도 했다. 배우의 규칙을 몇 가지 들여다보자.

- 35. 무엇보다도 배우들은 자신이 자연을 모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상적으로 묘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 37. 신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 즉 가슴은 바로 세우고, 어깨에서 팔꿈치까지는 다소 몸통 쪽에 붙이고, 머리는 상대편 쪽으로 약간 돌려야 한다. 얼굴의 사분의 삼은 언제나 관객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 68. 실제 공연 중에 발생하지 않는 것은 리허설 중에도 역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학문과 예술에서의 정열가였던 괴테는 사랑에서도 정열가였다. 루소에게서 영향을 받아 고백적이고 체험적인 글을 쓰게 된 괴테는 자서전적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써서 당시 못 남성들 사이에 사랑으로 인한 자살을 유행시키고, 또 다른 자서전적 희곡인 <파우스트>에서는 그의 첫사랑 그레첸을 구원의 인물로 설정한다. 74세 노령에 19세 레베초라는 소녀를 사랑한 것은 못다 이룬 첫사랑에 대한 애착이었을까.

우리 타악기와 대취타

홍희철 · 고신대, 경성대, 부산교대 외래교수

월드컵이 한창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응원합성이 북, 팽과리 소리와 함께 지축을 흔들고 있다. 가리앉았던 한국인의 역동성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 같다.

“大.韓.民.國...”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큰 나라’, ‘위대한 한국’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크다는 말 일 것이다. 과연 그런가? 지도를 보면 거대한 중국과 러시아 한쪽 귀퉁이에 겨우 자리를 차지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제대로 찾기도 쉽지않고 심지어, 지도의 색깔구분이 없으면 중국과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이다. 지도를 아무리 봐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작아도 너무 작다.

인구도 물론 비교가 안 된다. 13억에 비해 우리는 겨우 남북이 합쳐도 7천만이니 큰 大자를 국호 앞에 넣기에는 어쩐지 좀 쑥스러운 느낌도 든다. 하지만 우리는 ‘大韓民國’이라고 거리낌없이 말한다. 아마 중국 사람들이 웃을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은 중화민국, 혹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 앞에 큰 大자를 붙이지 않는다. 大자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영토와 인구를 가졌기 때문이다.

“작은 땅을 가졌지만 큰 전통문화를 물려준
우리네 선조들이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요즘들어 우리나라를 호칭할 때 大자를 넣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지극히 옳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든다. 드넓은 만주벌판을 몽땅 내어준 우리선조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그리 자랑스럽지 않던 적도 있었지만, 무시무시한 이웃 강대국들의 수많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빼앗기지 않은 지금의 영토와 이 강산, 그리고 이 문화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 작은 땅을 가졌지만 큰 전통문화를 물려준 우리네 선조들이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그래서 위대할 수 밖에 없는 大韓民國의 후손인 것이 다시 한번 자랑스럽다. 서론이 너무 길다.

월드컵 응원 때 우리 선수는 물론, 응원단까지 큰 힘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악기가 있다. 바로 북, 징, 장고, 팽과리가 그것이다. 우선 이 악기로 응원하면 얻는 게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일단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기운을 얻는다는 것이다. 지쳐가는 우리선수에게 끊임없이 북과 팽과리, 징소리를 들려주면 이상하게도 이 소리에 더욱 힘을 얻고 신명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북치고 팽과리 치는 이유가 우리 편 힘내라는 건데, 재미있게도 상대편 선수와 응원단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참 좋은 현상이다. 사람의 함성과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부터 즐겨 써 오던 악기가 이렇게 상대방 선수와 응원단의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쓰일 줄을 감히 우리선조들이 알았을까? 너무도 고마운 선조들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타악 리듬이 기가 막히게 발달한 민족이다.

같은 3박인데 굿거리가 있고, 세마치가 있고, 중모리가 있다.

세상에 이렇게 다양하고 개성있는 리듬을 가진 나라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경기장을 아무리 눈 크게 뜨고 살펴봐도 팽과리보다 더 작은 악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작은 팽과리 소리보다 크고 요란한 악기 또한 찾아 볼 수가 없다. 북소리, 팽과리 소리를 축구경기 내내 듣고 있다보면 상대방 선수와 응원단은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장고, 징, 팽과리 소리가 상대팀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선수와 응원단의 눈빛은 더욱 푹망 푹망 빛나고, 정신집중이 잘됨을 알 수 있다.

상대방 국가(國歌) 등을 연주할 때 기본적인 매너만 지킨다면 응원단 전원이 팽과리, 북, 징, 장고를 하나씩 들고 입장해서 축구장이 떠나가라 두들겨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세계인에게 대한민국의 개성있는 타악기들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도 그리 나쁜 것 같지만은 않다. 이태리라는 나라가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 찾아온 한국유학생들의 교육비와 생활비에 의해 자신들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문화적 자부심이 대단하듯이, 월드컵을 계기로 팽과리나 장고를 배우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유학 좀 왔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타악 리듬이 기가 막히게 발달한 민족이다. 같은 3박인데 굿거리가 있고, 세마치가 있고, 중모리가 있다. 세상에 이렇게 다양하고 개성있는 리듬을 가진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

“서양군악대에 견줄 수 있는 이 대취타는 직접 보지 않으면 그 감동을

느낄 수 없다. 국가원수의 해외순방, 국가적 행사, 그리고 외국 국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빠짐없이 대취타가 연주된다”

난타라는 공연도 우리의 다양한 리듬에서 나온 장르가 아닌가. 세계인들을 열광시켰던 이 난타의 리듬은 우리민족의 역동적이고 자유분방한 기질과 신명이 담겨있는 그저 평범한 장단들이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소 즐기



던 이 국악장단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타악기는 참 다양하게 쓰여 왔는데, 마을단위의 단합은 물론, 옛날 우리나라 군대음악으로도 중요하게 쓰여왔다. 군대의 진격과 후퇴, 행진할 때, 또한 임금이나, 지위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이 타악기들이 유용하게 쓰여왔던 것이다. 이것을 '대취타'라고 한다. 서양군악대에 견줄 수 있는 이 대취타는 직접 보지 않으면 그 감동을 느낄 수 없다. 국가원수의 해외순방,

국가적 행사, 그리고 외국 국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빠짐없이 대취타가 연주된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그리 간단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각인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씨도 더운데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이상 피곤하게 안했으면 좋겠다”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고이즈미 일본총리와 고구려를 자기의 역사, 영토라며 역사왜곡을 과감히 실천하는 후진타오 중국주석이 한국에 흑시라도 오게 되면, 이 대취타를 꼭 들려 줬으면 좋겠다. 의장대를 사열하며 대취타를 연주하는 앞을 지나갈 때, 일본총리와 중국주석의 귀 가까이 대고 찌렁찌렁하게 태평소 불고, 북 치고, 징 치고, 자바라(심벌즈와 비슷한 전통악기)를 쳐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그리 간단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각인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씨도 더운데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이상 피곤하게 안했으면 좋겠다.

이제 월드컵이 거의 끝나간다. 뜨거웠던 열기가 사그라들면 이 여름을 가족과 함께 알차게 보낼 계획을 세워보자. 방학동안 사물놀이 악기를 하나씩 배워, 가족 사물놀이팀이라도 만들어 연주해보며 무더위를 이겨 보는 건 어떨까?

■ 부산에서 사물놀이를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곳

- | | |
|--------------------------------------|-----------------------------|
| 1. 두드려 즐거움을 찾는 곳 '두들樂'(625-3331 대연동) | 2. 서울 전통타악진흥회(583-7958 장전동) |
| 3. 부산 농악 풍물연구소(327-7100 학장동) | 4. 풍류 전통예술원(504-7882 사직동) |
| 5. 부산풍물패 사물놀이(254-9642 아미동) | 6. 풍물패 신평이(633-3825 범넛골) |
| 7. 풍물패 이바디(634-8184 문현동) | 8. 버습새 예술단(751-3100 광안동) |
| 9. 우리소리 예술단(017-582-6821 김해) | |

프렌치 호른(French Horn)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호른은 음폭이 넓고 부드럽고 또한 아주 풍부한 음색을 지니고 있어서 그 어떤 금관 악기보다도 표정이 풍부한 악기라고 여겨진다. 때문에 이 악기는 오케스트라는 물론, 실내악, 독주 악기로 그 활동 영역이 아주 넓다. 음색은 웅대하면서도 유연하고, 그 울림의 깊이는 끝간데가 없을 지경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 악기는 불안이나 초조, 열정 같은 미묘한 감정을 나타내는데 제격이다. 연주기술도 많이 개발된 상태여서 아주 낮은 음이나 높은 음의 경우를 제외하면 트릴도 가능하고, 레가토와 스타카토도 표현된다.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의 효과는 아주 탁월하고, 최강음(最強音)과 최약음(最弱音)의 표현도 대단한 효과를 나타낸다.

호른은 벨(bell) 부분을 뒤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연주하게 되며, 게슈토프트(Gestoft) 연주법이라고 해서 오른손 다섯 손가락을 조금 구부린 모양으로 벨 속에 집어넣어 구멍을 막거나 다소 열어서 음색과 음정을 조절하는 특이한 주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주법은 호른이 유일하다. 이는 이 악기에 밸브 장치가 없었을 때 배음(倍音) 이외의 음을 얻기 위한 기술로 18세기 중엽에 개발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주로 음색변화를 위해 사용된다. 깊이 넣으면 반음이 내려간 어두운 음색이 되고, 다시 더 깊이 넣으면 반대로 반음이 올라간 날카로운 음색이 되어 질이 다른 음이 난다. 그러나 이 기술은 개인에 따라 매우 델리케이ته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결과적으로 호른은 연주하기가 아주 어려운 악기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기를 뛰어나게 연주하는 연주자도 그리 많지 않은 형편이다.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1659~1725)와 헨델(1685~1759)이 그들의 작품에서 호른을 즐겨 썼고, 바흐의 작품에서도 호른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베토벤에 이르기까지 이 악기의 쓰임새나 발전이 두드러진 형편은 아니었다.

아돌프 작스(1814~1894)에 의해서 밸브가 장치되고, 그 밖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악기의 구조가 개량되고 주법이 발전되어서 19세기 초엽에 호른은 거의 오늘의 모습으로 완성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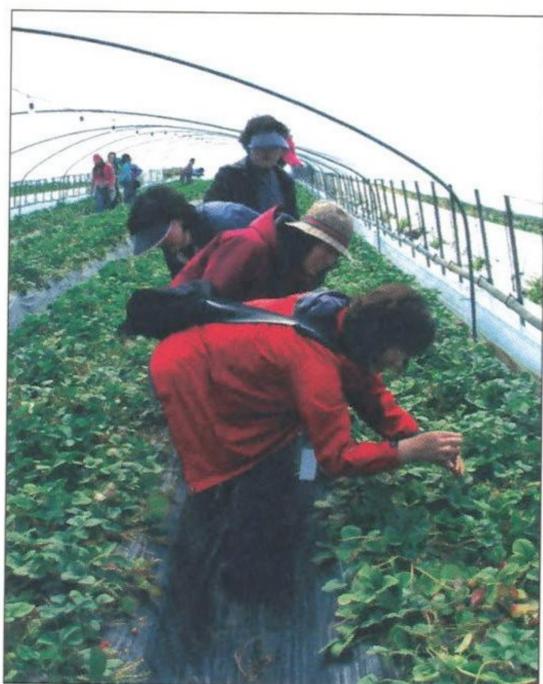
호른을 사용한 실내악곡으로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목관5중주가 가장 널리 연주되고 있고, 관현악곡에서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구스타프 말러의 작품들이, 협주곡으로는 모차르트와 슈트라우스의 것이 유명하다.

주요 작품들

- 모차르트 : 호른 협주곡 제1번~제4번
- 모차르트 : 목관5중주곡
- 베토벤 : 목관5중주곡
- 베토벤 : 피아노와 호른을 위한 소나타 작품 17(1800)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호른 협주곡 제1번



다양한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팜스테이마을 무척산 관광예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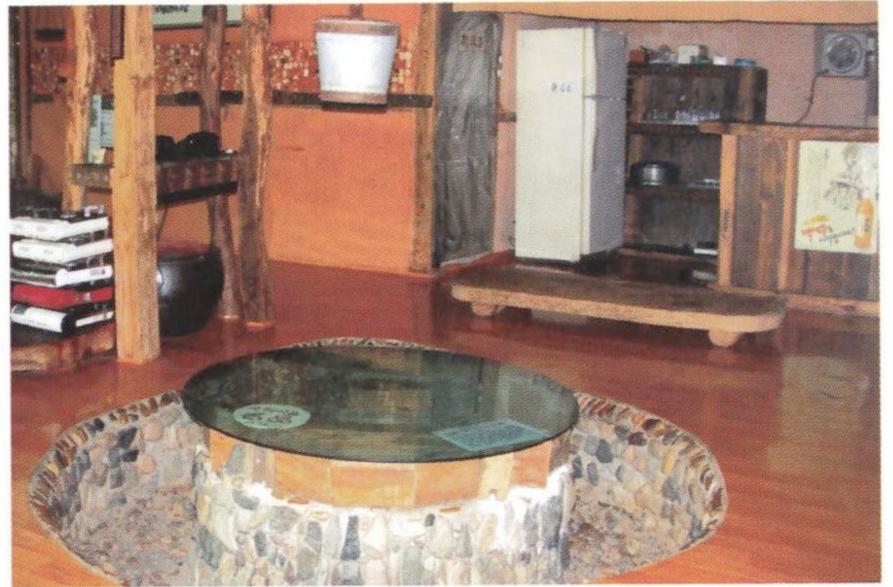
봄철의 인기프로그램 딸기따기

최근 주 5일제 근무가 자리잡으면서 복잡한 도시를 떠나 휴식과 더불어 다양한 농촌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팜스테이’가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정겨운 외갓집을 떠올리게 하는 팜스테이는 고향의 의미를 잇고사는 도시민들에게 잃어버린 고향의 추억까지 선사해주고 있어 가족단위의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부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무척산 관광예술원 역시 팜스테이 마을로 지정된 곳이다. 아름다운 기암괴석으로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김해 무척산 산자락에 자리잡은 무척산 관광예술원은 계절별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입소문이 나있다. 이 곳에서는 딸기, 방울토마토, 자주색감자(고구벨리), 단감, 밤 등 계절별 과일, 채소 수확하기 외에도 모내기,



계절별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소문난 무척산 관광예술원은 요즘 방울토마토와 자주색감자 수확이 한창이다.



옛 정취가 물어나는 고가와 요즘 쉽게 볼 수 없는 생활민속품 등이 전시되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떡메치기, 소달구지 타기 등 농촌 체험, 도자기 만들기와 야생화 체험학습, 손두부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가진 딸기따기 체험에는 1,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았으며, 요즘에는 한창 제철인 방울토마토와 자주색감자 등을 직접 수확할 수 있다. 특히 옛날 방식대로 멧돌에 콩을 갈아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펴 만드는 손두부 만들거나 직접 떡메를 쳐서 인절미를 만들어보는 떡메치기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무척산 관광예술원은 주인인 노영환씨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향집을 훼손없이 가꾸어 이 곳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00년 넘는 재실인 낙선장에서부터 고풍스런 느낌이 풍겨나는 고가 다담헌, 초가지붕으로 정겨움을 더한 작은 방갈로까지 곳곳에 옛 정취가 물씬 묻어난다. 또한 옛날 교과서와 풍금, 전화기, 타자기 등 세월의 흐름이 멈춘 듯한 생활민속품에서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각종 농기구들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전시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숙박이 가능한 50년된 기와집 다담헌에는 방문객을 놀라게 하는 색다른 볼거리가 기다린다. 그것은 바로 방 중앙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우물. 지하 20m에서 솟아나는 우물물에 발을 담그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색다른 경험 뿐 아니라 24시간 장작불을 이용한 황토 찜질방도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여름철 가장 인기가 많은 야외수영장을 비롯 캠프파이어장, 야영장, 족구장, 농구장, 세미나실, 대강당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무척산 관광예술원에서는 현재 2006 여름 농촌 체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8월말까지 운영되는 2006 여름 농촌 체험 프로그램은 20인 이상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하루 체험코스와 가족 체험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하루 혹은 1박 2일의 가족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기존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짚풀공예, 고구마, 감자 구워먹기, 모노레일 타기, 캠프파이어 등 재미있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 특히 120m 정상까지 감나무와 소나무 숲사이로 올라가는 모노레일 타기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아무래도 가족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김창렬 실장. 지난 5월 14일 가진 삼성전관 직원 가족의 ‘세대공간 아빠짱-아빠랑 나랑 신나는 나들이’ 행사가 최근 들어 가장 인상깊었다는 그는 무척산 관광예술원이 온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땀흘리고 있다.

■ 문의: 무척산 관광예술원(055-338-2323, 335-9143, www.muchuk.co.kr)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1996년 창립.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은 문화도시 부산을 가꾸고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복 회장, 문예저널 발행인 황성일씨 등 창립부터 뜻을 같이 해온 문화계 인사 외에도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온 시민 70여명이 문예사랑 회원에 가입해 있다. 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곽승씨와 전 동아대학교 총장 엄영석씨는 현재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예사랑은 부산의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문예사랑은 요즘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초창기 문예사랑은 한달에 1회 이상 공연보기를 통해 관객으로서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시민들의 공연관람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2004년 12월 31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야음악회를 후원해 공연장을 찾은 청중들에게 다과를 제공하기도 한 문예사랑은 지난해 7월에는 문예사랑 창립 9주년을 기념해 부산문화회관에서 문예사랑 주최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슈만양상블' 공연을 개최,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연주무대를 선사하기도 했다.

창립 당시의 첫 마음으로 꾸준히 공연예술단체를 지원해 온 문예사랑은 특히 회원중에 문화와

단순히 문화예술을 즐기는 관객의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건강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두 팔을 걷어부친 사람들이 모여있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회장 조성래, 이하 문예사랑)은 지난 1996년 창립 이후 문화도시 부산을 가꾸고 알리는데 앞장서왔다.

문예사랑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전 수석 지휘자였던 곽승씨와 친분으로 시작된 부산시립교향악단 후원회 활동을 계기로, 부산문화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소박하게 출발했다.

영광도서 김윤환사장, 사라토가 도용

예술에 관심있는 기업인이 많아 기업과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통해 앞으로 부산에서 메세나 운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최근 들어서 문예사랑은 올바른 지역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 20일에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부산시립예술단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다.

문예사랑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립예술단 발전을 위한 비전과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시립예술단에 대한 경영평가시스템을 도입, 예술단원의 기량향상과 조직운영의 혁신을 유도하며 ▲평가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우수 예술단원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복합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며 ▲시립예술단 운영주체인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회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외부 전문가 영입과 법인화를 준비하며 ▲시립예술단 공연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5가지 내용으로 정리, '부산시립예술단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당시 지방선거 시장 후보자들에 제출, 공약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시립예술단은 부산문화를 대표할 뿐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인만큼 시민이 외면하는 시립예술단은 있을 수 없다”는 조성렬 부회장(동아대학교 교수)은 “지금이야말로 부산시와 시립예술단,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때인 만큼 약속한 공약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감시단으로서의 역할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한다.



창립 9주년 기념으로 가진 슈만 앙상블 연주회



문예사랑은 지난 5월 20일 '부산시립예술단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문의 :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이상훈(010-3135-0423, 201-3301)

단소(短簫) 불어보기<7>

채수만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初章				
沖 } 淋△沖	중 무입 중	林△	임무입	△
潢△ } 淋△沖 } 漚△	태황중 태황중 무입	林△ } 無△ } 仲 } 林△	무입 임무입 중 무입	
淋△ } 沖△	중 중	林△ } 無△ } 仲 } 林△	무입 임무입 중 무입	
淋△ } 沖△	무입 중	林△ } 無△ } 仲 } 林△	임무입 중 무입	
潢△ } 沖△	황 중	汰△	황 중 태	
淋△ } 沖△	무입 중	林△ } 無△ } 仲 } 林△	임무입 중 무입	
潢△ } 淋△ } 沖△	태황 중 태황	汰△ } 淋△ } 潢△ } 林△ } 仲 } 林△	중 태 중 태 황 중 태 황	
潢△ } 淋△ } 沖△	황 중 태 황	林△ } 無△ } 仲 } 林△	임무입 중 무입	중무입
潢△ } 淋△ } 沖△	황 중 태 황	汰△ } 淋△ } 潢△ } 林△ } 仲 } 林△	중 태 중 태 황 중 태 황	
淋△ } 沖△	무입 중	林△ } 無△ } 仲 } 林△	임무입 중 무입	
潢△ } 淋△ } 沖△	중 중 태 황	汰△ } 淋△ } 潢△ } 林△ } 仲 } 林△	황 중 태 황 중 태 황	
淋△ } 沖△	무입 중	林△ } 無△ } 仲 } 林△	임무입 중 무입	
潢△ } 淋△ } 沖△	태황 중 태황	汰△ } 淋△ } 潢△ } 林△ } 仲 } 林△	중 태 중 태 황 중 태 황	
沖△	중	沖△	중	潢△ } 황
淋△ } 沖△	무입 중	林△ } 無△ } 仲 } 林△	임무입 중 무입	
潢△ } 淋△ } 沖△	태황 중 태황	汰△ } 淋△ } 潢△ } 林△ } 仲 } 林△	중 태 중 태 황 중 태 황	
潢△ } 淋△ } 沖△	황 중 태 황	汰△ } 淋△ } 潢△ } 林△ } 仲 } 林△	중 태 중 태 황 중 태 황	
淋△ } 沖△	무입 중	林△ } 無△ } 仲 } 林△	임무입 중 무입	
潢△ } 淋△ } 沖△	태황 중 태황	汰△ } 淋△ } 潢△ } 林△ } 仲 } 林△	중 태 중 태 황 중 태 황	
潢△ } 淋△ } 沖△	황 중 태 황	汰△ } 淋△ } 潢△ } 林△ } 仲 } 林△	중 태 중 태 황 중 태 황	

영산회상
중광지곡(靈山會相重光之曲) 中 상령산(上靈山)

단소의 역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악(正樂)이다. 그 중 영산회상(靈山會相)에 있어서 단소의 역할은 단연 독보적이다.

본래 영산회상이라 하면 중광지곡(重光止曲)이라 불리우는 '현악영산회상(絃樂靈山回想)', '표정만방지곡(表正萬方之曲)'이라 불리우는 '관악영산회상(管樂靈山回想)', 유초신지곡(柳初新之曲)이라 불리는 '평조회상(平調會相)'을 포함하나 흔히 '현악영산회상'만을 뜻하기도 한다. 상령산(上靈山), 중령산(中靈山), 세령산(細靈山), 가락덜이(加樂除只), 상현도드리(上弦還入), 하현도드리(下弦還入), 염불도드리(念佛還入), 타령(打令), 군악(軍樂) 9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산회상은 본래 불교음악으로서 영산은 '영취산(靈鷲山)'을 가르키며 그 곳에 석가여래가 설법하던 곳으로 불자들이 영취산에 모여든 것을 영산회(靈山會)라 했다. 이 영산회에서 불보살의 자비의 성덕을 찬양한 가사 영산회상불보살(靈山會相佛菩薩)에 곡을 얹어 부른 것이 영산회상이다. 이 곡은 지금의 상령산에 해당하며 영산회상의 원곡이라 할 수 있다.

현금신증가령(玄琴新證假令)(1680)에 보면 17세기 후반에 이미 영산회상불보살의 기사를 담은 성악곡이었던 영산회상의 가사가 떨어져 나가면서 기악곡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불교음악이었던 영산회상이 민간으로 전해지면서 원곡에서 차츰 변화되어 다양한 변조곡이 생긴 것이다. 영산회상의 묘미를 흑자는 영산회상 이전에 이런 곡이 없었으며 이후에도 이런 곡은 나올 수 없다고 극찬을 하였다.

‘현악영산회상’을 ‘거문고 회상’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현악중심의 곡이라는 뜻인데 관악기의 풍요로움도 그지없이 평화스럽다. 특히 단소의 소리는 구름위의 무지개마냥 신비스럽기조차하다.

사관풍류란 18세기말 성악곡의 반주음악이었던 자진한잎이 19세기 초에 이르러 차츰 기악곡화되는 과정을 거쳐 오늘날 사관풍류의 모체가 되었다. ‘수룡음(水龍吟)’도 사관풍류의 한가지로 농(弄), 계락(界樂), 편(編) 1, 2의 네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농을 채보하였다. 단소의 수룡음은

생황이라는 악기와 병주도 하는데 듣고 있노라면 마치 신선이 되어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상령산은 전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초장만 채보하였고 수룡음은 전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 2장과 5장 끝부분만을 채보하였다. 장식음과 어려운 부호가 많아 한글로 모두 가락을 풀어 놓았다. ㅎ 표는 강하게, ㄷ 표는 약하게 하라는 표시이며 음을 흘리는 부분과 요성을 하는 부분을 절대로 지켜보자.

황 ㅍ 중 ㅍ 임 ㅍ 의 표시는 단소에서 습관적으로 음을 굴러 주는 표인데 황 ㅍ 이면 손가락은 汰위치에서 시작하여 태황 태황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의 태는 소리를 내지 말고 황태 황태만 소리가 나도록 하는 것인데 부드럽러우며 빠르게 연습해 보자.

二章					初章				
淋 ㅍ 橫	임 ㅍ 황	沖 ㅍ ㅍ ㅍ	중 ㅍ ㅍ ㅍ	ㅍ ㅍ ㅍ	태황 ㅍ ㅍ ㅍ	橫 ㅍ ㅍ ㅍ	황 ㅍ ㅍ ㅍ	橫 ㅍ ㅍ ㅍ	황 ㅍ ㅍ ㅍ
- ㅍ ㅍ	태황 ㅍ ㅍ	- ㅍ ㅍ	임 ㅍ ㅍ ㅍ	- ㅍ ㅍ ㅍ	무임 ㅍ ㅍ ㅍ	- ㅍ ㅍ ㅍ	황태 ㅍ ㅍ ㅍ	- ㅍ ㅍ ㅍ	임 ㅍ ㅍ ㅍ
沖 ㅍ ㅍ ㅍ	중 ㅍ ㅍ ㅍ	沖 ㅍ ㅍ ㅍ	중 ㅍ ㅍ ㅍ	ㅍ ㅍ ㅍ ㅍ	무임 ㅍ ㅍ ㅍ	林 ㅍ ㅍ ㅍ	중 ㅍ ㅍ ㅍ	沖 ㅍ ㅍ ㅍ	태황 ㅍ ㅍ ㅍ
淋 ㅍ ㅍ	임 ㅍ ㅍ	橫 ㅍ ㅍ ㅍ	황태황 ㅍ ㅍ ㅍ	淋 ㅍ ㅍ ㅍ	임 ㅍ ㅍ ㅍ	橫 ㅍ ㅍ ㅍ	황 ㅍ ㅍ ㅍ	淋 ㅍ ㅍ ㅍ	중무중무 ㅍ ㅍ ㅍ
- ㅍ ㅍ	무임 ㅍ ㅍ	橫 ㅍ ㅍ ㅍ	임태황 ㅍ ㅍ ㅍ	- ㅍ ㅍ ㅍ	무임 ㅍ ㅍ ㅍ	ㅍ ㅍ ㅍ ㅍ	태황 ㅍ ㅍ ㅍ	- ㅍ ㅍ ㅍ	무임중 ㅍ ㅍ ㅍ
淋 ㅍ ㅍ ㅍ	임 ㅍ ㅍ ㅍ	- ㅍ ㅍ ㅍ	중태황 ㅍ ㅍ ㅍ	橫 ㅍ ㅍ ㅍ	임태황 ㅍ ㅍ ㅍ	沖 ㅍ ㅍ ㅍ	중임무 ㅍ ㅍ ㅍ	沖 ㅍ ㅍ ㅍ	중임중 ㅍ ㅍ ㅍ
- ㅍ ㅍ	태황 ㅍ ㅍ	林 ㅍ ㅍ ㅍ	임중무중 ㅍ ㅍ ㅍ	淋 ㅍ ㅍ ㅍ	임 ㅍ ㅍ ㅍ	ㅍ ㅍ ㅍ ㅍ	중 ㅍ ㅍ ㅍ	橫 ㅍ ㅍ ㅍ	임 ㅍ ㅍ ㅍ
橫 ㅍ ㅍ ㅍ	황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沖 ㅍ ㅍ ㅍ	중임중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 ㅍ ㅍ ㅍ	중태황 ㅍ ㅍ ㅍ
沖 ㅍ ㅍ ㅍ	중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橫 ㅍ ㅍ ㅍ	황태황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沖 ㅍ ㅍ ㅍ	중 ㅍ ㅍ ㅍ
淋 ㅍ ㅍ ㅍ	임 ㅍ ㅍ ㅍ	ㅍ ㅍ ㅍ ㅍ	무임 ㅍ ㅍ ㅍ	汰 ㅍ ㅍ ㅍ	태황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 ㅍ ㅍ ㅍ	무임중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淋 ㅍ ㅍ ㅍ	임 ㅍ ㅍ ㅍ	ㅍ ㅍ ㅍ ㅍ	태황중 ㅍ ㅍ ㅍ	橫 ㅍ ㅍ ㅍ	황중태황 ㅍ ㅍ ㅍ	ㅍ ㅍ ㅍ ㅍ	태황중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 ㅍ ㅍ ㅍ	무임 ㅍ ㅍ ㅍ	沖 ㅍ ㅍ ㅍ	무임중 ㅍ ㅍ ㅍ	沖 ㅍ ㅍ ㅍ	중무임 ㅍ ㅍ ㅍ	ㅍ ㅍ ㅍ ㅍ	무임 ㅍ ㅍ ㅍ
ㅍ ㅍ ㅍ ㅍ	황태황 ㅍ ㅍ ㅍ	汰 ㅍ ㅍ ㅍ	황태황 ㅍ ㅍ ㅍ	淋 ㅍ ㅍ ㅍ	중무중무 ㅍ ㅍ ㅍ	林 ㅍ ㅍ ㅍ	임중무임 ㅍ ㅍ ㅍ	沖 ㅍ ㅍ ㅍ	중무임 ㅍ ㅍ ㅍ
ㅍ ㅍ ㅍ ㅍ	임중 ㅍ ㅍ ㅍ	淋 ㅍ ㅍ ㅍ	임중 ㅍ ㅍ ㅍ	淋 ㅍ ㅍ ㅍ	무임 ㅍ ㅍ ㅍ	汰 ㅍ ㅍ ㅍ	황중태황 ㅍ ㅍ ㅍ	淋 ㅍ ㅍ ㅍ	임 ㅍ ㅍ ㅍ
ㅍ ㅍ ㅍ ㅍ	황 ㅍ ㅍ ㅍ	橫 ㅍ ㅍ ㅍ	황 ㅍ ㅍ ㅍ	橫 ㅍ ㅍ ㅍ	태황중임중 ㅍ ㅍ ㅍ	橫 ㅍ ㅍ ㅍ	ㅍ ㅍ ㅍ ㅍ	沖 ㅍ ㅍ ㅍ	중임중 ㅍ ㅍ ㅍ
ㅍ ㅍ ㅍ ㅍ	태황 ㅍ ㅍ ㅍ	ㅍ ㅍ ㅍ ㅍ	태황 ㅍ ㅍ ㅍ	淋 ㅍ ㅍ ㅍ	태황중임중 ㅍ ㅍ ㅍ	橫 ㅍ ㅍ ㅍ	황 ㅍ ㅍ ㅍ	- ㅍ ㅍ ㅍ	태황태 ㅍ ㅍ ㅍ

수룡음 (水龍吟)

□ || 30

한국과 독일 문화의 다리를 잇는

부산독일문화원장

김정순



3년간 공백기를 가진 부산 독일문화원이 5월 27일 새롭게 개원했다. 부산 독일문화원장을 맡고 있는 독일 부산 명예영사 김정순씨(62)는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열기로 독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요즘 독일 알리기에 더 분주해졌다.

“독일은 통독이전 분단 상황이 항상 우리와 비교되는 친숙한 국가입니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독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알고 나면 유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 경상남·북도에 살고 있는 독일인은 170여명. 기업체, 교수, 교환학생이 대부분이다.

부산 독일문화원은 1984년에 설립이 되었지만 2003년 명예 영사로 있던 독일인 칼 슈미케씨가 작고하면서 잠시 공백을 가졌다.

독일문화원은 앞으로 한국과 독일간의 문화, 학술 교류를 지원하는 한편 독일어 강좌도 개설할 계획이다. 오는 7월 1일 개강하는 독일어 강좌는 독일 월드컵 열기 때문에 수강문의가 많다.

김정순 영사와 독일과의 인연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2살의 나이에 간호사로 독일행을 선택한 그는 본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독일어를 배웠다. 1972년 부산에 한독직업 훈련원이 들어서면서 독일측 책임자의 권유로 귀국, 한독직업 훈련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독일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왔다. 1984년에는 독일의 선박전용 내화 밀봉제 회사인 ‘댐스토푸 인더스트리’와 합작해 한국담수토부를 설립, 기업인으로도 탄탄한 입지를 굳히기도 했다.

독일인의 성격과 문화를 꿰뚫고 있는 ‘독일통’ 김정순 영사. 독일과 40년 인연을 이어온 그의 열정이 부산 독일문화원에 그대로 전해진다.

광복절 일본에서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지휘자 **오충근**



부산 지휘자로는 처음으로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한 오충근 교수가 오는 8월 15일 일본에서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된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광복절에 도쿄에서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연주하는 하트풀 콘서트는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말자는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만큼 감동이 더욱 클 것입니다.”

오충근 지휘자의 일본연주회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명문여행사에서 8월 15일 오충근교수가 지휘하고 유끼 구라모토가 협연하는 도쿄예술극장 ‘하트풀 콘서트 2006’과 8월 17일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지휘하는 치바시, 도쿄필하모닉 제휴 10주년 기념 특별 연주회를 관람하는 음악 여행 상품을 만들기도 했다.

오충근교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26살에 최연소 악장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에 입단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후진 양성을 위해 고신대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그의 음악활동도 많은 변화를 맞았다. 대학 졸업생들을 위해 생각해낸 것이 민간 오케스트라. 뒤늦게 지휘의 매력에 빠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지휘수업을 하고 귀국,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제 2의 음악인생을 시작했다. 지난 3월부터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부산시민회관 브런치 공연에 참가하고 있어 2006년은 지휘자로 특히 바쁘게 보내고 있다. 일본연주 후에는 부산시포니에타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를 함께 가질 계획이다.

“부산의 문화 인프라도 자생력을 가져 부산의 많은 민간 오케스트라가 번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를 응원해주는 부산 음악애호가들의 박수가 있어 그의 지휘봉에 더욱 힘이 넘친다.

제 14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부산 개최

7월 18일(화)~19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 합창의 순수와 감동을 한자리에서 느낄수 있는 전국시립 소년소녀합창제가 오는 7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24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중 10개 합창단이 참가하는 이번 공연은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단들이 한자리에서 꾸밈없는 맑고 고운 화음으로 다채로운 선율을 들려주는 전국 최대의 소년소녀합창축제이다.

1992년 서울에서 시작된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는 그동안 광주, 대구, 여수, 구미, 안양, 군포, 과천, 순천, 대전 등 전국의 주요 도시를 돌며 주최, 개최하였다. 부산은 1994년 제 3회 합창제를 개최한 이후로 올해 두 번째 개최이다.

올해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 광주, 대구, 군포, 광명, 창원, 구미, 순천, 김포, 안양 등 10개 합창단이 참여하는 만큼 그동안 접하지 못한 다양한 청소년 합창곡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합창제 첫날인 18일은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무대가 펼쳐진다.

1997년 시립으로 승격된 이래 더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상임 지휘자 송영주와 120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 경기 홍보사절단으로 발탁되어 유럽 4개국 순회연주를 가지기도 한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발레와 합창의 만남, 현대 무용과의 만남, 국악과의 만남들을 통해 정적이며 도시적인 합창무대에 동적이며 시각적, 정통적인 요소를 곁들여 관객과의 만나왔다.

1976년 11월 창단,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광주지역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합창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뮤지컬 오공이, 여우왕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호두까기 인형, 사운드 오브 뮤직을 기획, 주목받아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매년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등 중앙무대에 출연, 수준 높은 공연으로 타 시도 관객으로부터 찬사를 받아왔다.

1993년 군포소년소녀합창단으로 시작한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996년 시립으로 정식 발족한 합창단이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합창단 내에 챔버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져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합창과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운 어울림으로 수준 높은 음악적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1981년 5월 창단된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깨끗하고 맑은 영혼의 울림으로 대구지역 청소년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다. 1990년 창단된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매년 2~3회의 정기연주회, 국내외 교류, 전국소년소녀합창제 참가 등의 무대에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해왔다.

둘쨋날에는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김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다.

1987년 5월 창단된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05년 1월, 순천에서 개최된 한국어린이합창컨벤션에서 전국 21개 참가 합창단들 중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합창단이다. 1999년 3월 창단, 그 동안 15회의 정기연주를 개최한 김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00년, 2004년 세계어린이합창제에 참가하여 세계정상의 합창단인 체코, 벨기에, 일본, 홍콩의 합창단과 함께 연주하며 기향 향상에 주력해왔다.

18세 이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991년 창단, 연간 4회 정기연주와 16회의 기획, 특별 공연을 통하여 어른들에게는 즐거움과 행복을, 청소년들에게는 고향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맑고 밝은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다.

첫날, 둘째날 마지막 무대는 부산 작곡가 박봉렬의 곡 '오륙도'로 참가한 합창단들의 연합 무대가 마련된다.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2006 청소년을 위한 여름무용축제

— 홍기태 수석안무자가 해설하는 우리춤 한마당 —

7월 11일-12일 화-수요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수석안무자 홍기태

여름방학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춤을 소개하는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2006 청소년을 위한 여름무용축제'가 오는 7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수석안무자 홍기태의 상세한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천하태평지무, 훈령무, 부채춤, 성주허튼춤, 춘접무, 백두대간 등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춤을 새롭게 구성, 신명나는 우리춤의 세계로 안내한다.

전통의 궁중무용과 신무용인 화관무를 바탕으로, 한층 다채롭고 화려한 춤사위로 그려낸 '천하태평지무(天下太平之舞)'는 한 나라의 태평과 군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던 기존 궁중무용과 달리 모든 관객이 춤속에 깃든 화평과 안녕을 나눌 수 있는 이 시대의 궁중무용이다.

1930년대 故 한성준 선생이 구군의 훈련장면을 보고 무용화한 '훈령무'는 일사불란하면서도 절도있는 동작들을 통해 훈련에 임하는 훈령의 비장한 각오가 춤사위로 표현된 작품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작무용인 '부채춤'은 화려한 무복을 입은 여인들이 부채를 들고나와 원과 직선의 기하학적인 아름다운 구도를 그리며 추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춤이다.

한국춤의 기본형과 기복사상이 잘 반영된 '성주허튼춤'은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한 후 다시 성주를 받아들이는 성주곳에서 무당이 복을 빌어 부르는 노래인 성주풀이에 맞춰 추는 허튼춤이며, '춘접무'는 만물의 싹이 움트는 봄날, 천지간에 흐드러진 꽃송이 속을 노니는 나비의 아리따운 자태를 사랑의 춤으로 표현한 창작무이다.

마지막 작품으로 무대에 오르는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온 국토를 두들겨 일깨우는 땅의 울림, 북의 울림을 역동적인 북가락과 신명나는 춤으로 표현한 춤이다.

■ 입장료 : 균일 2,000원(*공연시간은 조절가능합니다)

■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2006 여름마당춤관 '男 콩쥐 vs 팔쥐'

7월 20일 목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우리의 전통적인 설화를 해학과 신명이 살아있는 마당춤관으로 그려내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부산시립무용단이 전래동화 '콩쥐팥쥐'를 새롭게 해석한 '男 콩쥐 vs 팔쥐'로 2006년 마당춤관을 마련한다.

2003년 '춘향', 2004년 '흥부 vs 놀부', 2005년 '이쁜이 시집가는 날'에 이어 선보이는 '男 콩쥐 vs 팔쥐'는 착한 콩쥐가 계모의 갖은 구박에도 천우신조로 훌륭한 도령과 결혼하게 된다는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전래동화 '콩쥐팥쥐'의 주인공인 콩쥐와 팥쥐를 딸이 아닌 아들로 등장시켜 한층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심술궂은 계모 배씨 부인은 자신의 아들인 팥쥐만 귀하게 여기고 전처 소생인 콩쥐는 머슴처럼 부리면서 구박을 일삼는다. 그러던 중 마을을 방문한 남사당패의 놀이판이 열리고 계모는 콩쥐에게 이루기 어려운 과제를 남겨둔 채 팥쥐만 데리고 구경가자, 콩쥐는 거북과 참새, 선녀의 도움으로 과제를 끝내고 남사당 놀이에 참석하게 된다. 콩쥐는 마침 행궁 행차를 나왔던 공주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콩쥐를 잊지 못한 공주가 콩쥐가 남긴 갓신을 단서로 콩쥐를 찾게되면서 마침내 신분의 차이를 넘어 공주와 결혼하게 된다.

전체 3막 9장으로 구성된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무용단은 젓동냥춤, 거북춤, 참새춤, 선녀춤, 남사당놀이춤, 사랑춤 등 줄거리에서 모티브를 딴 다양한 춤사위를 선사한다.

작품구성

■ 1막 어머니를 여윈 콩쥐

- 1장 콩쥐의 탄생 · 2장 생모의 죽음-젓동냥춤 · 3장 팥쥐 엄마의 등장

■ 2막 콩쥐의 시련

- 1장 팥쥐 엄마의 구박
- 2장 콩쥐의 미션 임파서블
- 3장 콩쥐, 마침내 남사당 놀이에 가다 -남사당놀이춤

■ 3막 콩쥐의 인생 역전 대 드라마

- 1장 콩쥐와 공주님의 사랑 -사랑춤 · 2장 갓신 주인을 찾소!
- 3장 얼씨구 좋구나

▷출연/최의욱(콩쥐), 강모세(팥쥐) 외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특별출연/박찬영(변사, 부산시립극단 수석단원)



■ 입장료 : 무료

■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대극장

제 15회 부산무용제

4일-6일 화-목요일 오후 7:30



부산 무용계의 현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경연잔치인 부산무용제 2006년 무대.

올해는 발레, 현대무용 부분에서 5개팀이 참가, 경연을 펼친다.

■ 4일(화요일)

크레용댄스프로젝트 '쓰리타임즈' (작/최정혜 · 안무/이대건 · 출연/성은지, 이영호, 김성우, 박미선, 이대건 외)

현대무용단 주-□ '춤추는 마리오네트:운명의 실타래를 자아내다' (작/이흔주 · 안무/조영미 · 출연/곽선영, 강소정, 변지원, 서은옥, 이경미, 김호민 외)

■ 5일(수요일)

부산발레연구회 'Only You' (작, 안무/한철선 · 출연/이성희, 김주목, 윤은정, 공문정, 박종위, 김기연, 김은하 외)

현대무용단 자유 'On the Boundary(경계선에서)' (작, 안무/진영아 · 출연/문은아, 박재현, 박종수, 김혜원, 안선희 외)

■ 6일(목요일)

장정윤순수현대무용 '우주나무' (안무/장정윤 · 출연/장정윤, 염창홍, 김영란, 조숙녀, 김현정, 김도경, 강단애 외)

· 2005 대상수상팀 축하공연 뽕브르발레연구회 '여자 섬을 꿈꾸다' (안무/김수희 · 출연/정영민, 왕영숙, 손훈용 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부산무용협회(632-5116)

경인TV 컨소시엄 새 지상파방송 사업자 선정 축하 기념

제 22회 CBS성가합창제

8일 토요일 오후 7:30

경인TV 컨소시엄 새 지상파방송 사업자 선정 축하를 기념하는 CBS 성가합창제.

· 출연/수영로교회, 온천제일교회, 재송제일교회, 서문교회, 염광교회, 부전교회, 서문교회, CBS권사성가단

입장료 무료

문의 CBS(636-1604)

-Voice of Change-

2006 IYF 세계대회 기념 음악회

9일 토요일 오후 3:30, 7:30



목표를 잃고 방향하는 젊은이들을 바로 잡아 바람직한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차세대 리더를 육성 하기위해 설립된 국제단체인 IYF(Internation Youth Fellowship:국제청소년연합) 세계대회를 기념하는 기념음악회.

이번 무대는 니벨룽의 반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러시아 소프라노 베로니카 지오에바를 비롯해 메조소프라노 라리사 테드토바, 오보이스트 빅터 후쑤, 첼리스트 드미트리 이레민 등이 출연, 클래식음악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벨리니/오페라 '노르마' 중 '정결의 여신'
푸치니/오페라 '나비부인' 중 '어떤 개인날'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세귀딜라'
카치니/아베마리라

슈만/3개의 환타지 모음곡 등 수곡

· 출연/소프라노 베로니카 지오에바를 비롯해 메조소프라노 라리사 테드토바, 오보이스트 빅터 후쑤, 첼리스트 드미트리 이레민, 테너 우태직 외

입장료 R석 80,000원 · S석 60,000원

A석 40,000원(IYF회원 50% 할인)

문의 국제청소년연합(627-0852, 011-670-1824)

클래식과 재즈의 신선한 만남

전연숙, 최광철 JOINT CONCERT

10일 월요일 오후 7:30



전연숙

최광철

제일 오페라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부산의 중견 성악가 메조소프라노 전연숙과 색소폰주자 최광철이 들려주는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재즈를 클래식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클래식을 재즈로 풀어 보는 이번 무대는 클래식과 재즈의 신선한 만남을 통해 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퓨전 음악회이다.

전연숙은 부산시향, 울산시향, 창원시향, 오스트레일리아 앙상블, <MBC 송년음악회>, <KBS FM콘서트>, <PSB 개국 축하콘서트> 등과 불가리아 국립 오페라단의 <라 트라비아타>, 대구시립오페라단의 <리골레토>, 서울 오페라 상설무대 <심청전>, 서울국제오페라단의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 등에 초청되어 호평을 받았다.

색소폰주자 최광철은 대전시향(지휘/함신익),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 칩 코리아 일렉트릭 밴드의 에릭 마리엔탈, 세계적인 하모카 연주자 리 오스카, 김덕수 사물놀이 등의 거장들과 협연한 바 있다.

프로그램

재즈/Summertime, Spain, Round midnight, Summertime, Jean Pierre

클래식/한국 가곡 '비목' '산촌' '새타령'
이태리 깐초네 '무정한 마음' '날 잊지 말아라'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세귀딜라'

요들송/아름다운 산장,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

· 특별출연/요들가수 서용율, 김보경(소프라노), 전성식(베이스), 유성희(피아노), 이상훈(드럼)

· 안무/유은경
· 관현악/부산아트오케스트라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소리모아(627-0839)

김명자의 춤

11일 화요일 오후 7:30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전수교육보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살풀이춤 전수교육보조자로 우리 춤의 맥을 이어온 부산 이매방무용학원장 김명자 선생의 춤 무대.

지난 4월 서울 국립국악원 예약당 대극장에서 공연을 가진 데 이어 부산 무대에서 흥겨운 춤사위를 펼친다.

프로그램

승무, 장검무, 아쟁산조, 입춤(허튼춤), 살풀이춤, 검무, 승천무, 장고무

· 특별출연/이매방(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 찬조출연/최창덕(우봉 전통무용 보존회 부회장), 박대성(아쟁 · 부산대학교 강사)

· 출연/김명자, 장해정, 이예주, 김옥경, 김도희, 이민아, 김정경 외 7명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문의 김명자무용단(646-4480)

뮤사(MUSA)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음악회

13일 목요일 오후 7:30



2002년 창단된 타악연주 단체 '뮤사(MUSA) 타악기앙상블'이 들려주는 제 4회 정기연주회 가족 사랑음악회.

APEC성공기원 연주회, 자갈치축제 초청 연주회 등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온 '뮤사(MUSA) 타악기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타악기만이 가질 수 있는 화려한 테크닉을 즐길 수 있는 Jazz, Samba, Bossanova 등 세계 각국의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Batley Battle, Drum Battle, Uneven Souls, Mourning into Dancing, Take Five, Recado Bossa Nova 등 수곡

· 솔로/이윤희, 조수임, 최아나

입장료 VIP석 40,000원 · R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0,000원(청소년 할인 20%, 가족할인 20%)

문의 김정우 타악기연구실(628-8377, 010-5633-0864)

부산음악콩쿠르 시상식 및 축하연주

14일 금요일 오후 7:00



우리 음악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등용문인 2006년 부산음악콩쿠르 각 부문 1등 수상자가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다.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문화방송(760-1125)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한·일 공동음악회

15일 토요일 오후 6:00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과 일본 후쿠오카 카수가시 오케스트라 실내악단과 카수가시 합창단이 함께 하는 모차르트 탄생 250

FORAD
종합광고대행사

통합 마케팅 시대의 뉴 브레인! 포어드

광고기획, TV/RADIO 광고제작 및 대행, 신문/전단/카다록 인쇄광고 제작, 기업CIP/BIP,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광고 마케팅 기획

[주]포어드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2층
TEL: 051) 627-2563(대) FAX: 051) 627-2560

주년 기념 한·일 공동음악회 .

순수 민간차원의 국제교류행사로 더욱 의미가 깊은 이번 무대는 음악을 통한 양국간의 문화소통과 이해증진을 도모하여 지속적인 한·일간 문화교류행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한울림합창단 40명과 4명의 독창자, 일본 실내악단 11명, 합창단 35명 등 총 95명의 한·일 출연진이 함께 뜻을 모았다.

7월 부산연주회에 이어 12월 18일 후쿠오카현 카사가시 문화예술센터에서 카사가시 오케스트라 80명을 더해 180여명이 연주하는 초대형 공연으로 교환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레퀴엠을 합동으로 연주한다.

· 지휘/이상렬(한울림합창단 음악감독)

입장료 R석 30,000원 · A석 20,000원
B석 10,000원 · 학생 5,000원(클래식음악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단체 초대)

문의 한울림합창단(011-837-2297)

제 14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18일-19일 화-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0개 합창단이 참가하는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단들의 축제 제 14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1992년 서울에서 시작되어 올해 14회를 맞은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는 전국의 24개 소년소녀합창단 중 광주, 대구, 군포, 광명, 창원, 구미, 순천, 김포, 안양의 시립소년소녀합창단들이 참가, 청소년들을 위한 맑고 밝은 희망의 하모니를 들려준다.

■18일

프로그램

김귀자(편곡)/업 사이드다운-낭랑18세-난 사랑을 몰라

이현철/산유화

신상우/하나님의 은혜

베버/오페라의 유령

헨델/재즈 할렐루야

사무엘 바버/별이 빛나는 이 밤에

헨리 렉/들판의 나비

박봉렬/오륙도(연합합창) 등 수곡

· 연주/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송영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박호진),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남희),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마원희),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영생),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조덕현)

■19일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프로그램

박지훈/Clap yo' Hands

이동훈/오리와 콩지 빠진 닭

허걸재/꽃 타령

우효원/아프리카 송, 콰바야, 아프리카 댄스

이근택/봄시내, 나뭇잎, 개구리, 꽃들의 꿈

뮤지컬 모음곡/ '미녀와 야수' 중에서 'Beauty and the Beast' 뮤지컬 '캣츠' 중에서 'Memory' 'Hai Holy Queen'

박봉렬/오륙도(연합합창) 등 수곡

· 연주/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정요원), 김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임진순),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근택),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배정행)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사)기회의 학숙 기금마련을 위한 음악회

사랑 가득한 음악회

22일 토요일 오후 5:00



전상철

김영애

자원봉사 및 시민지도자를 양성하는 무료 교육기관인 (사)기회의 학숙 운영 기금 조성을 위해 부산콘서트콰이어와 부산의 연주인들이 함께 마련하는 사랑 가득한 음악회.

프로그램

뱃노래, 춤추는 춘향이, 신고산 타령, 나폴리 주제에 의한 환상곡 등 수곡

· 지휘/전상철 · 해설/송필석
· 바이올린/김영애 · 플룻/오영인
· 클래식기타/고충진
· 피아노/현미경
· 합창/부산콘서트콰이어
· 특별출연/헤르메스 금관5중주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사)기회의 학숙(643-1807)

중극장

곽대희 귀국 첼로 독주회

4일 화요일 오후 7:30



동아대학교 음대를 수석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귀국한 첼리스트 곽대희 귀국 독주회.

부산음협콩쿠르, 계명대학교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곽대희는 독일

유학중 독주회와 다양한 실내악 연주회를 통해 폭 넓은 음악수업을 해왔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다장조
레거/첼로를 위한 모음곡 제 2번 라단조
드뷔시/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쇼스타코비치/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40 라단조

· 피아노/이윤희

입장료 초대

문의 광대희(010-7177-1881)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영 뮤지션과 실내악의 만남

6일 목요일 오후 7:30



김주희, 송범석, 성정인, 조화정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의 개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연주회 무대 '영 뮤지션과 실내악의 만남'.

무더운 여름밤의 클래식 음악회를 다소 진지하고 무거운 느낌의 심포니 연주에서 탈피하여 듣기에 편하고 흥겨운 음악을 선곡, 각 악기의 특성을 살린 곡으로 한 여름밤의 음악회를 마련한다.

프로그램

멘델스존/현악 4중주 제 6번 바단조 작품 80 중 1악장

코렐리/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합주협주곡 제12번 '라 폴리아' 라단조 작품5

멘델스존/피아노 3중주 제 1번 라단조 작품 49 중 1악장

차이코프스키/현악 세레나데 다장조 작품 48 중 1악장

모차르트/플룻 4중주 제 3번 다장조 작품 285b

브람스/피아노 4중주 제 1번 사단조 작품 25 중 4악장 등 수곡

· 연주/성정인, 송범석, 김주희, 조화정, 이수민, 허선옥, 전상윤, 이재은, 김석근, 김영민, 김민지, 전해상, 김충석, 조선일, 이지영, 이지윤, 신지현, 임수미 외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9)

제 2회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8일 토요일 오후 10:00



합창음악이 갖는 '화합과 절제의 미'를 배우고 문화도시 부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05년 시작된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두 번째 무대.

서울, 인천, 광주, 강원, 제주 등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15세 이하 어린이 및 소년 소녀합창단 21개팀 1,0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는 청소년들이 전국 각 시·도의 명예를 걸고 경연을 펼친다.

2002년 36개국 7,000여명이 참가한 '2002 부산합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산은 2004년 33개국에서 선발된 '세계청소년합창단(World Youth Choir) 공연', 2005년 '제 1회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부산 APEC 국제합창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UNESCO산하 세계합창연맹(IFCM)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아·태 지역 내 합창음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참가팀

- 분포 어린이 합창단(지휘/류지원)
- 구학초등학교 합창단(지휘/권영옥)
- 신덕초등학교 합창단(지휘/김기환)
- 김해여자중학교 합창단(지휘/이유정)
- 등대원음 어린이합창단(지휘/김영선)
- 월산중학교 합창단 'WSC' (지휘/최민성)
- 올리브 소년소녀 합창단(지휘/박미경)
- 김해 소년소녀합창단(지휘/주정화)
- 마산 제일여자중학교 합창단(지휘/백경태)
- 해돋이 소년소녀합창단(지휘/권영섭)
- KBS창원 어린이합창단(지휘/손민근)
- 삼산 초등학교 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진식)
- 고성 초등학교합창단(지휘/진옥자)
- 안동MBC 합창단(지휘/정만복)
- 송원 여자중학교 합창단(지휘/박미정)
- 노형 어린이 합창단(지휘/오남훈)

사랑을 아는 이들과 떠나는 순수의 세계

도쿄필하모닉 & 도쿄 음악여행

■ 기간 : 2006. 8. 15~18 (3박4일) ■ 경비 : 119만원

8월 15일(화) 하트풀콘서트 2006(도쿄)

- 지휘 | 오충근 · 피아노 | 유키 구라모토
- 장소 | 도쿄예술극장 (S석 기준)
- 연주곡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
스트라빈스키 발레 조곡 「불새」 외

8월 17일(목) 도쿄필하모닉 특별연주회(치바시)

- 지휘 | 정명훈 · 바이올린 | 米元響子
- 장소 | 치바시 문화회관 (S석 기준)
- 연주곡 | 모짜르트 바이올린협주곡 제3번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5번 「혁명」 외

문의처 / **주명문여행사** www.mts.co.kr TEL : (051)852-1231, FAX : (051)852-1233

인천광역시 남구청소년합창단(지휘/이성숙)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정준영), 성산 소년소녀 합창단(지휘/박문전)
 학성 중학교 합창단 (지휘/김은식)
 상장중학교 합창단(지휘/임명숙)

입장료 무료(경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시상식후 7시 30분 우수 합창단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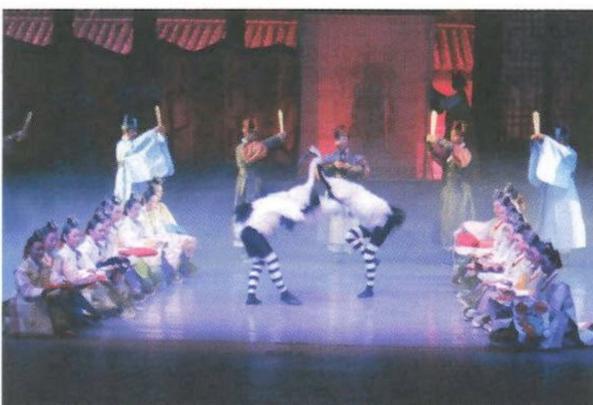
문의 (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청소년을 위한 여름무용 축제

- 홍기태 수석안무자가 해설하는 우리춤 한마당 -

11일-12일 화-수요일



우리 문화를 자주 접할 기회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춤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기 위해 부산시립무용단에서 마련하는 청소년 여름무용축제.

대표적인 우리 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공연작을 실제로 안무, 구성한 부산시립무용단 홍기태 수석안무자의 해설을 들으며 신명난 우리 춤사위를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

천하태평지무(天下太平之舞)(출연/황선희, 이창규, 허태성, 장래훈, 강모세, 류권홍, 최의욱, 김윤호, 서정숙, 김주령 외)
 훈령무(출연/이성원, 김병주, 이정식, 박상용)
 부채춤(출연/김주령, 서정숙, 권봉정, 황선희, 이정인, 이화성, 박창희, 김미란 외)
 성주허튼춤(출연/서현미, 김현숙, 김동숙, 오숙례, 이현숙, 정진희, 김공주, 정은정)
 춘접무(春蝶舞)(출연/윤은하, 강모세)
 백두대간(출연/이창규, 장래훈, 김기원, 강모세, 허태성, 류권홍, 최의욱, 김윤호 외)

· 안무, 구성, 해설/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해운대 소년소녀합창단 제 11회 정기연주회

13일 목요일 오후 7:30



1999년 부산의 첫 구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창단, 해운대지역의 문화사절단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해운대소년소녀합창단의 제 11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는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월트 디즈니의 만화주제곡을 편곡하여 안무와 함께 하는 고학년들을 위한 뮤지컬 프로그램과 2000년 이후 창작동요제에서 수상한 어린이들의 인기 창작동요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류정식/봄을 그리는 화가
 조경찬/기차놀이
 이수하/풀잎 미끄럼틀
 서정민/전래동요 '두껍아 두껍아' '가위바위' '엄지야 엄지야' 등 수곡

· 지휘/이창균

· 특별출연/소프라노 이재란, 테너 황성학, e-발리댄스 슈퍼스타즈 프로공연단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749-4000)

2006 버سم새예술단 기획공연 통과 멋

14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경남의 뜻있는 젊은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버سم새예술단의 2006년 기획공연.



개천예술제 사물부문 장원, 전국민속경연대회 부산농악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버سم새예술단은 제 2회 부산동아시아게임 폐회식 행사, 세계밀레니엄축제 대만 까오슝 행사, 제 2회 2002 부산합창올림픽대회 개막식 공연, 2003 조선통신사 무대공연(용두산) 등의 무대에서 우리문화의 사절단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길놀이(출연/버سم새 예술단)
 동래한량무(춤/김진홍 · 김진홍전통춤연구회 예술감독)
 원향살풀이춤(춤/엄옥자 · 부산대학교수)
 북놀이(출연/정우수 · (사)부산농악 단장)
 입춤(춤/최은희 · 경성대학교)
 훈령무(춤/홍기태 ·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처용무(춤/이진호 · 국립국악원 무용단 지도위원)
 신무(춤/김평호 · 창원시립무용단 예술감독 및 상임안무자)

타귀(모듬북)(출연/버سم새예술단)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버سم새예술단(751-3100)

제 2회 부산 아마추어 클라리넷 앙상블 연주회

16일 일요일 오후 6:00



아름다운 클라리넷 음악의 보급을 위해 활동해온 부산클라리넷콰이어 단원들의 제자들

로 구성된 부산 아마추어 클라리넷앙상블의 제 2회 정기연주회.

초등학생부터 일반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이 클라리넷앙상블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인형 중 '행진곡', '꽃의 왈츠'

한국민요(by 산타첼로)/옹헤야

베르디/오페라 '춘희' 중 '축배의 노래' 등

· 편곡/한상원, 이지현

입장료 초대

문의 박영미(011-878-5508)

브릴란트 앙상블 제 8회 정기연주회

17일 월요일 오후 7:30



바이올리니스트 김성현, 플루티스트 정경미, 피아니스트 최윤희가 활동하고 있는 브릴란트 앙상블의 제 8회 정기연주회.

2000년 제 7회 연주회를 가진 후 6년만에 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브릴란트 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기타리스트 이성우, 박종호, 첼리스트 김대수와 함께 기타, 첼로가 어우러지는 실내악 선율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하이든/트리오 작품 100

파가니니/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콘

체르타타 가장조 작품 61

피아졸레/탱고의 역사 등

· 출연/김성현(바이올린), 정경미(플룻), 이성우, 박종호(기타), 김대수(첼로)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김성현(627-2211, 011-595-6060)

부산콘서트라이어 청소년을 위한 해설 음악회 1

교과서에 나오는 오페라의 세계

21일 금요일 오후 7:30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교과서 음악회로 교과서에 나오는 모차르트, 도니젯찌, 베르디, 푸치니 등의 주요 오페라 아리아를 송필석의 친근한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저별은 빛나건만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나비는 더 이상 날지 못하리'

베르디/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프로벤자

내고향'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병사들의 합창'

등 수곡

· 출연/소프라노 권순유, 장은미, 김나영

테너 김형욱, 최춘식, 바리톤 서관수

베이스 구명금, 최현욱, 김원우(찬조

출연)

· 지휘/전상철 · 해설/송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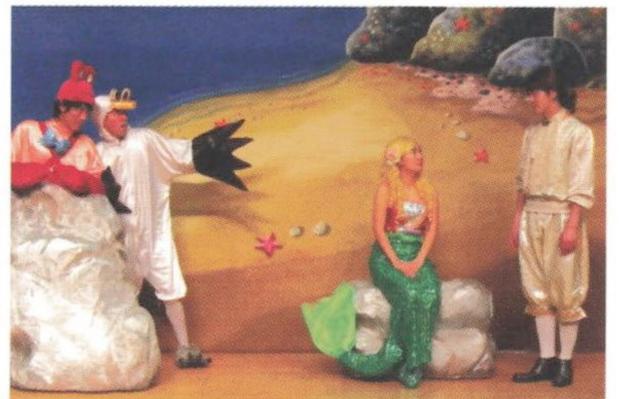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3,000원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기분좋은 극단 해미소

어린이 가족뮤지컬 '마법에 걸린 인어공주'

23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기분 좋은 극단 해미소가 선보이는 어린이 가족 뮤지컬 '마법에 걸린 인어공주' 부산무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안데르센의 최고의 동화 '인어공주'를 현대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게 재구성했다.

· 각색, 연출/이지영

· 출연/고도일, 한혁수, 이경희, 한상원, 유형민, 배혜미, 박정옥, 조윤수 외 코러스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남포동
자갈치 중앙아치탑 앞
각종 공연 예매처
Tel: 245-3843

문우당서점의 특별한 혜택!

문우당서점 회원카드로 문우당과 CGV(영화)에서 사용! 도서구입시 5%적립 CGV 10%적립 및 특정요일 할인

가마골소극장 할인! 문우당 영수증제시로 수요일은 문우당의 날로 50%할인 화·목·금요일 20%할인(일부대관공연 제외)

문우당창립 51주년 기념 1년간 책구매시마다 사은품 증정 부산교통수첩(버스노선 외), 세계명언집(수첩형)

세계최초제작 > 국제화 입체세계지도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광안리 미월드 자유이용권 할인매장

책과 지도의 백화점
전국최고의 종합지도와 지구본 대형매장(대형코팅 전문)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충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코코아 각 100원)

입장료 균일 12,000원(자녀 동반하는 보호자 한명 무료)

문의 한울(583-0754, 010-9613-0426)

야외공연장

2006 여름마당춤판 '男 콩쥐 vs 팔쥐'

20일 목요일 오후 8:00



최의옥(콩쥐)

강모세(팔쥐)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를 해학과 신명이 살아있는 마당춤판으로 그려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던 부산시립무용단의 여름마당춤판 2006년 무대 '男 콩쥐 vs 팔쥐'.

2006 여름마당춤판에서는 전래동화(콩쥐 vs 팔쥐)를 딸이 아닌 아들로 등장시켜 한층 새로운 볼거리로서 한여름밤을 웃음의 마당으로 이끌어 낸다.

작품구성

1막. 어머니를 여윈 콩쥐

2막. 콩쥐의 시련

3막. 콩쥐의 인생 역전 대 드라마

· 안무 및 구성/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 안무자)

입장료 무료(※우천시 중극장에서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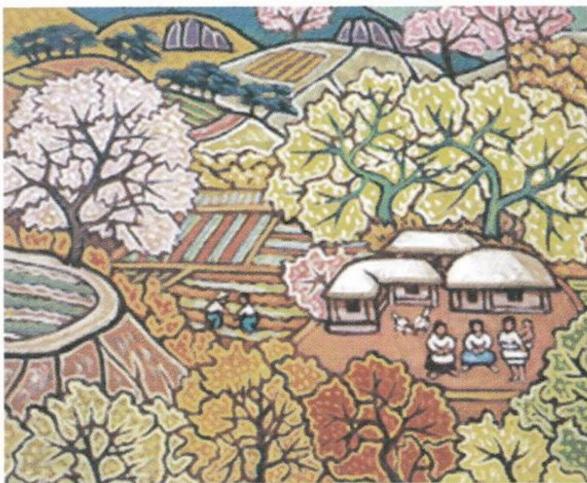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전시

Gallery MEE

이한우 화백 회화 50년 - 아름다운 우리 강산展

7월 4일(화)-7월 17일(월)
중전시실



아름다운 우리강산

1980년대부터 '아름다운 우리강산' 시리즈를 그려온 이한우 화백 화업 50년을 기념하는 부산전시회.

지난해 프랑스 상원 의장 초대로 2005년 7월 한 달 동안 룩상부룩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가진 이한우 화백은 일 년 동안 초대된 가장 우수한 외국작가로 선정되어, 프랑스정부가 수여한 '문예기사 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1期(65-75) 국전을 중심으로 아카데미한 화풍으로 정물을 다루었던 시기, 2期(76-80년대 초) 자연풍경을 메스로 처리하며 몽환적으로 바라보는 시기, 3期(80년대 초-최근) 여전히 해안과 농촌의 풍경을 그리면서도 선에 의해 대상이 구획되는 시기로 나누는 이한우 화백의 화업 인생 50년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입장료 관람시간/오전 10:00 ~오후 6:00

문의 무료

Gallery MEE(02-542-3004, 011-9562-3660)

제 32회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전

7월 14일(금)-7월 22일(토)
대저시실



부산미술협회 만 70세 이상회원 중 입회 10년 이상 경과한 회원이나 부산미술대전 입상경력 특선이상 5회, 입선 12회 이상 입상하여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인정받은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들의 작품 전시회.

부산미술대전을 기념해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는 출품작가 200여점에 달하는 행사로 기성작가의 수준 높은 전 장르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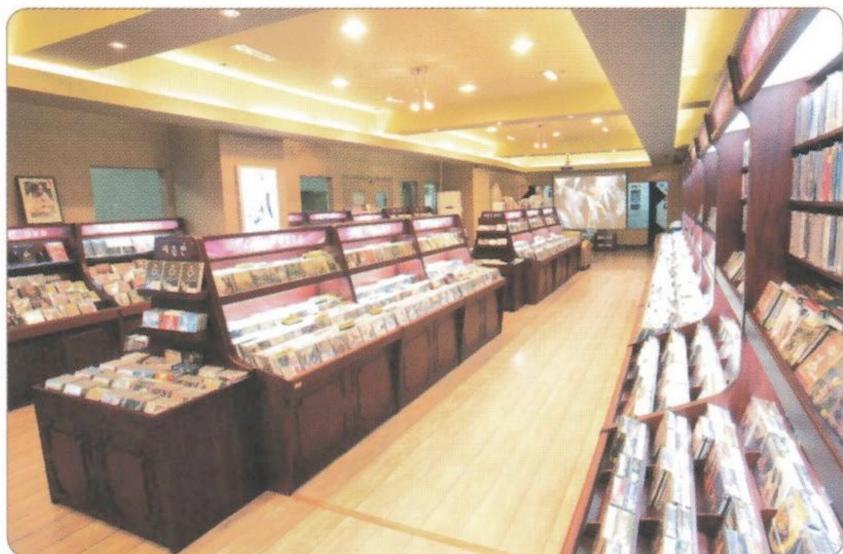
(전시부분: 서양화, 한국화, 판화, 조각, 공

입장료 자인, 서예, 문인화)

문의 무료

부산미술협회(632-2400)

7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무대정기보수공사 관계로 공연이 없습니다.



부산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클래식음악애호가 바라던 클래식음반전문매장 부산에도 있습니다.

• 비바체 목요음악감상회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8:00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비바체클래식

해운대 선플라자 빌딩 1층(지하 2, 3, 4층 무료주차)

TEL 743-0003, FAX 743-3301, vivaceclassic.co.kr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국도아트홀(247-4242)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놀이아트홀(631-0660)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민족굿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소극장 너른(622-3572)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 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악

스트로크 타악기앙상블 제 2회 정기연주회

1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5년 부산에서 타악기를 전공한 연주자들로 결성된 스트로크 타악기앙상블은 찾아가는 음악회, 부산바다축제, 실내악페스티벌 등 열린무대를 통해 고전에서 현대음악, 아프로 쿠바 등 라틴 민속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시민들과 만났다.

프로그램

- 윌리엄스 L. 칸/라밤바
- Ney Rosauo/Japaness Overture
- 조지 해밀턴 그린/Log Cabin Blues
- 비제/Carmen Potoouri 등 수곡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이상진(010-4494-3520)

베이스 박기범 독창회

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로 활동한 바 있는 베이스 박기범 독창회.

박기범은 린스키 코르사코프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 성가곡/시편 23편, 오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기도, 하나님의 은혜 등 수곡
- 특별출연/박연주(바이올린), 전성희(첼로), 노미숙(소프라노)

· 피아노/장재은

입장료 초대

문의 박기범(010-5701-1225)

클래스 씬머 콘서트

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플루티스트 조진학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스 연주회.

프로그램

- 도플러/에어 발라크 환타지 작품 10
- 비발디/협주곡 라장조 제 3번 RV.428 'Il Cardelino'

바흐/파르티타 가단조 BWV 1013 등 수곡

· 연주/유은미, 박아름, 신현이, 예은해, 김하나

· 협연/백승민(마림바), 에코앙상블

입장료 초대

문의 조진학(017-592-8868)

제 11회 여성주간 양성평등 문화행사

양.파. 문화를 만나다

어울림-음악과의 만남 '듀엣음악제'

5일 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테너 엄현선, 소프라노 배은심 부부, 첼리스트 유대연, 바이올리니스트 엄세희 부부와 뮤클 뮤지컬합창단, 라틴댄스동호회 등이 출연, 관객과 하나되는 흥겨운 무대를 마련한다.

프로그램

푸치니/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롤브 러블랜드/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글리에르/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작품 39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옴니미디어 멋진(201-3301)

가람 프리미엄 태교강좌

매주 수요일 오전 11:00
가람아트홀



테마별로 엄선된 태교음악을 들려주는 가람 프리미엄 태교강좌.

· 연주/황진용(소프라노), 김미현(피아노), 조경민(플룻)

입장료 월 40,000원

문의 가람아트홀(626-6664)

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5일 테너 김화정 독창회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이태리 레스피기 국제콩쿠르 1위, 슈베르트 국제콩쿠르 3위 등을 수상한

바 있는 테너 김화정 독창회.

프로그램

비크시오/숲속의 오솔길, 살자꾸나?
단짠/사랑의 예수, 이렇게 살고 싶어
커티스/날 잊지 말아주오 등 수곡
· 피아노/이소영 · 해설/오동주

■12일 오윤주 피아노 독주회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수석졸업)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인재대학교 교수, 코리아나 챔버

뮤직소사이어티, 트리오 탈리아 단원으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오윤주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27 제 1번
슈베르트/방랑자 환상곡 작품 15

슈만/환타지 작품 17

· 해설/윤성원

■19일 문주연 바이올린 독주회



서울대학교와 독일 뮌헨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정경화 챔버, 한국페스티벌 앙상블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문주연 독주회.

프로그램

브람스/스케르초 Wo02
바흐/파르티타 II BWV 1004
비탈리/샤콘느 사단조 등
· 피아노/강민정 · 해설/박진홍

■26일 박종근과 함께하는 오카리나 연주회



부산오카리나 회장으로 있는 박종근과 오카사랑앙상블 리더 박은숙, 정진희, 최영자, 이탁교가 들려주는 신비로운 오카리나의 세계.

· 특별출연/고충진(기타), 김화정, 김복조(성악)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제 27회 부산관악제

7일 금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지방경찰청 악대를 비롯 부산시내 5개 고등학교 관악단과 일본 상대마고등학교 관악단이 출연, 경쾌한 관악의 선율속으로 안내하는 제 27회 부산관악제.

프로그램

척 맨지오니/산체스의 아이들
루이스 프리마/Sing Sing Sing 등 수곡
· 출연/부산지방경찰청 악대, 경남공업고등학교 관악단, 동의공업고등학교 관악단, 예원정보여자고등학교 관악단,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관악단,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 관악단, 일본 상대마고등학교 관악단

입장료 일반 5,000원 · 학생 3,000원

문의 박종희(016-566-6410)

동초소리제 영호남 교류한마당

7일 금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소극장



오정숙

김정애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예능보유자인 명창 오정숙과 함께하는 동초소리제 영호남 교류한마당.

프로그램

가야금병창/박꽃핀 내고향, 복숭아꽃, 개타령, 풍년놀이
판소리/흥부가 중 '흥부가 박타는 대목'
경기민요/한오백년, 서울제 · 정선제 정선아리랑, 강원도아리랑 등 수곡

· 출연/오정숙(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예능보유자), 박병천(진도씻김굿 예능보유자), 김남순(부산대학교 교수), 김정애(동초제 판소리보존회 부산 · 경남지회 지회장), 김경민(선소리산타령보존회 부산지회 지회장) 외

입장료 균일 20,000원(예매 10,000원)

(사)동초제 판소리보존회 부산 · 경남

문의 지회(512-1616)

교사오케스트라 에듀필 하모니제 11회 정기연주회

1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오케스트라 에듀필하모니의 11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하이든/교향곡 '시계'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뮤직 등 수곡
· 지휘/박종원(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입장료 초대

문의 양미향(011-9537-9303)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바이올린
클래스(김영희 교수)

앙상블 연주회

1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김영희

바이올리니스트 김
영희 부산대학교 교
수의 제자들이 들려
주는 바이올린 앙상
블의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터 키 행진
곡

구노/아베마리아
쇼스타코비치/로망스
사라사테/나바라2중주
텔레만/4중주 등

· 연주/임나리, 김민지(이중주), 이지윤, 장
아름, 김아란, 김미솔(사중주)

초대

김영희(510-2911)

N.G.N(중앙, 금정) 케이블TV방송과 앙
상블 클래시아가 함께하는

11시 브런치 콘서트

13일 목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홍성택

서울대학교 기악과
와 프랑스 이에르 국
립음악원, 러시아 그
네신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앙상
블 클래시아 음악감
독으로 있는 클라리
네티스트 홍성택의
해설로 진행되는 해

설이 있는 모닝 클래식 '브런치 콘서트'.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현악 4중주 제 1번 작품 11 중
2악장, 3악장

크로머/현악과 클라리넷을 위한 4중주

토셀리/세레나데 등 수곡

· 연주/홍성택(클라리넷), 박치상(바이올린),
엄세희(바이올린), 이선아(첼로), 전병
호(테너)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N.G.N 케이블TV방송(506-6305)

글로벌아트홀 기획공연

오지탐험가 도용복과 함께하는 음악이 있는 세계문화기 행 세번째

18일 화요일 오전 11:30
글로벌 아트홀

100여 개국을 여행하고 각 나라의 문화



예술에 흠뻑 빠진 오지탐험가이자 아마추어
테너 도용복의 음악과 여행이 있는 세계문화
기행 세번째 무대.

오른팔만 가지고도 아름다운 삶을 사는 피아
니스트 김선택의 연주가 함께 한다.

특별출연/김선택(명성교회 오르가니스트)

입장료 VIP 50,000원, 일반 15,000원

학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
회원 20% 할인)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2006 한국기타페스티벌

30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2년 창단 후 3차례의 정기연주회와
한·일 친선연주회, 통영국제음악제 등의 무
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페스티벌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병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은 부산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한발 앞서가는 큰 병원으로
새롭게 도약·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내과 | 소화기내과 | 소아과 | 신경과 | 정신과 | 피부과 | 외과 | 흉부외과 | 정형외과 |
성형외과 | 신경외과 | 산부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치과 | 가정의학과 |
재활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방사선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1330

• 대표전화: 051)507-3000 • Fax: 051)507-3001 • 홈페이지: www.busanmc.or.kr

기타양상블이 마련하는 한국기타페스티벌 2006년 무대.

부산페스티벌 기타양상블과 여성기타트리오 'Las Coreanas(한국여성들)', 브라만 기타트리오, 일본 기타리스트 이케다 신지가 출연, 다양한 기타음악의 세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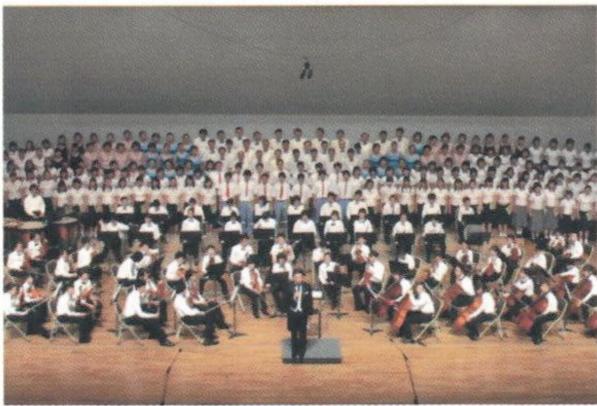
- 슈베르트/소나타 '아르페지오네'
- 바흐/푸가 사장조
- 파헬렐/캐논
-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행복 등 수곡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바하기타음악원(702-1589)

영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부산·서울연합) 제 14회 정기연주회

나라사랑 한국환상곡의 밤

23일 토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네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와의 협연무대로 호평을 받았던 영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부산시내 6개 고교 연합합창단과 함께 들려주는 안익태의 한국환상곡의 밤.

프로그램

- 안익태/한국환상곡
- 베르디/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 랄로/스페인 교향곡 라단조 작품 21 등 수곡
- 지휘/김현경(상임 지휘자)
- 협연/김대영(피아노·영국 Boxhill Schol 2년), 손동규(바이올린·동천고 2년), 이지인(첼로·문현여중 3년), 윤신우(테너·부산예고 3년), 송일도(바리톤·부산예고 3년)
- 합창/경남고, 구덕고, 부산공고, 부산진고, 문현여고, 영도여고 연합합창단

입장료 초대
문의 단장 정동화(017-587-8994)

제 7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청소년 교과서 음악회

25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전영무 전병호

청소년들이 클래식 음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교과서에 나오는 친숙한 곡들을 지휘자의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교과서 음악회.

프로그램

- 프로코피에프/음악동화 '피터와 늑대'
- 슈트라우스/폴카 '틱틱' 작품 365
- 필모어/트럼본의 춤 등 수곡
- 지휘/박성완(포항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협연/전영무(소프라노), 전병호(테너), 황지원(바이올린), 이웅희(트럼본), 이현주(나레이션)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임병원 (620-4917, 011-9533-4917)

세대공감 OLD & NEW

2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새롭게 편곡, 장르에 대한 편견없이 세대를 초월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마련된 양상블 포스의 '세대공감 OLD & NEW'.

- 연주/김미현(피아노), 조미혜(바이올린), 정누리(비올라), 윤민우(더블베이스)
 - 특별출연/박훈(테너), 신승엽, 이선희(탱고)
-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조미혜(016-552-7802)

글로벌아트홀 기획공연
차세대 유망주를 위한 한·미 청소년 교류음악회

25일 화요일 오후 8시
글로벌아트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음악수업을 받고 있는 차세대 유망주들의 무대로 마련되는 한·미 청소년 교류음악회.

- 출연/Christina Lee(바이올린), Chris Kong(첼로), 정혜주(첼로), 김예지(피아노), 이기엽(타악) 외
-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6,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연극

가마골소극장 20주년 기념공연4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정부가 있다

6월 9일(금)-7월 17일(월)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공휴일 오후 3:00, 6:00
(7/17일 제외한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허무주의에 빠진 인텔리들과 펑크족을 소재로 대마초, 프리섹스, 동성연애, 에이즈 등에 함몰된 현대도시의 자화상을 문제적으로 그린 작품.

- 재구성, 각본/이윤택
 - 연출/남미정
 - 출연/곽지숙, 최윤미, 이종현, 이미화 외
-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극단 사계 양파

6월 17일(토)-7월 16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SH공간소극장



한 가족의 25년 가족사를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작품.

· 원작/김수미 · 연출/김만중
· 출연/호민, 구민주, 양진억, 황자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2,000원

문의 SH공간소극장(621-8518)

라이어 2탄 그후 20년

6월 23일(금)-7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29일 공연 없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20년동안 지켜온 자신의 이중생활이 탄로날 위기에 처한 택시운전사 존 스미스가 두 부인과 딸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거짓말을 다시 시작하는 라이어 2탄 그후 20년.

· 각색/이현규 · 연출/고유미
· 출연/정진영, 임혜란, 이승희, 박세진 외

입장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강풀의 순정만화

1일(토)-17일(월)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4:00, 7:30 (6일-7일,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소극장



띠동갑인 연우와 수영, 옛 애인을 잊지 못하는 하경과 그녀를 짝사랑하는 연하의 강숙

등 등장인물의 사랑과 우정, 엇갈리는 이별과 만남을 그린 순정 코믹 멜로드라마.

· 출연/오상현, 이지연, 김현미, 유동숙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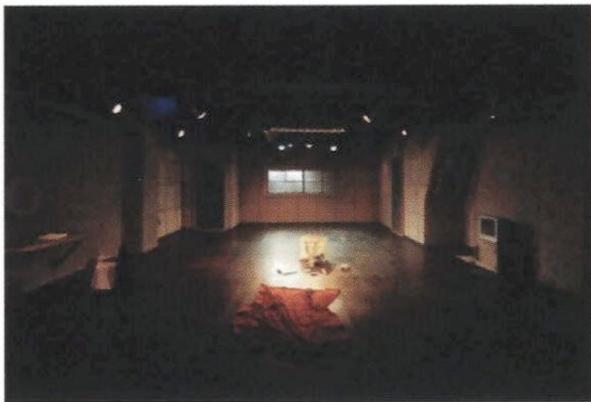
입장료 균일 30,000원

문의 석영엔터테인먼트(1544-3164)

2006 부산배우협의회 공연

비닐하우스

7일 금요일 오후 8:00, 8일 토요일 오후 5:00, 8:00, 9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가상의 집단채혈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비닐하우스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인간을 길들이는가를 그린 작품.

· 작/오태석 · 연출/구현철
· 출연/유상훈, 하현관, 오정국, 안성혜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배우협의회(011-9525-4915)

루나틱

7월 14일(금)-8월 1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 (7/18일, 7/24~7/28일, 7/31일, 8/7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정신병원 환자 중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 정상인의 행동을 통해 혼돈스럽고 각

박한 사회현실 속에서 과연 누가 정신병자인지를 코믹하게 그려낸 창작 뮤지컬.

· 연출/백재현

· 출연/정영주, 강지연, 윤선희, 김도형, 정재민, 서길자, 김세진, 전수미, 김지혜, 이화진, 백재현 외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7/14~7/15일 프리뷰공연 40% 할인, 평일공연 중 · 고 · 대학생 40% 할인,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아마데우스(1588-9088)

2006 개그콘서트

Pride of GAG

15일 토요일 오후 4:00, 7:30 KBS 부산홀



갈갈이 박준형, 옥동자 정종철, 육봉달 박휘순, 출산드라 김현숙, 고음불가 이수근, 오지현, 김병남 등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는 개그맨들이 총출동, 다양한 웃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2006 개그콘서트.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전화 예매시 20% 할인)

문의 PS엔터테인먼트(805-7877)

아비가일의 파티

7월 21일(금)-8월 6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SH공간소극장

이웃간의 사교모임에서 벌어지는 하루동안의 헤프닝을 통해 일상속에 내재한 인간의 나약함과 이면적인 속성을 코믹 터치로 그려낸 작품.

· 연출/호민

· 출연/유상훈, 구민주, 양지웅, 황자미, 김희지, 김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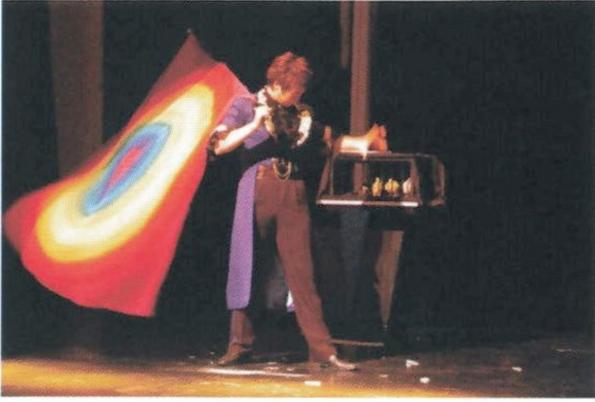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2,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SH공간소극장(611-8518)

오창현의 매직콘서트

-꿈의 대화

22일 토요일 오후 7:00, 23일
일요일 오후 2:00, 5: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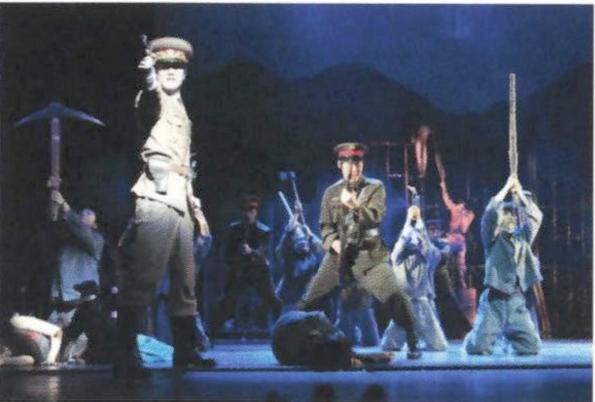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스토리와 극적 구성을 통해 상상속에서만 가능하던 환상적인 마술의 세계로 안내하는 오창현의 매직콘서트.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교육극단 보물상자(032-813-8040)

창작뮤지컬 요덕스토리

28일 금요일 오후 7:00,
29일-30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시민회관 대극장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요덕 정치범 수용소'를 배경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노래한 창작뮤지컬. 북한의 혁명가극과 미국의 브로드웨이 스타일이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뮤지컬을 선보인다.

- 총제작 및 감독/정성산
- 작/유혜정 · 작곡/차경찬
- 북한안무/김영순
- 출연/최윤정, 임재청, 김준겸, 박완규 외

입장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대구라이브(1588-5352)

영 화

시네마테크 부산

베르너 헤어쾨그 특별전

6월 30일(금)-7월 16일(일) 평일
오후 5:00, 7:30, 주말 오후 3:00,
5:00, 7:30 시네마테크 부산

뉴저먼 시네마의 대표 감독 중 독특한 차별성을 갖는 영화감독으로, 강박관념이나 과대망상에 빠진 비주류 인물을 즐겨 다뤘던 베르너 헤어쾨그의 영화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상영전.

'아귀레, 신의 분노' '침묵과 어둠의 땅' '나의 친애하는 적-클라우스 킨스키' 등 그의 대표작 9편이 소개된다.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시네마테크 부산 오프사이드

6월 30일(금)-7월 16일(일)
평일 오전 11:00, 오후 1:00, 3:00,
주말 오전 11:00, 오후 1:00
시네마테크 부산



지식이면 감천!
이런 것도 막지 못할 그녀들의 축구사랑
오프사이드 OFFSIDE



2006년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이란의 자파르 파나히감독의 영화 '오프사이드'는 축구 관람이 불가능한 이란 여성들의 경기장 잠입 분투기로, 이란 사회가 가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제약에 대한 비판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제 11회 여성주간 양성평등 문화행사

양.파. 문화를 만나다

설레임-영화와의 만남

3일-4일 월-화요일 오후 7:30, 5일
수요일 오후 3:00 시민회관 소극장

서울여성영화제 역대 출품작 중 우수작품을 상영하는 여성주간 문화행사 영화제.

일정

- 3일 단편 경선 수상작 모음/생리해서 좋은 날, 뷰티풀 라이프, 잘돼가? 무엇이든
- 4일 청소년 영화 및 애니메이션
- 5일 음악소재 다큐멘터리/드림걸즈

입장료 초대

문의 옴니미디어 멋진(201-3301)

시네마테크 부산 7월 수요일시네클럽

천국과 지옥

19일 수요일 오후 12:30, 3:30,
6:30 시네마테크 부산



영화 '괴물'의 봉준호 감독이 추천하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유괴 수사극 '천국과 지옥'은 유괴라는 극단적인 사건을 통해 가진 자와 없는 자, 계급간의

모순과 적대 관계, 증오감을 보여 준다.

입장료 균일 6,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B급 호러 영화 파티

7월 20일(목)-8월 10일(목)
오전 11:30, 오후 2:00, 4:30, 7:00
시네마테크 부산

무더운 여름을 서늘하게 할 B급 호러 영화들의 총집합 시네마테크 부산 'B급 호러 영화 파티'.

영화 '어셔가의 몰락', '사탄의 가면' 등 B급 호러영화 14편이 상영된다.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무 용

금정어머니예술단 정기공연

1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지난 2002년 남산놀이마당 강습생들로 결성된 금정어머니예술단 정기공연.

프로그램

판굿, 설장구, 삼도농악, 모듬북놀이, 심청가 중 '방아타령', 오영숙류 쌍채북춤 등

입장료 무료

문의 남산놀이마당(516-4434)

제 12회 부산새싹발레단 정기공연

8일 토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난 1988년 창단, 발레 유망주들을 키워 온 부산새싹발레단의 12번째 정기공연.

동심의 세계를 고전발레의 하이라이트와 조합한 '소풍가는 날'과 '노틀담의 곰추'를 발레화한 '에스메랄다', 프랑스 안무가 장도베르발이 1789년 안무한 가장 오래된 전막발레 '고집쟁이 딸' 등을 선보인다.

· 찬조출연/김해 리틀윙스발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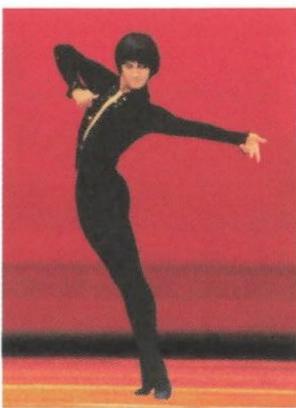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부산무용센터(017-574-9991)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파리오페라 국립발레단 발레리노 김용걸 초청공연

21일-22일 금-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0년 동양인 발레리노로는 최초로 파리 오페라발레단에 입단, 2005년 동양인 최초로 당당히 솔리스트로 승급한 발레리노 김용걸 초청공연.

신체조건과 테크닉, 표현력 등 이상적인 발레리노로 평가받는 김용걸은 1997년 한국인 최초로 모스크바 국제발레콩쿠르 동상, 1988년 파리국제무용콩쿠르 듀엣부분 1등상을 수상,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파리 오페라발레단 주역 및 솔리스트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발레리나 Laure Muret와의 '지젤' 2막 중 '파드되' 무대와 전설적인 무용수 기타노 베스트리스를 추모하는 'Vestris', 'In The Middle Somewhat Elwvated', 김용걸의 남성미 넘치는 무대가 될 'AREPO' 등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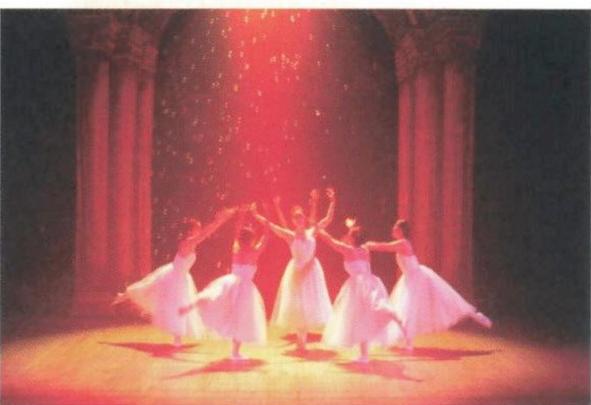
입장료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아 동 극

뮤지컬 인어공주

1일 토요일 오후 2:00, 4:30
KBS 부산홀



아름다운 바다 밑 풍경을 재현한 무대속에서 주옥같은 노래와 역동적인 춤이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 작/연출/이광열

· 출연/유민영, 김산호, 김미숙, 김응주, 이현지, 진석주, 이해경 회

입장료 R석 15,000원 · S석 12,000원
A석 10,000원

문의 영남예술(080-610-6100)

가족뮤지컬 라이온 킹

1일 토요일 오후 1:00, 3:00, 5:00,
2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어린 사자 삼바가 성장하면서 무리속에서 살아가는 질서와 규칙을 터득하며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워가는 과정을 그린 가족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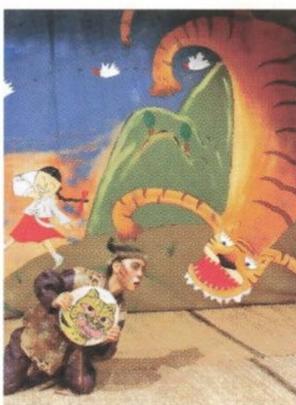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극단 여명(011-789-3371)

국악 체험 놀이극

호랑이를 만난 놀부

14일(금)-30일(일) 평일 오후 4:00, 주말 오후 1:00, 3:00(18일 ~19일, 29일, 24일 공연없음)
SH공간소극장



우리의 전래동화에 판소리와 민요, 탈춤 등을 접목시켜 어린이들이 보다 다양한 장르의 국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구성한 국악 체험 놀이극.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SH공간소극장(621-8518)

신나는 가족 마당극

콩쥐야! 팔쥐야!

21일 토요일 오전 10:10, 11:20,
22일-23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전래동화 '콩쥐 팔쥐'를 오늘날을 배경으로 신명나는 마당극으로 각색,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품.



· 작, 연출/손현미
· 출연/윤승준, 이수경, 양진선, 이희정 외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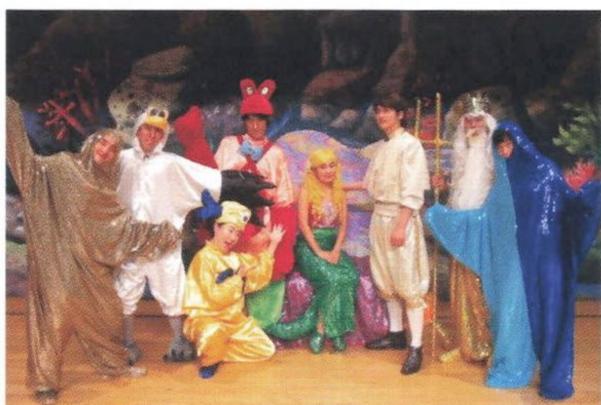
상설극장 팡팡동화나라
가족뮤지컬 보물섬

21일 오전 10:20, 11: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용감한 소년 짐과 함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모험담을 그린 가족뮤지컬 '보물섬'.
· 각색, 연출/이준하
· 출연/김학준, 남정현, 이경준, 권은하, 임나리, 이지승
입장료 균일 10,000원(단체 4,000원)
문의 인형극단 까치(633-2114)

마법에 걸린 인어공주

29일-30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바다속 환상의 세계와 왕자를 향한 인어공주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가족뮤지컬.
· 각색, 연출/이지정
· 출연/고도일, 한혁수, 이경희, 한상원, 유형민, 배혜미, 박정옥, 조윤수 외
입장료 균일 12,000원(자녀 동반하는 보호자 1명 무료입장)
문의 한울(1544-1718, 010-9613-0426)

콘서트

2006년 신화 라이브 투어 공연

15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문의 (주)인넥스트트렌드(1544-1555)

2006 버즈 라이브 투어

29일 토요일 오후 6: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문의 (주)인넥스트트렌드(02-3446-3225)

행사

2006 동물 아카데미

6월 28일(수)-8월 27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일반 12,000원 · 소인(만 24개월~고등학생) 10,000원
문의 동물아카데미(740-3488)

초대형 서커스 동방의 신기

1일 토요일 오후 4:00, 7:30, 2일 일요일 오후 3:00, 7:00
시민회관 대극장



70년 전통의 국내 유일의 서커스단인 동춘 곡예단 초청 공연.
입장료 1층 20,000원 · 2층 15,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스타워즈 Science & Art전

7월 1일(토)-10월 22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스타워즈 시리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과 영화 속 다양한 특수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이벤트관으로 구성된 특별전.
· 관람시간/오전 10시~오후 7시
입장료 일반 13,000원 · 중고생 이하 10,000원
문의 (주)비손(740-4100~2)

영광도서와 뮤클이 함께하는
클래식 · 예술공연 무료 DVD상영

매주 일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2일 선율고운 아리아 모음
· 9일 헤이 미스터 프로듀서스
· 16일 간직하고픈 아름다운 발레 명장면 모음
· 23일 뮤클 뮤지컬합창단 공연
입장료 무료
문의 영광도서(816-9500)

제 51회 시올림 시낭송회

12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박철석, 이병석, 김정순, 정의태, 박윤규, 신정민, 김시월, 손화영
입장료 무료
문의 이해웅(500-7214)

살아움직이는 곤충탐험전

7월 12일(수)-8월 16일(수)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문의 부안곤충해양생태원(063-583-0155)

친절한 영진씨-영화 들고 여름 산보

21일(금)-23일(일), 28일(금)-30일(일) 금요일 오후 7:00, 주말 오후 2:00 시네마테크 부산 세미나실

영화사에 남는 걸작들의 명장면을 스타일, 작가, 역사, 장르 등의 키워드로 분석해보는 영화평론가 김영진의 영화강좌.

입장료 균일 100,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전 시

세계건축도사전

3월 24일(금)-10월 3일(화)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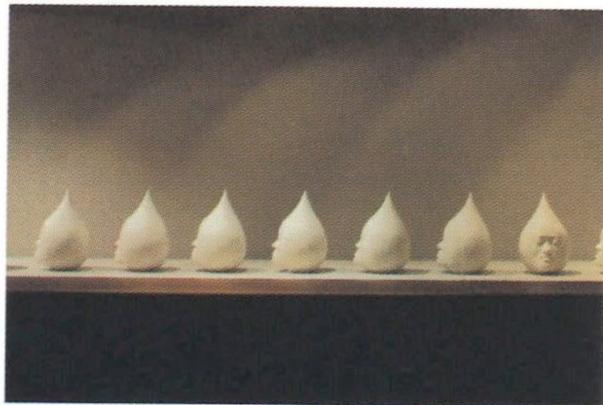
건축에 대한 세계 각국 작가들의 다양한 예술적 생각을 흙이라는 매체와 건축적 이미지로 펼쳐 보이는 세계건축도사전.

문의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055-340-7009)

부산해양사자연박물관 특별기획전

임해담수(臨海談水)-바다를 이야기하다

6월 9일(금)-7월 9일(일)
부산해양사자연박물관



김민정 작 '물방울되기'

부산 근교의 바다환경을 통해 지역성을 재고하는 프로젝트로, 바다를 이미지한 작가 12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 참여작가/구영경, 김미애, 김민정, 김영준, 노주련, 변대용, 서강조, 유미연, 이나영, 이성형, 장승인, 최규식

문의 부산해양사자연박물관(553-4944)

제 4회 다구(茶具)와 다기(茶器) 모음전

6월 17일(토)-7월 30일(일)
강서예술촌 제 2전시실

문의 강서예술촌(972-3912)

롯데화랑 부산점 기획전

어느 멋진 날

6월 30일(금)-7월 6일(목)
롯데화랑 부산점

문의 롯데화랑 부산점(810-2328)

주영숙 개인전

7월 3일(월)-7월 8일(토)
부산광역시청 제 1전시실

문의 주영숙(016-9677-3396)

전국공모 제 32회 부산미술대전 입상작 전시회

7월 4일(화)-8월 18일(금)
부산시립미술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부산미술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부산미술대전은 서양화, 한국화, 판화,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 문인화, 학술평론 부문으로 나뉘어 전시된다.

입장료 일반 4,000원 · 학생 3,000원

문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제 25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순회전

7월 4일(화)-7월 8일(토)
시민회관 1, 2층 전시실

문의 사진협회 부산지회(631-4111)

박상순展 -자연과 빛의 만남

7월 4일(화)-7월 13일(목)
N.C갤러리

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현대여성작가회 회원으로 그동안 7회의 개인전을 가져온 박상순 작품전.

문의 N.C갤러리(747-8552)

김해박물관 사진전 담

7월 4일(화)-7월 9일(일)
영광갤러리

· 참여작가/한종수, 허남인, 정연옥, 김애경, 김정미, 백재현, 나순이, 정점숙

문의 영광갤러리(816-9500)

부산대학교 사진예술연구회 창립 50주년 기념 사진전

7월 10일(월)-7월 15일(토)
부산광역시청 제 1전시실

문의 한진복(011-9505-0654)

롯데화랑 부산점 기획전

부산구상미술의 오늘전

7월 14일(금)-7월 27일(목)
롯데화랑 부산점

문의 롯데화랑 부산점(810-2328)

공연사진 전시회

공연이 보여요

7월 17일(월)-7월 23일(일)
영광갤러리

문의 영광갤러리(816-9500)

김미경 설치전

7월 22일(토)-7월 27일(목)
금정문화회관 제 2전시실

문의 김미경(016-859-4356)

나연전

7월 24일(월)-7월 30일(일)
부산광역시청 제 1전시실

문의 김수길(018-560-7028)

김선희 개인전

7월 24일(월)-7월 29일(토)
부산광역시청 제 2, 3전시실

문의 김선희(019-512-2196)

사진전 '이웃2'

7월 25일(화)-7월 30일(일)
영광갤러리

문의 영광갤러리(816-9500)

구상작업미술가회전

7월 31일(월)-8월 5일(토)
부산광역시청 제 2, 3전시실

문의 김동성(010-8533-1345)

Recommended Performance in July

-Voice of Change- 2006 IYF Artist Concert

9th(Sat) 3:30,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o congratulate worldwide meeting of newly establish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IYF(Internation Youth Fellowship), Busan Cultural Center will have this concert. IYF is purposed for generating for

new generation with desirable personality and leadership.

Program

Bellini/Opera 'Norma-Casta Diva'

Puccini/Opera 'Madam Butterfly-Un bel di vedremo'

Caccini/Ave Maria etc.

Ticket:R 80,000Won · S 60,000Won · A 40,000Won

More Information:627-0852, 011-670-1824

Harmony with Classic and Jazz

Jeon Yeonsuk, Choi Kwangchol JOINT CONCERT

10th(Mon)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A leading singer in Busan, mezzo soprano Jeon Yeonsuk and a saxophonist Choi Kwagchol will present us sweet summer night of harmony with classic and jazz.

They designed a fusion concert to broaden for understanding music through the meeting of classic and Jazz.

Program

Jazz/Summertime, Spain, Round midnight, Jean Pierre, etc.

Classic and Jazz/My Favorite Things,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Pathetique, A Lover's Concerto etc.

· Play/Busan Art Orchestra

More Information:011-9567-4297

Love Concert for Family with MÜSA

13th(Thu)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It will be a great chance with fantastic technique of percussion music. MÜSA percussion ensemble prepares with world music such as Jazz, Samba, Bossanova, etc. It's for the 4th subscription concert by MUSA established in 2002.

· special guest/Prismer band

Ticket:VIP 40,000Won · R 30,000Won · A 20,000Won

B 10,000Won

More Information:628-8377, 010-5633-0864

Busan Beoseumsae Artists Group Subscription Performance

14th(Fri)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dium Theater

There are traditional music and dance. Since 1991, Beoseumsae artists group have played important role for succession of folk art. It's another chance to see their works.

Ticket:Adult 20,000Won · Student 10,000Won

More Information:751-3100

2006 Summer Outdoor Dance Festival 'Man Kongjwi vs Patjwi'

20th(Thu) 8:00p.m. Busan Cultural Center cultural park

This is a reformed dance originated from Korean representative traditional story 'Kongjy and Patjy' by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It is full of humor and zest. It'll promise us an exciting time and interesting with male characters different from the original work.

· dance composition, scenario/Hong Kitae (chief dance composer of)

Ticket:Free(In case of rain Madium Theater)

More Information:607-6070, 607-6118

Invitation Performance of Ballerino, Kim Yonggul From Paris L' Opera Ballet

21th(Fri)-22th(Sat) 7:30p.m. Guemjeong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Ballerino Kim is well known for the first Asian joining Paris L' Opera Ballet, which has a great history. He has been a solist since last year. He is estimated as a ideal ballerino by his perfect body condition, technique and powerful expression.

Ticket:S 20,000Won · A 10,000Won

More Information:0505-700-9798



July, Regular Saturday Performance

■ 8th(Sat) 4:00p.m. Busan Cultural Center Small Theater

Busan Metropolitan theater company 'Halmikwajang in Dongraeyarwu'

They invite us world of folk dance redesigned with modern sense, especially the 18th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Dongraeyarwu.

■ 15th(Sat) 4:00p.m. Busan Cultural Center Madium Theater
Opera factory Bambini - Opera 'Magic Flute' by Mozart

■ 22th(Sat) 4:00p.m. Busan Cultural Center Madium Theater
舞(Mu-Dance), 舞一Ⅱ (Mu-Dane Ⅱ) - grace and energy of Korean folk dance by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dance company

Ticket: Free(No admittance under 7 years old.)

More Information: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1회 정기연주회 '상생 2006'

국악의 선율 속에서 생각해본 자연과 인간

이남근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상생(相生) 2006', 지난 6월 22일 공연된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 음악회로 기획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131회 정기연주회는 동양철학에서 설명하는 만물의 생성 소멸(生成消滅) 원리를 표제로 달고 있었다.

상생(相生)의 의미를 21세기적 인간과 자연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 있고 뜻 깊은 음악적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

세기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상극(相剋)의 역사, 곧 인간에 의한 자연 정복의 문명에 대한 반성과 함께 21세기적 삶의 패러다임을 국악의 선율 속에서 생각해보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부산녹색연합에서 대극장 로비에 낙동강 환경 관련 사진을 전시하여 환경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이번 공연의 분위기와 의미를 한층 더해주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부산 초연의 창작곡들로만 짜여져 더욱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첫 곡인 '야생화'는 그 제목부터가 친근감이 가는 음악이었다. 그리고 '소나무'의 25현 가야금의 울림은 그동안 서양의 클래식음악만 편식해 오던 나에게 형언할 수 없는 충격적 감동으로 다가왔다. 또한 김상훈 시에 의한 세 편의 노래 '葉言, 杏花村, 바람처럼 떠나야지'도 김상훈 시인의 낭송에 이어 연주된 부산 작곡가의 작품이라 그런지 그 감흥이 특별 했다.

계속된 2부의 해금을 위한 협주곡 '상생', 해금과 관현악이 서로 주고받으며 조화를 이루어 드러내는 선율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우주만물의 생성 원리를, 인간과 자연의 상생 원리를 고스란히 그려낸 소담한 한 폭의 철학적 동양화를 보는 듯한 감흥이었다. 이어진 '광야' 역시 특별한 감흥으로 다가왔다.

음악적 완성도 높은 훌륭한 연주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환경과 생태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 좋은 시간이었다. 이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상생'의 의미는 너도 살고 나도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네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 동안 환경 문제에 대해 많은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환경 파괴 현장의 홍보 문구에 '친환경적'이라는 수식어 하나를 더해놓았을 뿐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서 이번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시도는 매우 의미 있고 뜻 깊은 시도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

다만 장마철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의미 있고 완성도 높은 공연에도 객석의 빈 자리들의 숫자가 공연의 감동만큼이나 크게 남는 아쉬움을 어쩔 수 없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촉구해본다.



레이첼 포저의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3집



채널 클래식스 창립 15주년 기념 릴리즈 제 1탄이 되는 이 음반은 SACD Hybrid반과 128페이지에 이르는 풀 컬러의 최신 카탈로그를 슬립 케이스에 봉입한 특별 사양을 초특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미 발매중인 1, 2집은 포저의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나 비발디 <라 스트라바간자>와 마찬가지로 베스트셀러로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기세를 이어나갈 3집 역시 포저와 쿠퍼 콤비의 절묘한 호흡 속에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가 간직하고 있는 원래의 단아한 아름다움이 오롯이 전해져 온다.

*레이첼 포저(바로크 바이올린) *개리 쿠퍼(포르테 피아노)

안네-소피 무터(Anne-Sophie Mutter) / Simply



안네-소피 무터의 첫 베스트 컬렉션 SIMPLY Anne-Sophie 음반이 발매 되었다. 바로크에서 현대를 넘나드는 '무터 바이올리즘'의 완성판이다.

'기교를 넘어 철학으로, 철학을 넘어 즐거움으로...' 무터가 들려주는 음악은 늘 새롭다. '바이올린의 여제(女帝)'란 칭호는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다. 무터는 진정한 바이올린의 여제이다' - 디아파종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전집(4CD)



2006년 모차르트 250주년을 기리는 안네-소피 무터의 모차르트 3부작 프로젝트의 마지막 완성 음반이다. 안네-소피 무터의 첫번째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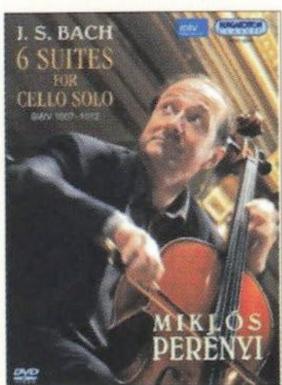
열정과 심플함, 안네-소피 무터의 음악 세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단어일 것이다.

1976년 루체른 페스티벌을 통해 공식 데뷔한 이래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최고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바이올린 여제(女帝)' 안네-소피 무터는 파가니니와 비에냐프스키의 빠르고 열정적인 연주와 화려한 테크닉으로 인상적인 데뷔를 했다. 화려한 테크닉을 뽐내던 그녀의

음악세계에 변화가 온 계기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면서 부터다.

2006년 6월, 9년만의 한국 공연을 기념해 전세계 최초발매로, 국내 한정 디지팩으로 생산된다.

미클로시 페레니의 바흐 무반주 첼로 조곡(전곡)



우리시대의 진정한 첼리스트이자 마지막 음유시인으로 손꼽히는 거장 미클로시 페레니가 만들어낸 바흐 무반주 첼로 조곡 전곡 DVD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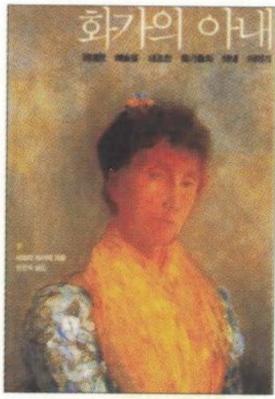
영상물로는 처음 발매되는 전곡 영상인 만큼 그 희소성도 클 뿐만 아니라, 한 예술가의 참된 연륜이 주는 깊이와 바흐 음악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바로 이 DVD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바흐의 엄격함과 낭만성, 넘치는 휴머니티와 긴장감 넘치는 구성력이 조화를 이루는 저 숭고한 경지를, 고결한 인품과 탁월한 예술성을 겸비한 페레니의 영광스러운 손끝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음악 감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스튜디오의 한 가운데에서 빈 의자와 주인없이 놓여진 첼로들을 배경으로 현대적인 푸른색 조명과 함께 지긋이 운궁을 하는 페레니의 모습은 거장의 순수함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 비바체클래식 제공

[화가의 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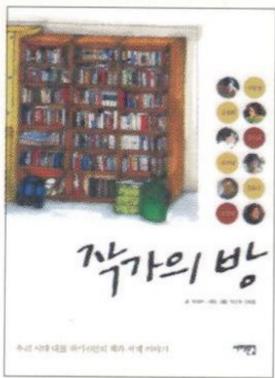
사와치 히사에 지음 | 아트북스 | 319p | 15,000원



인류 예술사에 길이 남을 걸작을 남긴 화가들은 기억하지만, 그들의 아내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 렘브란트, 밀레, 마네, 르누아르, 샤갈, 달리 등 열아홉 명의 거장을 탄생시킨 숨은 공로자, 화가의 아내들을 이 책에서 만나보자.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섬세하고도 즉흥적인 감성을 지닌 화가와 나누는 사랑은 로맨틱하지만, 화가와 함께 생활하는 여인의 삶은 그리 달콤하지 않다. '화가의 아내'들은 음식식물처럼 화가의 그늘에 살면서 말없이 화가를 뒷바라지하는 것이다. 화가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가정을 꾸리고, 가장이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화가들은 일반인보다 감정의 기복이 크고 신경이 예민한 편이며, 사회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화가와 가정을 꾸리고 동고동락해야 하는 운명의 여인이 바로 '화가의 아내'인 것이다. 그녀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작가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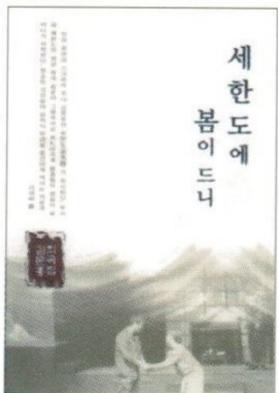
박래부 글 · 박신우, 안희원 그림 | 서해문집 | 279p | 10,900원



어쩌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글을 쓰는 작가는 어떤 공간에서 어떤 모습으로 글을 쓸까. 궁금했던 적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 소설가 여섯 명이 자신들의 문학의 산실을 공개한다. 성채 같은 서재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책을 꺼내는 이문열의 방, 중국제 앤티크 책상과 도시락 가방이 함께 있는 김영하의 연구실, 거실에 침대 두 개를 놓고도 부지런한 매미를 닦으려 애쓰는 시인 강은교의 집, 예수 초상과 성당 사진을 붙여 놓고 글쓰기의 기를 받는 공지영의 방, 넘치는 책을 주체 못해 만년 '2학년 1반' 담임을 맡은 김용택의 세 개의 서재, 문 없는 화장실의 파격과 조약돌 책갈피의 감성이 공존하는 신경숙의 방까지, 여섯 작가의 방은 그들의 작품처럼 저마다의 독특한 색깔을 보여준다. 작가의 꿈과 일상이 함께한 공간을 소개하여,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작가와 작품을 더 가까이 느끼고 더 잘 이해하도록 하고 싶다는 것에서 출발한 책이다. 문학판에서 잔뼈가 굵은 박래부 기자를 비롯하여, 사진작가 박신우, 그림작가 안희원 씨가 동참하여 작가들의 속살같은 공간, 작품이 탄생하는 현장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

[세한도에 봄이 드니]

김문홍 지음 | 해성 | 310p | 9,800원



소설가, 극작가, 동화작가, (연극)평론가를 두루 겸하고 있는 김문홍 씨의 세 번째 희곡집. 모두 7편이 실려 있는데, 5편은 무대에 올려졌던 작품이다. 그중 '세한도에 봄이 드니'는 제 22회 부산연극제에서 희곡상을 받은 작품이며, 2006년 이주홍문학상 희곡 부문 수상작이기도 하다. 다양한 장르를 발군의 역량으로 넘나드는 점이 향파 이주홍의 문학 정신을 빼닮았고, 수상작인 희곡 '세한도에 봄이 드니'는 도회 주변의 한 가족사를 통해 인간 삶의 진정성을 모색한 수작이라는 평을 들으며 수상의 영광을 안은 것이다. 또한 이 책은 희곡 분야에서 유일하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을 받아 발간된 희곡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희곡은 소설과 시를 결합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의 군더더기를 덜어낼 때 거의 대사로 압축돼 가는데, 그 압축의 과정은 시를 창작하는 것과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곡 쓰기는 여러 장르를 두루 아우르고 있는 김문홍 씨에게 어울리는 작업일지도 모른다. 부산문단, 그리고 연극판에서 저자만큼 두루 큰 역할을 해내고 있는 작가도 드물 것이다. 희곡집을 통해 그의 연극사랑을 읽어보자.

■ 박현주/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기 시민국악교실

- 강 습 일 시 : 2006년 7월 24일(월)~8월 4일(금)/10일(토, 일요일은 휴강)
- 강 사
 - 단소반 - 김영민(국악관현악단 단원)
 - 장구반 - 이주현(국악관현악단 단원)
 - 민요, 판소리반 - 정선희(국악관현악단 부수석)
- 참여대상 및 인원 : 부산시내 초, 중, 고교 교사 및 학생, 일반인(각반 30명)
- 참 가 비 : 20,000원(교재포함)
- 강 습 시 간 : 오후 2:00 ~ 4:00(1일 2시간)
- 강의시간 및 내용

과 목	인 원	장 소	실 기 내 용	비 고
단 소 반	30명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 독보법(악보 보는법)	1일 2시간 *수강인원10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됨
장 구 반	30명	국악관현악단 연습실	• 악기 소리내는 방법	
민요·판소리반	30명	국제회의장(소극장 2층)	• 실기지도	

- 수강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06년 7월 7일(금)~7월 19일(수) 18:00까지
(※토, 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문화회관 공연계(607-6047)

부산시립무용단 중남미 순회공연 - 도미니카,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

부산시립무용단이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하는 <2006년 중남미-도미니카,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순회공연>단체로 선정되어 오는 7월 24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중남미 순회공연길에 오른다.

부산시립무용단 흥기태 수석안무자와 단원들은 그동안 교류가 드물었던 중남미 국가에서 한국을 대표해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무대를 가지게 되어 공연준비에 활기가 넘친다.

이번 무대에서는 외국에서 호평받은 부산시립무용단의 주요 레퍼토리인 백두대간을 비롯 전통적인 궁중무용의 미학을 최대한 살려 새롭게 구성한 천하태평지무, 이도령과 춘향이 사랑을 나누는 대목을 춤으로 그린 사랑가, 중요무형문화재 제 17호 봉산탈춤의 주요 장면들과 중요무형문화재 제 18호 동래야류 중 '할미과장', 제 43호 수영야류 중

부산시립극단 제 7기 여름 연극교실

- 일시 및 장소 : 2006년 7월 24일(월)~7월 29일(토) 시립극단 연습실 및 소극장
- 참여대상 및 인원 : 중·고·대학생·일반인(선착순 40명)
- 참가비 : 20,000원(교재포함)
- 강의시간 및 내용

	24일(월)	25일(화)	26일(수)	27일(목)	28일(금)	29일(토)
1교시 10:00~ 10:50	개강식 연극의이해 손기룡	즉흥극 기본연기 이혁우, 김은희	상상력 상황연기 이돈희, 황창기	화술 장면연기 유성주, 염지선	즉흥극 기본연기 이혁우, 김은희	리허설
2교시 11:00~ 11:50	화술 장면연기 유성주, 염지선	상상력 상황연기 이돈희, 황창기	화술 장면연기 유성주, 염지선	즉흥극 기본연기 이혁우, 김은희	상상력 상황연기 이돈희, 황창기	공연 & 수료식
3교시 13:00~ 13:50	상상력 상황연기 이돈희, 황창기	놀이를 통한 연극만들기 이돈희, 황창기	체험을 통한 연극 만들기 유성주, 염지선	상상력을 통한 연극 만들기 이혁우, 김은희	총연습 이돈희, 황창기 유성주, 염지선 이혁우, 김은희	
4교시 14:00~ 14:50	즉흥극 기본연기 이혁우, 김은희					

- 수강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2006년 7월 10일(월)~7월 21일(금) 9일간(토, 일, 공휴일제외. 근무시간 중 접수)
- 문 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48), 부산시립극단(607-6136~6138)

‘말뚝이춤’을 새롭게 구성한 탈춤, 한국의 대표적인 창작무용 ‘부채춤’ 등 총 90분 내외의 작품을 선정, 한국적인 흥과 멋이 담긴 흥겨운 우리 춤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 공연 일정

- 7/26(수) : 도미니카 산토도밍고 공연(Teatro Nacional)
- 7/28(금) : 콜롬비아 칼리 공연(Teatro Nacional)
- 7/29(토) : 콜롬비아 칼리 공연(Teatro Nacional)
- 8/2(수) : 에쿠아도르 귀토 공연(Teatro Nacional)
- 8/4(금) : 에쿠아도르 과야킬 공연(Teatro Centro de Arte)



백두대간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무용교실 개강

- 제 15기 어린이 한국춤 교실, 제 26기 시민무용교실 -

부산무용단에서는 우리 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6년 8월 21일(월)~8월 25일(금) 어린이 춤교실과 시민무용교실을 개최합니다. 방학을 맞아 자녀와 함께 우리 춤의 멋에 빠져 보십시오.

■ 제15기 어린이 한국춤 교실 ■

- 강습내용 : 어린이 탈춤, 어린이 소고춤
- 강 사 :
 - 어린이탈춤 - 홍기태(수석안무자),
서현미(수석단원)
 - 어린이 소고춤 - 이윤희(훈련지도자),
장래훈(수석단원)
- 대상 및 인원 : 초등학생 어린이(각 반 20명)
- 준비물 : 어린이 탈춤 -한삼
어린이 소고춤 - 소고
- 접수기간 : 2006년 7월 31일(월)~2006년 8월 4일(금)
- 강습료 :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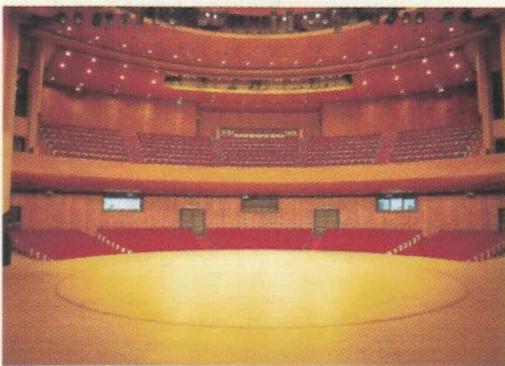
■ 제26기 시민무용교실 ■

- 강습내용 : 민살풀이춤, 장고춤
- 강 사 :
 - 민살풀이춤 - 홍기태(수석안무자),
서현미(수석단원)
 - 장 고 춤 - 이윤희(훈련지도자),
장래훈(수석단원)
- 대상 및 인원 : 일반시민 및 교사(각 반 20명)
- 준비물 : 민살풀이춤-없음 / 장고춤-장고채
- 접수기간 : 2006년 7월 31일(월)~2006년 8월 4일(금)
- 수강료 : 20,000원

※ 시민무용교실, 어린이 춤교실 강습 마지막날인 8월 25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강습결과 발표회를 가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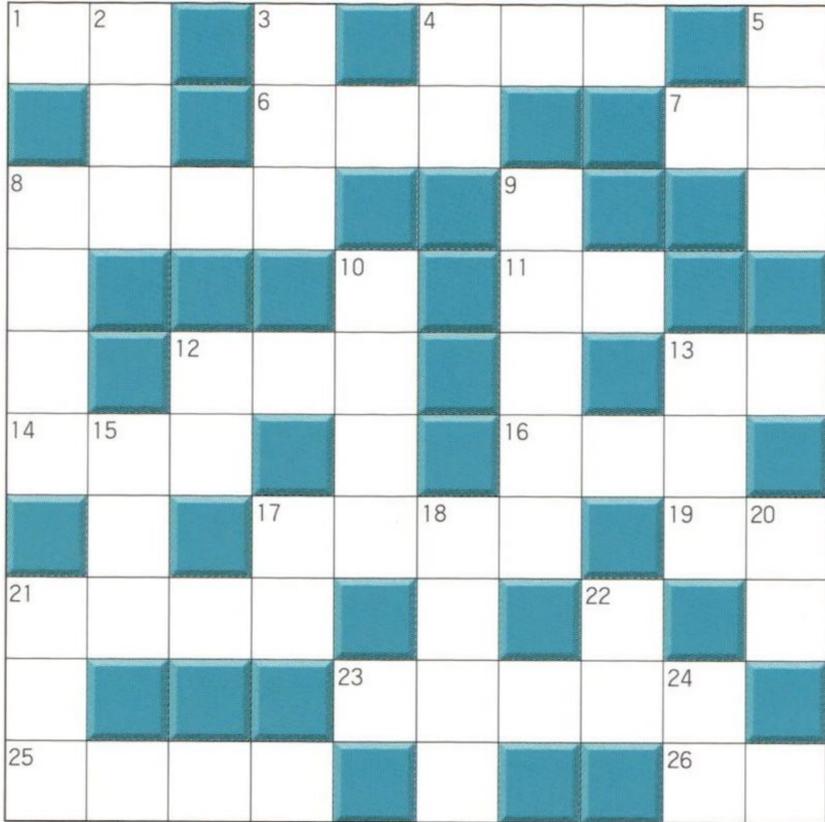
■ 접수 및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 기획실(607-6118)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객석 의자, 카펫트 교체, 무대설비 개보수



부산문화회관은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여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 24일부터 중극장 객석의자와 카펫트 교체, 무대설비 개보수 공사에 들어간다.

올해로 개관 18년을 맞은 부산문화회관은 2005년 1월 훼손이 심했던 대극장 객석의자 교체 작업을 시작으로 대·중·소극장 무대기계 설비 보수공사와 대극장 카펫트 교체 작업, 대극장 조광기 교체 공사를 진행해왔다. 올해는 중극장 조광기, 대·중극장 음향반사판 도색, 대·중·소극장 무대기계조작 콘솔을 교체한다. 객석의자는 보다 편안한 관람을 위해 의자의 폭을 넓히고 시야를 가리지 않게 배치한다. 의자 교체 공사 후 객석수는 886석에서 788석으로 조정되고 장애인석 7석이 함께 마련된다.



가로문제

- 음력 칠월 초이렛날로, 견우와 직녀가 1년만에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전설이 있다.
-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 입체파의 대표주자이자 현대미술의 거장. 대표작으로 '게르니카' '아비뇰의 아가씨' 등이 있다.
- 조선시대 6대 왕으로, 숙부인 수양대군 즉 세조가 권력을 잡으면서 유배지인 영월에서 죽음을 당한 비운의 왕.
- 현대 기타음악을 완성시킨 스페인의 기타리스트.
- 가난한 무명작가와 양순하고 어진 아내의 이야기를 그린 현진건의 단편소설.
- 상아로 만든 28장의 패를 가지고 노는 서양골패.
- 몸짓과 표정으로 하는 연기.
- 선과 악의 세계에서 방향을 계속하던 주인공 싱클레어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 곰과 비슷하며 배에 새끼를 넣어 기르는 주머니가 있는 호주의 동물

- 로, 유칼리나무의 잎만 먹고산다.
- 영화촬영소와 영화박물관, 극장 등이 몰려있는 미국 영화의 중심지.
- 운동선수가 흥분제나 근육증강제 등 약물을 사용하는 일.
- 15세기 전반 백년전쟁 후기에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했으나 끝내 마녀로 몰려 화형에 처해진 후 훗날 성녀로 봉해진 소녀.
- 조선 효종때 윤선도가 지은 연시조.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별로 10수씩 40수로 이뤄졌다.
- 2년마다 열리는 국제적인 미술전람회로, 2006 부산 OOOO가 5월 27일 부산조각프로젝트에 이어 9월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 인물, 동작을 잡아 순간에서 부분적으로 부각시키는 수법을 강조, 경마나 무희, 악사 등을 즐겨 그렸던 프랑스의 화가.

세로문제

- 원래는 조선시대 얼음을 넣어두던 창고.
-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을 근거로 하는 강력한 반사회적 비밀집단이었으나 현재 미국의 대도시에서 마약과 도박에 관련된 범죄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 한 종류의 원자로만 만들어진 물질.
- 올해로 43회를 맞는 한국 영화계의 대표적 영화제로 오는 7월 21일 열린다.
- 밤에 애인의 집 창문에서 남자가 부르거나 연주하던 사랑의 노래. 또는 18세기에 시작된 기악형식의 하나로 교향곡보다 규모가 작은 연주곡.
- 다빈치 그림에 숨겨진 고대 역사의 비밀을 풀어가는 댄 브라운의 소설.
- 대한민국 전 국민의 카드계좌에서 소액을 인출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만들자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시작되는 두 남자의 엇갈린 욕망을 그린 이항배 감독, 양동근, 김성수 주연의 범죄물.
- 미술·작품을 만들 때, 그 형상이나 모양, 색채, 배치 등에 관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 우리나라 최남단의 섬.
-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 TV 시리즈 '두 얼굴의 사나이'를 스크린으로 옮긴 이안감독의 영화.
- 죽대없이 머물거리기만 하고 딱 잘라 결단을 내리지 못함.
- 탁구.
- 원숭이의 방언.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운동주의 대표적 시.
- '소돔 120일' 등 발표한 작품이 도박성욕을 묘사한 것이라 하여 외설과 부도덕의 이유로 당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프랑스의 소설가. 이성을 확대함으로써 성적 쾌락을 느끼는 '사디즘'은 그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지나호 정답

월	드	컵		주	안	익	태
정			장	화	홍	련	권
사	생	결	단	글	제	부	도
	황			팔	씨	름	다
차		홍		만		오	페
이	은	상		대	취	타	스
코		수	목	장		산	트
프				경	국	지	색
스	핑	크	스			석	
키			모	니	터		도

- 큰집 식사권**
이찬훈(금정구 부곡2동) 황윤주(연제구 거제3동) 임혜숙(연제구 거제1동) 김정희(남구 문현2동) 하태섭(연제구 연산3동)
- 산마루골터(구 돈방불때)**
홍순조(해운대구 좌동) 송화은(사상구 엄궁동) 형경민(동래구 온천3동) 이선호(부산진구 전포3동) 김영규(사하구 신평동)
- 가마골소극장 초대권**
박행자(사하구 괴정3동) 이성미(영도구 동삼동) 장선경(사상구 덕포동) 박정희(연제구 거제1동) 하재범(남구 대연3동)
- 동보서적 도서교환권**
김상남(동구 범일2동) 이현숙(남구 우암1동) 조대식(동구 범일1동) 홍정남(연제구 연산5동) 김성진(서구 서대신동1가)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시 담당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더욱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산마루 골터

- 찜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 30초 완성 참숯판구이 삼겹

UN로타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 611-4040**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7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6월 정기회원 테마여행을 다녀와서

창녕 우포늪 생태체험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 4번째 여행지는 창녕 우포늪. 6월 9일 금요일, 출발지가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 늪지인 우포늪인 것도 그렇지만 자주 할 수 없는 자연 염색 체험을 한다는 기대감, 현장에서 펼쳐지는 시립합창단의 작은 음악회에 기대가 컸던 탓일까 참가 회원들의 얼굴은 어느 때 보다 상기되어 있었다.

8시 30분 부산문화회관을 출발한 차가 10시를 넘어 창녕에 이르렀을 때 창녕의 특산물 양파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폐교를 개조한 우포자연학습원에 도착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자연 염색 체험을 해보았다. 자연에서 나는 모든 것으로 염색이 가능하다는 강사의 설명에 이어 우리에게 건네진 염색 재료는 양파껍질을 삶은 물. '양파껍질을 삶은 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던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선명한 노란 빛깔이 나와 탄성이 이어졌다. 만들어낸 노란 손수건으로 다시 붉은 빛이 도는 소목을 입혀 알록달록 두건을 만들어냈다.

점심 식사 후 작은 음악회를 가진 뒤 우포의 사계를 담은 영상물을 감상하고 드디어 우포늪으로 출발했다. 한낮의 열기가 높아 지칠 법도 한데 습지 해설가의 재미있는 설명 때문인지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포의 아름답고 너른 품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탐사조약'에 의한 국제보호습지(1998년)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우포늪을 둘러본 6월 테마여행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운 뜻 깊은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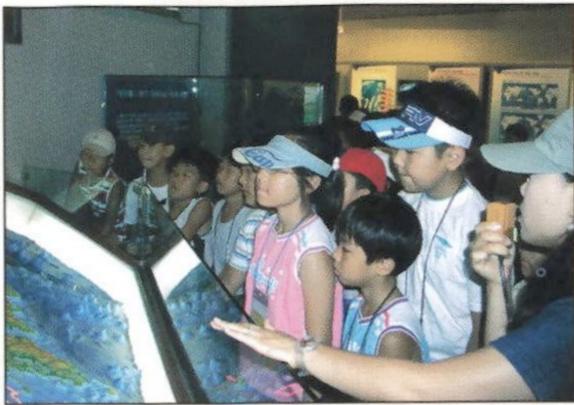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일탈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응모하십시오.



- ▶ **8월 11일(금) 가족과 함께 즐기는 즐거운 해양체험**
 기장 수산과학관 관람과 송정해수욕장에서 즐기는 신나는 해양 래프팅 체험.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09:30 기장 수산과학관 도착 및 관람
 11:30 송정해수욕장 도착 및 중식
 13:00 해양 래프팅 체험
 15:00 송정해수욕장 출발
 (※ 체험비 10,000원)



- ▶ **9월 8일(금) 허브힐즈에서 즐기는 허브체험**
 향긋한 허브의 세계 '허브힐즈'를 돌아보고 허브비누와 양초, 압화를 제작해 보는 허브체험.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10:30 병천 허브힐즈 도착
 11:00 허브체험-허브비누, 양화, 압화
 12:00 중식
 13:00 허브힐즈 내 허브동산 관람
 15:00 허브힐즈 출발
 (※ 체험비 10,000원)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7월 당첨자

- ▶ **7월 7일(금)**
 석남사, 손두부 및 허브체험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전태우(중구 보수동) 박찬(사하구 하단동) 신은경(부산진구 양정동) 옥경화(남구 용호1동) 강대순(부산진구 가야3동) 김명희(수영구 망미1동) 김부선(금정구 구서2동) 권미경(사상구 주례3동) 임춘규(남구 용호3동) 이경희(북구 화명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가입 당첨자(엽서) 명단(10명) 신현숙(북구 덕포2동) 이상금(수영구 남천2동) 임영진(동구 수정2동) 정은해(김해시 장유면) 주지영(동래구 낙민동) 김영화(연제구 거제3동) 김경란(연제구 거제3동) 이재금(금정구 구서1동) 장미정(양산시 중부동) 엄이숙(남구 용호1동) |
|--|---|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매주 월요일

부산에서 바로 떠나는 **홍콩** / **마카오** 자유여행



홍콩/마카오 에어텔 5일

₩ 399,000 (홍콩 1박/마카오 2박)

₩ 419,000 (홍콩 2박/마카오 1박)

■ 홍콩/마카오 왕복항공권 ₩250,000 ~ (tax 별도)

- 포함사항 | 부산-마카오간 항공료, 4성급호텔(2인 1실), 호텔조식
※ 홍콩, 마카오 자유 & 배낭여행 책자 제공
- 별도사항 | 부산, 마카오 공항세(TAX:₩45,000), 유류할증료 (왕복 45\$)
- 추천일정
 - 제 1 일 06:50 김해공항 미팅
08:20 김해공항 출발
10:55 마카오 도착
페리 터미널 이동 후 홍콩 이동(1시간 소요)
 - 제 2 일 전 일 1. 홍콩 데이투어
 - 제 3 일 ▷ 빅토리아파크, 리펄스베이, 오션파크, 야시장 등 시내관광
 - 제 4 일 ▷ 침사추이, 몽콕야시장 등 쇼핑관광
 ▷ 홍콩 디즈니랜드 관광
 - 2. 심천 데이투어
 ▷ 소수민족쇼 및 대형문화 유람지 관광
 - 3. 마카오 드라마 '궁' 촬영지 데이투어
 ▷ 와인 & 그랑프리박물관, 세나도광장, 세계적인 카지노관광 등
 - 제 5 일 02:55 마카오 출발 / 부산항발
07:10 부산 도착

• 자유여행 및 항공권 문의 : 김대곤(010-7730-3747)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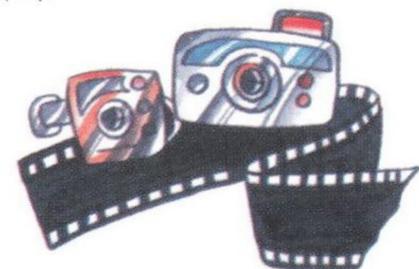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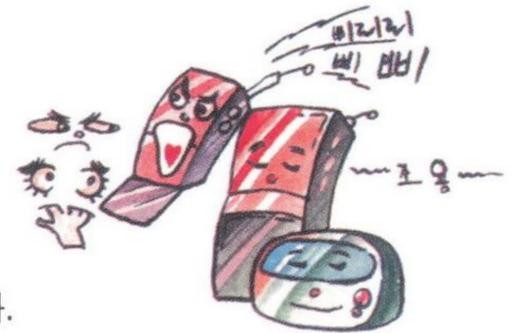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연장 신사, 숙녀

- ◇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좌석번호를 확인하여 앉습니다.
- ◇ 공연 중에 지정좌석을 찾으실 때는 뒤에서 기다리거나 빈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한 곡이 끝나면 조용히 자리를 찾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발소리, 기침소리, 부스럭대는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까지도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니 조심합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신발을 벗거나 무릎 위에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 ◇ 남의 앞을 지날 때는 몸을 숙여 남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 연주중에는 들락날락하거나 뛰어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 옷차림은 가능한 정장이나, 양전한 복장을 합니다.
- ◇ 껌을 씹거나, 음료수·음식물 등을 반입하여 드시면 안됩니다.
- ◇ 휴대폰, 호출기 등 소리나는 물건은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입장합니다.
- ◇ 공연시작 5분전까지는 입장하여 자리에 앉습니다.
- ◇ 냄새나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옆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입을 씻고 입장합니다.
- ◇ 7세이하의 어린이는 공연장내에 동반하지 않습니다.(공연장 3층 어린이 놀이방 활용)
- ◇ 화환이나 꽃다발은 입장시 로비에 보관하셨다가 공연후 증정하도록 합니다.
- ◇ 앵콜 연주까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어서거나 나가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 ◇ 공연장내 휴지나 인쇄물(프로그램, 좌석권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연주자의 연주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상냥개는
별난 물건 박물관
부산시립미술관

10% 할인권

(1매 4인 사용가능)

대상 : 할인쿠폰 소지자 또는 예술단 정기회원카드 제시자
기간 : 12월 31일까지

해운대 스펀지 3층 TEL: 051-740-4858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준높은 감상을 위한 우리의 마음

- ◇ 혼신의 힘으로 작품에 임하는 예술가의 열정과 관객들의 진지한 감상태도가 같이 만날 때 비로소 예술작품은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 ◇ 모처럼 공연장을 찾았다가 공연장 예의를 무시한 일부 관객들의 비문화적 태도로 감상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올바르게 감상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 숨소리마저 죽이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경의의 마음으로 감상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예술 작품을 함께 완성시켜가는 성숙하고 수준높은 관객의 역할입니다.
- ◇ 부산문화회관은 이러한 공연장 예의를 지키며, 진정 예술을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을 가장 소중한 관객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합니다.
- ◇ 부산문화회관이 품위있고 격조높은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음악회에서는 언제 박수를 쳐야 할까?

- ◇ 박수를 언제 쳐야 할 지 모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때를 기다렸다가 박수를 쳐도 늦지 않습니다.
- ◇ 교향곡이나 협주곡 등 악장의 수가 3~4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은 모든 악장이 끝난 후에 박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 ◇ 성악연주회의 경우는 한 작곡가의 곡이 모두 끝났을 때, 연주자가 3~4곡씩 묶어 부를 때는 다 들은 후 박수를 치면 됩니다.
- ◇ 오페라 공연의 경우에는 막이 내릴 때 치면 되고, 곡이 진행중에도 그 오페라의 대표적인 아리아나 혹은 유명한 아리아를 열창하고 나면 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단, 오케스트라의 후주가 끝난후에)
- ◇ 레퀴엠(진혼곡)은 연주가 끝나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추모의 뜻으로)
- ◇ 앵콜곡을 듣고 싶을 때는 지휘자 또는 연주자가 연주를 다 마치고 인사할 때 박수와 브라보라는 말로 요청합니다.(휘파람이나 고함소리를 내지 않는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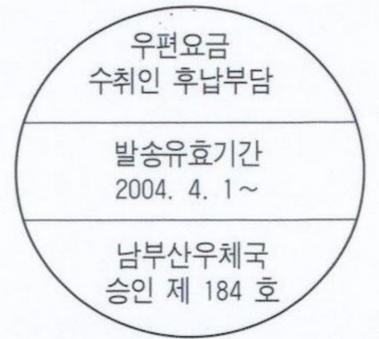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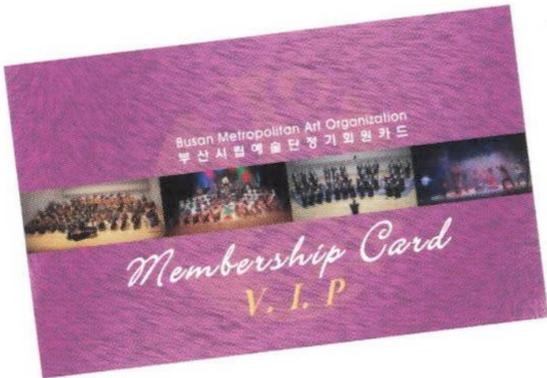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에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발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주최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초·중·고등학생)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경로우대·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정기회원가입회비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교통편

버 스 : 25, 51, 51-1, 68, 93, 134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 셔틀버스운행

출 발 지 : 청심꽃조경 앞(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100m 지점)

출발시간 : 월~ 금요일 오후 7시(무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

바이올린 · 김수연

2006. 8. 18(금) 오전 11시 /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협찬

ForAD
[주]포에드(중앙대학교)행사

■ 공연문의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www.bsculture.busan.kr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www.busanphil.com 607-6101~4

■ 입장권 /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